문화+서울

2018 4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이달의 표지 작가

윤하민

2017년 서울문화재단 최초예술지원 선정 작가. 계원예술대에서 매체예술을 공부했으며, 2012년 개인전 〈누가 사냥을 하든지 간에〉를 열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빈민운동가인 부모님의 영향으로 개인과 집단이 공생하는 '공동체'의 특성에 주목한 작업을 이어왔다.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하나'라는 신념 아래 유대감을 형성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의 의미를 서울의 상징적 풍경들을 통해 조망한다. 2013년 〈당신의 거울이 될 거예요〉, 2017년 〈If 6 Was 9〉 등의 개인전을 열었으며, 최근에는 프로젝트 그룹 '헤비급'을 결성하여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과 협업하고 있다.

1 〈국가보물〉 비닐 위에 실크스크린 | 72×92cm | 2012
2 〈서울의 동물〉 비디오 프로젝션 | 6'40 | 2017(설치 전경)
3 〈미세스 최〉 혼합재료 | 가변설치 | 2017
4 〈서울의 올림픽(볼링)〉 혼합재료 | 78×85cm | 2017

–

표지 작품
〈국가보물〉 비닐 위에 실크스크린 | 72×72cm | 2012

2

3

4

표지 작품 〈국가보물〉은 첫 개인전 〈누가 사냥을 하든지 간에〉에서 발표한 작품이다. 이 전시는 "누가 사냥을 하든지 다 같이 먹습니다"라는 동물 다큐멘터리의 내레이션에 감명을 받아 시작되었다. 당시 나는 사냥을 하듯 주변의 예쁜 물건들을 주워 모았고, 그것을 더욱 예쁘게 가공하였다. 그리고 전시장을 방문한 사람들과 나누어 가졌다. 국가의 보물은 나의 것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보물의 이미지를 비닐 위에 실크스크린으로 여러 개 복제하여 관객들과 함께 나누었다.

최근 나는 공동체의 공감대를 어떻게 시각예술로 보여줄지 고민하고 있다. 이 이야기 역시 〈여왕 코끼리의 여정〉이라는 다큐멘터리에서 시작되었다. 영상 속에서 코끼리는 48km의 모래 폭풍이 부는 황무지를 걷고 또 걷는다. 나는 끝도 없이 펼쳐진 대륙을 나아가는 코끼리 무리와 서울에 있는 동물들을 겹쳐 보았다. 그 동물들은 모두 어디서 왔을까? 동물원의 동물들은 모두 출신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모두 '서울의 동물'이라고 부른다.

나는 동물, 풍경, 서울을 각각 인물, 사건, 배경으로 설정하고 한 편의 시나리오를 완성하여 이를 시각적으로 펼쳐 보이는 작업을 진행했다. 아프리카 초원을 걷던 코끼리가 도착한 서울과 우리가 사는 서울을 한 전시장 안에 놓았다. 그리고 그들을 '서울의 동물'이라 명명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자 했다. 그 호칭이 잘못되었다거나, 오해를 바로잡겠다는 의도는 결코 아니다. 나는 나의 작품을 통해 어느 곳에서 왔건 어떤 모습을 했건, 모두 '우리'라고 믿는 공동체의 공감을 보여주고 싶다. 이 시나리오의 주인공이 동물이든 사람이든, 배경이 아프리카든 서울이든 상관없다. 우리는 모두 어디서든 각자의 풍경을 만들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CONTENTS

2018.4
vol.134

한 장의 사진

가장 격렬하게 미투 운동이 일어났던 문화예술계에서는 피해자들을 지지하고 연대의 뜻을 나타내는 위드유 운동이 확산됐습니다.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드러낸 것은 공연계 팬들이었습니다. 평소 연극 · 뮤지컬을 자주 보는 관객 400여 명은 지난 2월 25일,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앞에서 '연극뮤지컬관객 #위드유(WithYou)' 집회를 열고 "예술의 근간은 사람이다. 사람을 짓밟는 예술은 필요 없다"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_6~18페이지 '테마 토크'

서울문화재단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서울문화재단 [문화+서울]
발행처 (재)서울문화재단
발행인 주철환
편집 총괄 이규승
기획 · 편집 씨네21(주)
객원 편집위원 전민정
디자인 · 사진 씨네21(주), 조현우

(재)서울문화재단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전화 02-3290-7000
팩스 02-6008-7347
홈페이지 www.sfac.or.kr
웹진 www.sfac.or.kr/munhwaplusseoul
발행일 2018년 3월 30일
등록일 2005년 6월 8일

(재)서울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문화+서울]은 서울에 숨어 있는 문화 욕구와 정보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예술가들의 창조적 힘과 시민들의 일상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자 합니다.

—
[문화+서울]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서울문화재단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문화+서울]에 실린 기사는 모두 필자 개인의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01 **커버 스토리** 이달의 표지 작가 윤하민

04 **발행인의 말** 주철환의 더다이즘, 열아홉 번째

테마 토크
미투 혁명, 마음의 봄을 찾아서

08 **미투 운동에 대한 제언과 바람** 미투 운동, 시스템화가 필요하다

10 **문화예술계 성폭력 이슈 총정리** 미투 운동은 사회적 혁명이다

16 **서울문화재단은 지금** SFAC WITH YOU

사람과 사람

20 **문화인**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 총연출 양정웅

26 **작가의 방** 〈손 없는 색시〉 경민선 작가 · 조현산 연출

30 **진실 혹은 대담** 골목길 재생 활성화 심포지엄

36 **예술가의 밥그릇** 엑스레이 아티스트 정태섭

38 **서울 찰나** #MeToo 운동의 상징 '하얀 장미'

이슈 & 토픽

40 **쟁점** 경매사 미술시장 독점 논란

42 **화제 1** 제8회 현대일본희곡 낭독공연

46 **화제 2** 통영으로 돌아온 작곡가 윤이상

공간, 공감

50 **공간 1** 서교예술실험센터 〈쉐어 프로젝트:실험실〉

52 **공간 2** 용산공예관

54 **공감 1** 연극 〈에쿠우스〉와 〈아마데우스〉

56 **공감 2** 전시 〈구보타 히로지, 아시아를 사랑한 매그넘 작가〉와 〈이정진 : 에코-바람으로부터〉

58 **공감 3** 책 〈트랜스휴머니즘〉과 〈스웨덴 장화〉

60 **공감 4** 영화 〈소공녀〉와 〈더 미드와이프〉

62 **예술적 상담소**

Soul of Seoul

64 **메모리 인 서울** 남대문로와 노면전차

66 **서울 단상** 여행작가 송은정의 염리동 소금길

68 **고재열의 썰(說)** 서울시장과 서울문화재단의 미래

70 **최은규의 음악 정원으로** 사라질 뻔한 바흐와 슈베르트의 명곡들

72 **서울 건축 읽기** 창경궁 대온실

74 **최재훈의 씨니컬(Cine_Col: Cinema Column)** 토마스 맥카시 감독의 〈스포트라이트〉

76 **4월의 서울문화매뉴얼**

84 **편집 후기**

주철환의 더다이즘
열아홉 번째

영원히 기억하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제가 근무하는 사무실은 5층에 있습니다. 작은 엘리베이터가 있지만 거의 이용하지 않습니다. 전기를 아끼는 게 아니라 제 몸을 아끼는 게 목적입니다. 계단을 오르면서 자신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난 아직 걸을 수 있어.' '난 건강해. 지금 운동 중이거든.'

계단에서 만나는 직원에게 아침 인사를 건넵니다. "오늘 기분 어때요?" 돌아오는 답은 예측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만약 그 직원이 '글쎄요'라고 답하면 제 기분이 어떨까요? 그래서 그분이 참 고맙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즐겁게 열어준 직원에게 저는 미소를 선물합니다. 가끔은 가방에서 저의 비상식량인 초콜릿을 꺼내주기도 합니다.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켭니다. 오늘의 뉴스와 일과를 살핀 후 층별 나들이에 나섭니다. 요즘은 3층 나들이가 특별히 즐겁습니다. 입구에 자리한 생활문화사업팀에 들어가면 삶은 달걀이 매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직원들과 달걀을 까먹으며 김수환 추기경의 일화를 들려줬습니다. '삶이란 무엇인가'를 질문받고 '삶은 달걀과 같다'는 깨달음을 얻었다는 (우리 세대에겐 나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기차를 타면 반드시 듣게 되는 친숙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오징어, 사이다, 땅콩, 삶은 계란." 추기경 님은 거기서 힌트를 얻으신 겁니다. "누군가에 의해 깨진 달걀은 프라이가 되고 스스로 깨고 나온 달걀은 병아리가 된다."

교육용(?) 아재 개그도 하나 덧붙였습니다. "평창올림픽에 침투한 노로바이러스가 회사에도 오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모두가 의아해할 때 직장 내 노로바이러스의 정체를 밝힙니다. "노로는 노예와 로봇을 줄인 말입니다. 일의 노예, 감정 없이 노동만 하는 로봇은 절대로 되지 맙시다." 간식도 먹고 강의도 들은 직원들에겐 아마도 담임선생님의 조회시간 같았을 겁니다.

재단에 생활문화지원단이 생긴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생활예술, 생활체육, 생활경제, 생활디자인, 생활영어, 생활지원센터, 일상생활, 전원생활, 기초생활 등 생활이 들어간 말이 수없이 많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활기록부라는 단어에 애틋함을 느낍니다. 누구나 청소년 시절을 보내지만 스스로 문서에 기록을 남기는 일은 드뭅니다. 그런데 어떤 관찰자가 나의 소년 시절을 대신 기록해 두었다는 게 신기하지 않나요? 그 관찰자는 바로 담임선생님입니다.

학교에서 지금도 생활기록부라는 말을 사용하는지 궁금해서 인터넷 지식백과를 들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학생의 학교생활 모습과 발달상황을 기록하여 50년간 보존하는 문서.' 제가 왜 놀랐는지 그 이유를 들으시면 아마 이번엔 독자가 놀랄 겁니다. 올해가 바로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한 지 50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담임선생님의 객관적, 아니 주관적 시선으로 기록한 저의 어린 시절이 지금 사라질 위기에 놓인 겁니다. 빠른 시일 안에 제가 졸업한 돈암초등학교를 방문해야겠습니다.

발걸음을 안으로 옮깁니다. 3층 중앙에는 축제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영사모' 회원들이 있습니다.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 재단에는 직원과 대표가 비공식적으로 어울리는 모임이 많습니다. 4인용식탁, 월요문화카페, 꽃보다 문화에 이어서 최근엔 영사모가 결성되었습니다. 영사모는 영화를 사랑하는 모임이자 영호를 사랑하는 모임입니다. 재단에는 두 명의 영호가 있습니다. 감사실의 중년영호(김영호)는 50대, 축제팀의 청년영호(오영호)는 30대입니다. 영사모 소속의 영호는 청년영호입니다.

오영호는 재단에서 제가 맨 처음 얼굴을 마주한 직원입니다. 직접 재단을 방문하여 대표이사 공모 지원서를 제출할 때 접수 담당 직원이었습니다. 첫인상은 무덤덤했습니다. 친절한 것도 아니고 불친절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재단에 첫 출근한 날부터 그를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사근사근'하진 않았지만 맡은 일은 '차근차근' 잘하는 직원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인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바로 내가 다닌 돈암초등학교 31년 후배였던 겁니다.

이야기를 나누다가 취향의 접점을 찾아냈습니다. 영화 보기를 즐긴다는 점이 일치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영화 감상을 하고 영화평을 나누는 모임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의기투합이 이루어지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와 영호가 주축이 되고 그때그때마다 멤버들을 영입하는 형식에 합의했습니다. 맛있는 식사가 뒤따르는 건 재단의 미풍양속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영화로 〈코코〉를 선정했습니다. 애니메이션 영화는 제가 선호하는 장르가 아닙니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찾아본 포스터의 글귀가 자꾸만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영원히 기억하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코코〉의 동행자로 캐스팅된 축제팀의 김영규, 김유리와 함께 명동에서 만두를 먹고 커피를 마신 후 저희 넷은 드디어 극장에 들어섰습니다. 15분가량 〈겨울왕국〉의 별책부록이 펼쳐진 후 드디어 〈코코〉의 세상으로 진입했습니다. 멕시코가 배경인 화면의 빛깔은 강렬했고 죽은 자들의 꽃으로 묘사된 금잔화는 화려했습니다. 등장하는 캐릭터는 저마다 개성이 분명했습니다. 코코를 포함한 할머니들은 무척이나 귀여웠습니다. 귀여운 노인이 되는 게 꿈인 저에겐 적잖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이 적절한 비율로 등장하는 것도 좋았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주인공 소년의 증조할머니 코코가 소녀처럼 눈물 흘리는 대목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추억 앞에서 우리는 다시 소년소녀가 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영화에서 죽은 자들의 날은 길어야 3일입니다. 그들이 이승을 방문하려면 산 자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기억이 사라지면 부활은 없습니다. 마지막 음악 〈Remember Me〉를 흥얼거리며 영사모 회원들과 악수했습니다.

"산 자들의 날은 365일이야. 살아 있는 동안 사이좋게 지내자."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주철환

#MeToo

미투 혁명, 마음의 봄을 찾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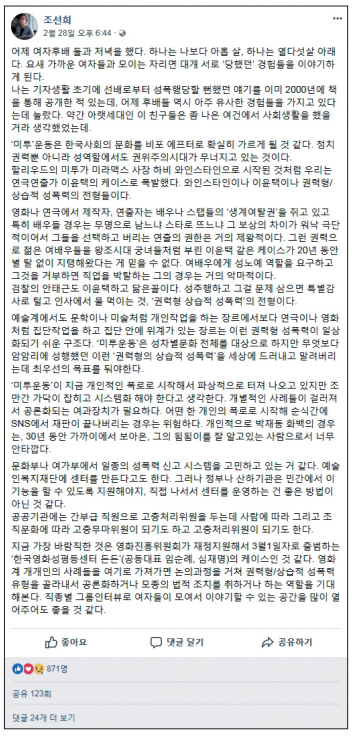
하루가 멀다 하고 성폭력 피해자의 폭로가 이어졌다. 법조계에서 시작된 미투 운동이 문화예술계부터 정치, 종교, 학계까지 사회 각계로 들불처럼 번졌고, 대한민국 하늘 아래 온전한 분야는 없었다.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의 사과, 정부를 비롯한 각종 단체의 지지 성명 및 후속 조치 제안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투(MeToo) 운동은 #위드유(WithYou) 운동과 #미퍼스트(MeFirst) 운동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미투 운동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과 의견이 존재하지만, 무엇보다 권력형 성범죄는 남녀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불공정, 불평등에서 비롯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4월 '테마 토크'에서는 지금까지의 문화예술계 미투 운동을 정리하고 되짚어보았다. 촛불혁명의 기시감이 들 정도로 거세게 일고 있는 미투 혁명의 끝에 마음의 봄이 찾아오기를 기대한다.

그림 박수정

미투 운동에 대한
제언과 바람

미투 운동, 시스템화가 필요하다

미투 운동은 한국 사회의 권위적인 문화를 뒤바꾸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어떠한 여과장치 없이 개인의 폭로와 온라인상에서의 여론 재판으로 끝나버리는 경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다양한 논쟁 사이에서 표류하고 있는 지금의 미투 운동이 제대로 방향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조선희
2월 28일 오후 6:44 ·

어제 여자후배 둘과 저녁을 했다. 하나는 나보다 아홉 살, 하나는 열다섯살 아래다. 요새 가까운 여자들과 모이는 자리면 대개 서로 '당했던' 경험들을 이야기하게 된다.
나는 기자생활 초기에 선배로부터 성폭행당할 뻔했던 얘기를 이미 2000년에 책을 통해 공개한 적 있는데, 어제 후배를 역시 아주 유사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다는데 놀랐다. 약간 아랫세대인 이 친구들은 좀 나은 여건에서 사회생활을 했을 거라 생각했는데.
'미투'운동은 한국사회의 문화를 비포 애프터로 확실히 가르게 될 것 같다. 정치권력뿐 아니라 성역할에서도 권위주의시대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할리우드의 미투가 미라맥스 사장 하비 와인스타인으로 시작된 것처럼 우리는 연극연출가 이윤택의 케이스로 폭발했다. 와인스타인이나 이윤택이나 권력형/상습적 성폭력의 전형들이다.
영화나 연극에서 제작자, 연출자는 배우나 스탭들의 '생계여탈권'을 쥐고 있고 특히 배우들 경우는 무명으로 남느냐 스타로 뜨느냐 그 보상의 차이가 워낙 극단적이어서 그들을 선택하고 버리는 연출의 권한은 거의 제왕적이다. 그런 권력으로 젊은 여배우들을 왕조시대 궁녀들처럼 부린 이윤택 같은 케이스가 20년 동안 별 탈 없이 지탱해왔다는 게 믿을 수 없다. 여배우에게 성노예 역할을 요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면 직업을 박탈하는 그의 경우는 거의 악마적이다.
검찰의 안태근도 이윤택과 닮은꼴이다. 성추행하고 그걸 문제 삼으면 특별감사로 털고 인사에서 물 먹이는 것, '권력형 상습적 성폭력'의 전형이다.
예술계에서도 문학이나 미술처럼 개인작업을 하는 장르에서보다 연극이나 영화처럼 집단작업을 하고 집단 안에 위계가 있는 장르는 이런 권력형 성폭력이 일상화되기 쉬운 구조다. '미투운동'은 성차별문화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무엇보다 암암리에 성행했던 이런 '권력형의 상습적 성폭력'을 세상에 드러내고 말려버리는데 최우선의 목표를 둬야한다.
'미투운동'이 지금 개인적인 폭로로 시작해서 파상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지만 조만간 가닥이 잡히고 시스템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별적인 사례들이 걸러져서 공론화되는 여과장치가 필요하다. 어떤 한 개인의 폭로로 시작해 순식간에 SNS에서 재판이 끝나버리는 경우는 위험하다. 개인적으로 박재동 화백의 경우는, 30년 동안 가까이에서 보아온, 그의 됨됨이를 잘 알고있는 사람으로서 너무 안타깝다.
문화부나 여가부에서 일종의 성폭력 신고 시스템을 고민하고 있는 거 같다. 예술인복지재단에 센터를 만든다고도 한다. 그러나 정부나 산하기관은 민간에서 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지, 직접 나서서 센터를 운영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다.
공공기관에는 간부급 직원으로 고충처리위원을 두는데 사람에 따라 그리고 조직문화에 따라 고충무마위원이 되기도 하고 고충처리위원이 되기도 한다.
지금 가장 바람직한 것은 영화진흥위원회가 재정지원해서 3월1일자로 출범하는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공동대표 임순례, 심재명)의 케이스인 것 같다. 영화계 개개인의 사례들을 여기로 가져가면 논의과정을 거쳐 권력형/상습적 성폭력 유형을 골라내서 공론화하거나 모종의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하는 역할을 기대해본다. 직종별 그룹인터뷰로 여자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열어주어도 좋을 것 같다.
좋아요 댓글 달기 공유하기
871명
공유 123회
댓글 24개 더 보기

조선희 소설가의 페이스북 게시글.

* 이 글은 필자의 동의하에 페이스북 게시글을 지면으로 옮긴 것입니다.

얼마 전 여자후배 둘과 저녁을 했다. 한 명은 나보다 9살, 한 명은 15살 아래다. 요새 가까운 여자들과 모이는 자리에서는 대개 서로 '당했던' 경험들을 이야기하게 된다. 나는 기자생활 초기에 선배로부터 성폭행당할 뻔했던 얘기를 이미 2000년에 책을 통해 공개한 적 있는데, 얼마 전 만난 후배들 역시 유사한 경험들이 있다는 데 놀랐다. 약간 아랫세대인 이 친구들은 좀 나은 여건에서 사회생활을 했을 거라 생각했는데.

'권력형 상습적 성폭력'의 전형들

미투 운동은 한국 사회의 문화를 '비포 애프터'로 확실히 가르게 될 것 같다. 정치권력뿐 아니라 성역할에서도 권위주의시대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할리우드의 미투 운동이 미라맥스 사장 하비 와인스타인에서 시작된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연극연출가 이윤택으로부터 폭발했다. 와인스타인이나 이윤택이나 '권력형 상습적 성폭력'의 전형들이다.

영화나 연극에서 제작자와 연출자는 배우, 스태프의 '생계여탈권'을 쥐고 있고 특히 배우들의 경우는 무명으로 남느냐 스타로 뜨느냐에 따라 그 보상의 차이가 워낙 극단적이어서 그들을 선택하고 버리는 이들은 거의 제왕적인 권한을 누린다. 그런 권력으로 젊은 여배우들을 왕조시대 궁녀들처럼 부린 이윤택 같은 케이스가 20년 동안 별 탈 없이 지탱되어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 여배우에게 성노예 역할을 요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면 직업을 박탈하는 그의 경우는 거의 악마적이다.

검찰의 안태근도 이윤택과 닮은꼴이다. 성추행을 하고 그걸 문제 삼으면 특별감사로 털고 인사에서 물 먹이는 것, 권력형 상습적 성폭력의 전형이다.

예술계에서도 문학이나 미술처럼 개인작업을 하는 장르보다, 연극이나 영화처럼 집단작업을 하고 집단 안에 위계가 있는 장르는 이런 권력형 성폭력이 일상화되기 쉬운 구조다. 미투 운동은 성차별 문화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무엇보다 암암리에 성행했던 이런 권력형 상습적 성폭력을 세상에 드러내고 말려버리는 데 최우선의 목표를 두어야 한다.

정부는 직접 나서기보다 지원해야

지금 미투 운동이 개인적인 폭로로 시작되어 파상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지만, 조만간 가닥을 잡고 시스템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별적인 사례들이 걸러져서 공론화되는 여과장치가 필요하다. 어떤 한 개인의 폭로로 시작해 순식간에 SNS에서 재판이 끝나버리는 경우도 위험하다. 개인적으로 박재동 화백의 경우는, 30년 동안 가까이에서 보아온, 그의 됨됨이를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너무 안타깝다.

문화체육관광부나 여성가족부에서 일종의 성폭력 신고 시스템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센터를 만든다고도 한다. 그러나 정부나 산하기관은 민간에서 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지, 직접 나서서 센터를 운영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다. 공공기관에서는 간부급 직원으로 고충처리위원을 두는데, 사람에 따라 그리고 조직문화에 따라 고충무마위원이 되기도 하고 고충처리위원이 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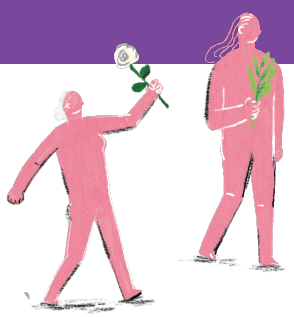
지금 가장 바람직한 사례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재정을 지원해 3월 1일자로 출범한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공동대표 임순례, 심재명)인 것 같다. 영화계 개개인의 사례들을 여기로 가져가면 논의 과정을 거쳐 권력형 상습적 성폭력 유형을 골라내 공론화하거나, 모종의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하는 역할을 기대해본다. 직종별 그룹 인터뷰로 여자들이 모여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열어주어도 좋을 것 같다.

글 **조선희** 〈한겨레〉 문화부 기자를 거쳐 〈씨네21〉 편집장을 지냈으며 한국영상자료원장, 서울문화재단 대표를 역임했다. 장편소설 〈열정과 불안〉, 〈세 여자〉 등을 펴냈다.
그림 **박수정**

문화예술계 성폭력 이슈 총정리

미투 운동은 사회적 혁명이다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은 연말이 되면 '올해의 인물'(Person of the Year)을 발표한다. 〈타임〉이 선정한 2017년 '올해의 인물'은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공개하고 사회 변화를 이끌어 낸 불특정 다수의 폭로자들을 가리키는 '침묵을 깬 사람들'(The Silence Breakers)이었다. 미투 운동이 미국은 물론 세계 각국에서 일으킨 변화를 높이 산 것이다. 〈타임〉은 홀로 존재했던 목소리가 모여 '거부의 혁명'을 가능하게 했다고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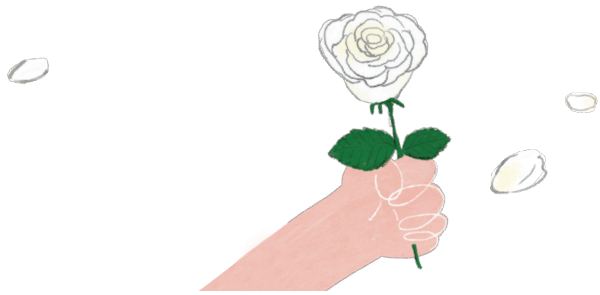


미투 운동은 지난 2006년 미국의 사회운동가 타라나 버크가 성범죄에 취약한 유색인종 여성과 청소년을 위해 시작했다. '나도 그렇다'라는 뜻의 '미투'(me too)는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는 동시에 함께 연대해서 문제에 대응하자는 뜻을 담고 있다. 다만 버크의 미투 운동은 거의 주목받지 못하다가 2017년 10월 할리우드의 거물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추문이 터지면서 온라인에서 다시 등장했다.

〈뉴욕타임스〉가 30여 년에 걸친 와인스타인의 성범죄를 고발한 뒤 여배우 알리사 밀라노는 트위터를 통해 '미투'에 '해시태그'(#)를 붙여 자신의 성폭력 피해 경험을 고발하자고 제안했다. 다양한 연령, 인종, 직업의 여성들이 SNS를 통해 폭발적으로 호응했고, 미국 사회 전반에서 권력형 성범죄가 잇따라 드러났다.

미국을 넘어 지구촌 곳곳으로 퍼져나간 미투 운동은 마침내 한국에서도 불붙었다. 결정적인 계기는 지난 1월 말 서지현 검사의 검찰 내 성추행 폭로다. 서 검사는 검찰 내부 통신망에 '해시태그 미투'(#MeToo)와 함께 지난 2010년 법무부 국장이었던 안태근 검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으며 이후 인사상 불이익까지 받았다고 폭로했다. 또한 방송에 출연해 검찰 내에서 성폭력 피해를 따지는 여검사들이 '꽃뱀'이라는 비난까지 받는다는 이야기도 털어놓았다. 서 검사의 사례는 우리나라에서 성폭력 피해 여성이 처하게 되는 고통스런 현실이 법의 집행기관이라는 검찰에서도 예외가 아님을 보여줬다.

1 2017년 '올해의 인물'로 '침묵을 깬 사람들'을 선정한 〈타임〉.
2 알리사 밀라노는 자신의 SNS를 통해 처음 미투를 제안했다. (출처_알리사 밀라노 트위터)
3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미투 운동 지지와 성폭력 근절을 위한 행진을 마친 YWCA 연합회 회원들이 부조상 앞에 장미를 놓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4 지난 3월 12일, 서울도서관은 고은 시인의 집필공간을 재현한 '만인의 방'을 철거했다.



불붙은 문화예술계의 미투 운동… 거장들의 몰락

서 검사의 폭로 이후 미투에 가장 빠르게 반응한 곳은 문화예술계였다. 사실 문화예술계에선 지난 2016년 10월 트위터상에서 '#00계_내_성폭력' 해시태그를 통해 각 분야별 예술가들의 성폭력 행태를 고발하기 시작했다. 당시 문단(문학계), 미술계, 영화계에서 폭로가 이어졌다. 배용제 시인 등 일부 가해자들은 법적 처벌을 받았고, 박범신 소설가 등은 자숙을 선언했다.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문화예술계는 미투 운동과 함께 다시 불타올랐다.

SNS에서는 최영미 시인이 2017년 겨울 발표한 시 〈괴물〉이 화제로 떠올랐다. 트위터에서 운영되는 '문단_내_성폭력 아카이브'가 이 시 전문을 띄우며 다시 한 번 관심을 촉발시킨 것이다. 이 시는 "En선생 옆에 앉지 말라고/ 문단 초년생인 내게 K시인이 충고했다/ 젊은 여자만 보면 만지거든/ K의 충고를 깜박 잊고 En선생 옆에 앉았다가/ Me too/ 동생에게 빌린 실크 정장 상의가 구겨졌다"라는 내용으로 시작된다.

최 시인은 En선생이라는 이니셜을 썼으나 '노털상 후보', '100권의 시집을 펴낸' 등으로 묘사해 원로시인 고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최 시인이 방송에 출연해 문단의 성폭력 문제를 다시 폭로한 데 이어 류근 시인이 SNS에서 고은을 직접 언급했다. 류 시인은 "고은 시인의 손버릇, 몸버릇을 이제서야 처음 듣는 듯 소스라치는 척하는 문인과 언론의 반응이 놀랍다"고 비판했다.

고은은 이후 국내 언론과는 접촉을 피하면서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성추행 의혹을 부인하는 성명을 보냈다. 그의 궁색한 모습은 일말의 의구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까지 실망시키기에 충분했다. 또 교수 시절 성추행 사건으로 교수직에서 해임된 전력이 있는 감태준 시인은 한국시인협회장으로 뽑혔다가 미투 운동 열풍 속에 한 달 만에 사퇴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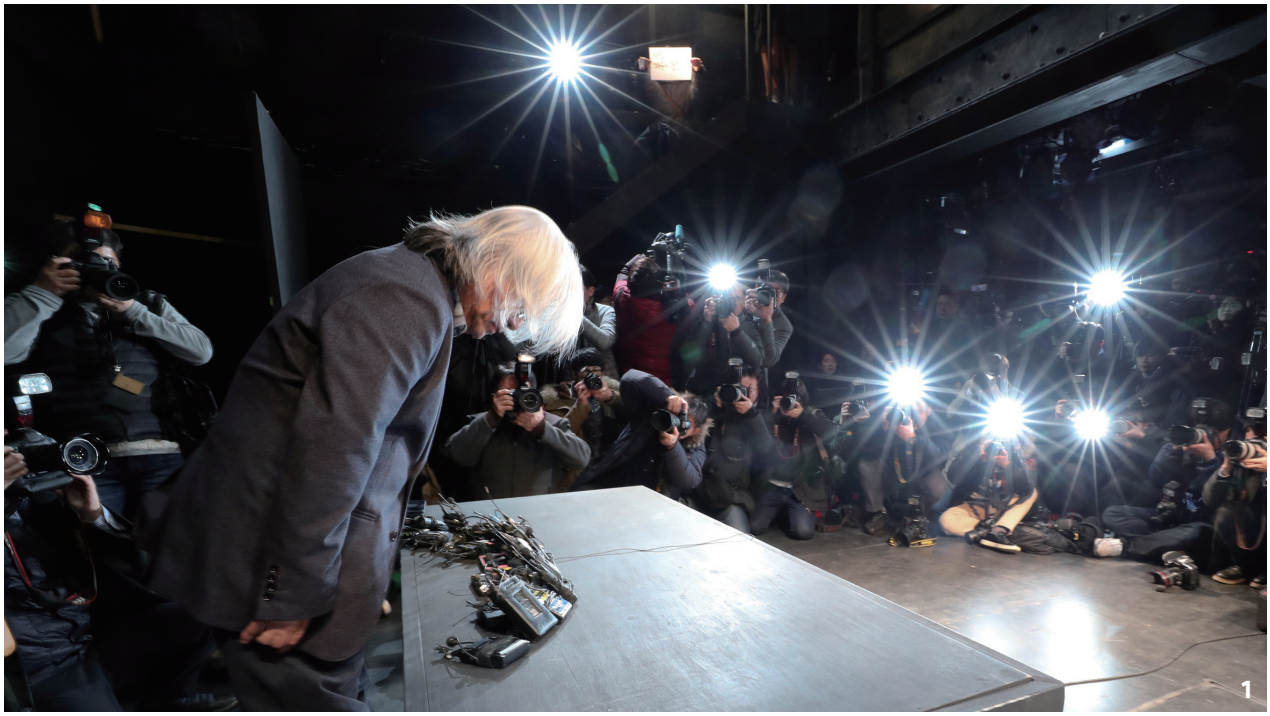
고은 시인 충격파가 만만치 않은 가운데 2월 들어 연극계가 미투 운동의 전면에 나섰다. SNS와 온라인 공연 커뮤니티(디시인사이드 연극, 뮤지컬 갤러리)가 강력한 촉매제 역할을 했다. 배우 이명행이 과거 한 여성 스태프를 성추행했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지면서 파문이 확산됐다. 이명행은 출연 중이던 연극 〈거미여인의 키스〉에서 하차하면서 사과문을 올렸지만 또 다른 피해자들도 나왔다.

사실 연극계는 2016년 '#00계_내_성폭력' 해시태그 운동이 벌어질 때 유난히 조용했던 분야였다. 2017년 초반 연극계에서 페미니즘 담론과 문제의식이 조금씩 제기됐지만 성범죄 피해를 폭로하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주로 폐쇄적인 환경에서 공동작업을 하는 연극계의 특수성 때문이었다. 하지만 미투 운동은 여성 연극인들에게 수치와 책임이 자신(피해자)이 아닌 가해자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만들었다.

이명행에 이어 '연극계의 거장'으로 꼽히던 극단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이윤택의 성범죄 의혹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처음 제기됐다. 이윤택이 2015년 국립극단에서 배제된 이유가 "블랙리

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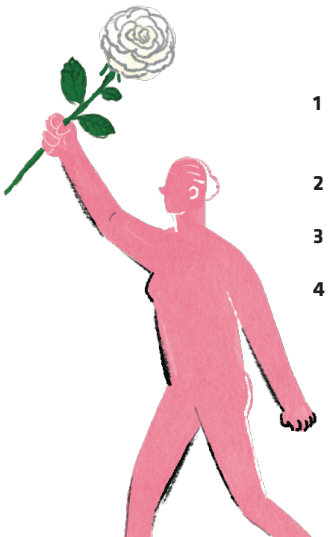


스트 때문이 아니라 성폭행을 행사하려 했던 전력 때문"이라는 글이 게시된 것이다. 이후 극단 미인의 김수희 대표가 SNS를 통해 과거 연희단거리패 시절 이윤택이 부적절한 안마를 시켰다고 폭로했다. 이윤택에게 성폭행까지 당했다는 또 다른 배우들의 폭로까지 이어지자 이윤택은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성폭행에 대해선 폭력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다고 변명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연희단거리패의 김소희 대표가 기자회견 직후 극단의 해체를 선언했지만 이윤택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됐다. 피해자들이 계속 나온 데다 그중 한 명은 김 대표가 이윤택의 성폭력을 조장 내지 방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이윤택이 기자회견 연습을 했다는 폭로까지 이어졌다. 게다가 극단 근거지인 밀양연극촌의 촌장이자 밀양북춤 인간문화재인 하용부의 성폭행도 폭로됐다.

연극계의 또 다른 거장인 오태석도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됐다. 논란이 불거지자 그가 극단 목화 단원들과 대책 회의를 열고 피해자와 접촉하려 한 정황이 확인됐다. 오태석은 당초 언론에 자신의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이윤택과 오태석 이후 공연계의 성범죄 폭로는 더욱 뜨거워졌다.



1 이윤택 연출가가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하는 모습. 이후에도 피해자들의 폭로가 이어졌다.
2 3월 5일에 있었던 '문화예술계 내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
3 2월 25일 마로니에공원에서 열린 '연극뮤지컬관객 #위드유(WithYou)' 집회.
4 3월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범시민행동 출범 기자회견'에서는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인식 제고 및 정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3

4

뮤지컬계의 거장인 윤호진 에이콤 대표는 성추행 논란이 불거지자 사과문을 내고 위안부 할머니 소재의 신작 뮤지컬 제작을 무기한 연기했다. 또 뮤지컬 음악감독 변희석은 SNS에 장문의 사과문을 발표했다.

현재 영화와 TV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오달수와 최일화는 과거 연극배우 시절의 성범죄가 폭로됐다. '천만 요정' 오달수는 처음엔 부인하다 나중에 시인했지만 연애감정이었다고 말해 여론의 공분을 샀고, 한국연극배우협회 이사장인 최일화는 먼저 성추행을 고백했지만 이후 성폭행인 것이 드러나 더 비난받았다. 두 사람은 연극계에서 미투의 대상이 됐지만 후폭풍은 영화계의 몫이 됐다. 또 경남과 전북 연극계에서 잇따라 미투가 나오면서 김해 극단 번작이의 조증윤 대표는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가 불거지며 경찰에 체포되는 첫 사례가 됐다.

특히 한명구, 조민기, 조재현, 김태훈, 최용민, 박중현, 김석만, 박병수 등 연극영화과 전·현직 교수들의 성추문에 대한 폭로가 잇따랐다. 한국 예술계가 공동체를 중시하고 위계질서를 따지다 보니 예술대학 교수들은 학생들에게 괴물이 되어 있었다. 명지전문대 연극영상학과 남성 교수 4명 모두 학생을 상대로 성추행을 했으며 남자 조교는 이를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울예대와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는 여러 남성 교수들이 성희롱과 성추행 의혹으로 수업에서 배제됐다.

인기 배우 조민기와 조재현은 처음엔 부정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피해자들의 폭로가 잇따르자 뒤늦게 사과문을 발표, 여론의 따가운 비판을 받았다. 두 사람은 과거 딸과 함께 나오는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터라 대중은 그 이중적인 모습에 더더욱 실망을 느꼈다. 그런데 조민기는 경찰 소환을 앞두고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해 충격을 안겼다.

충격적인 영화계의 민낯

들불처럼 번진 연극계만큼은 아니지만 영화계에서도 미투 파문이 만만치 않았다. 서 검사의 미투를 본 여성 감독이 SNS에 동성 감독에게 당한 성폭력을 고발하고 나섰다. 가해자 이현주 감독은 처음엔 억울함을 표시했지만 상황이 악화되자 전격 은퇴를 선언했다. 그동안 미투 운동은 대체로 피해자인 여성이 가해자인 남성을 향해 이뤄졌지만 이 사건은 성폭력 문제가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문제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다.

이어 고(故) 김주혁의 유작 〈흥부〉를 연출한 조근현 감독이 신인 여배우들을 성희롱한 것이 밝혀진 후 외국으로 잠적해 논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김기덕 감독의 사례는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이다. MBC 〈PD수첩〉은 '거장의 민낯' 편에서 김 감독과 그의 페르소나 조재현의 성폭행 및 성추행 사실을 폭로했다. 두 사람 모두 이미 방송 전부터 미투 운동 고발 대상자였지만 함께 영화를 찍었던 여배우들이 증언한 실체는 상상을 초월했다. 심지어 〈할리우드 리포트〉 등 외신도 김 감독과 관련한 혐의가 한국의 미투 운동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최악이라고 보도했을 정도다.

김 감독은 현재 잠적 중이고, 조재현 역시 수사를 기다리며 두문불출하고 있다. 여기에 김기덕 사단 출신인 전재홍 감독이 찜질방

에서 남성의 나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 중인 사실도 알려졌다.
이외에 사진작가 배병우 · 로타, 만화가 박재동 · 강도하, 거문고 명인 이오규 등도 미투 운동 앞에 고개를 숙여야 했다. 또 대중음악계에서는 래퍼 던말릭, 드러머 남궁연, 재즈 거장 류복성, 트로트 가수 겸 제작자 신웅, 가수 강태구도 성추행 의혹이 제기됐다. 남궁연과 던말릭은 자신의 범죄 의혹을 부인하며 강경대응 방침을 내놓고 있다.
사실 순수예술과 대중예술을 가리지 않고 너무나 많은 성추행 의혹이 불거져서 일일이 쓰기도 어려운 수준이다. 특히 문화예술계에서 시작된 미투 운동이 대학가로 번지면서 연극영화과를 시작으로 다른 예술 전공학과로 후폭풍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해 어떻게 전개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1

'위드유' 등 지지 · 연대, 대안 마련 움직임 활발

가장 격렬하게 미투 운동이 일어났던 문화예술계에서는 피해자들을 지지하고 연대의 뜻을 나타내는 위드유(#WithYou) 운동도 확산되고 있다. 위드유 운동은 피해자가 아닌 사람들이 '미투 운동을 벌이는 당신과 함께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특히 공연계 관계자와 팬들은 성폭력 관련 글을 SNS에 공유하면서 '#WithYou'를 달거나 '위드유'가 적힌 팔이나 손 사진을 올리고 있다. 권위주의적인 구조에 순응한 태도를 반성하고 이를 바꾸기 위해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셈이다.
응원 해시태그는 다른 형태로도 변주됐다. 성범죄 피해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등장한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성범죄 목격자가 먼저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미퍼스트'(MeFirst)도 있다. 미퍼스트 운동은 미투 운동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남성 중심적 문화를 반성하고 올바른 성의식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남성들의 모습을 반영한다.
그런데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드러낸 이들은 팬들이다. 평소 연극 · 뮤지컬을 자주 보는 관객 400여 명은 지난 2월 말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앞에서 '연극뮤지컬관객 #위드유(WithYou)' 집회를 열었다. 이 집회는 일반 관객 3명이 트위터를 통해 추진하기 시작해 집회 비용도 자발적인 모금으로 마련했다. 집회의 구호는 '예술의 근간은 사람이다. 사람을 짓밟는 예술은 필요 없다'였다.
위드유 선언과 함께 젊은 예술가들을 중심으로 대안을 만들어가려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이번 미투 운동을 계기로 뼈아픈 자기비판과 반성적 성찰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성폭력 문제에 대해 무심했던 사람들조차 자신이 방관자 혹은 암묵적인 동조자, 어쩌면 가해자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이번 미투 운동을 단순한 폭로가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마중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
연극인들이 결성한 '성폭력반대 연극인행동'은 권위주의 문화와 위계에 의한 폭력, 성차별과 성폭력 문제 등 폐단을 끊어내겠다며 피해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상담 창구를 마련하는 한편 법률 자문 등을 돕고 있다. 미투 운동 폭로자들이 2차 피해를 당하는가 하면 사실 적시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 소송을 당하는 등의 사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조민기 등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 성범죄를 폭로한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나오는 상황이다.
영화계 역시 성폭력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한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을 열었다. 심재명 명필름 대표와 임순례 감독이 공동대표를 맡은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 역시 영화계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각종 지원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미국 할리우드에서는 미

2

3

1 영화계의 성평등 환경 조성과 성폭력 근절을 위해 활동할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의 개소 기념행사.

2, 3 연극 · 뮤지컬 관객 400여 명은 지난 2월 25일, 연극계 성폭력에 반대하고 미투 참여 피해자들을 지지하는 '연극뮤지컬관객 #위드유(WithYou)' 집회를 열었다.

투 운동 이후 성폭력 · 성차별 근절을 위한 '성희롱 · 직장평등개선위원회'가 출범했으며, 일반 여성들의 직장 내 성폭력 법정 대응 지원을 위한 단체 '타임스 업'(Time's Up)도 결성됐다.

국내 문인들의 대표 단체인 한국작가회의도 이번 사태의 후속 조치로 윤리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성폭력 등에 대한 신속한 징계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성폭력피해자보호대책팀(가칭)을 상설기구로 둬 피해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문화예술계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성폭력과 관련한 집중 민원이 예상되는 예술 분야에 전담 신고상담센터를 설치하는 방안 등 문화예술계 성희롱 · 성폭력 예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검찰에서 시작해 문화예술계로 확산된 미투 운동은 교육계, 의료계 등 각 분야로 뻗어나가더니 마침내 정치권마저 강타했다. 여권의 유력 차기 대선주자로 꼽혔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현직 비서 성폭행 혐의는 온 국민에게 충격을 줬다. 안 전 지사 외에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는 등 미투 운동이 이번 6.13 지방선거를 비롯해 공직후보자의 새로운 도덕적 기준으로 떠올랐다. 나아가 성(性) 불평등을 뿌리에서부터 해체하는 기폭제로서도 자리매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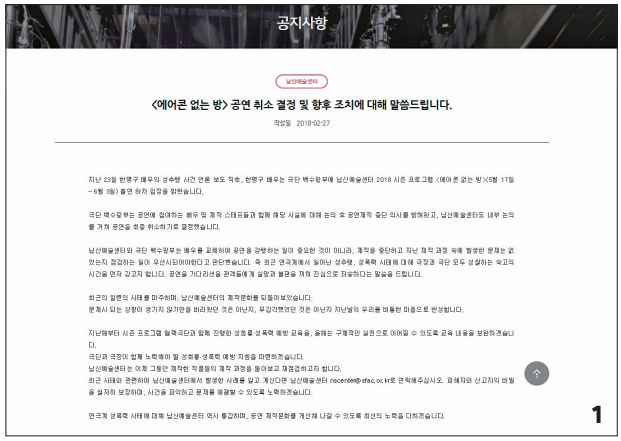
'나꼼수' 멤버 김어준이 "미투 운동이 진보 지지자들을 분열시키는 공작에 이용될 것"이라며 "미투를 공작으로 이용하고 싶은 자들이 분명히 있다"고 주장하는 등 일각에서는 미투 운동의 취지가 왜곡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하지만 미투 운동이 이미 한국사회에 거대한 사회구조적 변혁을 가져오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특히 여성들이 민주주의는 성평등 없이 완성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실감했기 때문이다. 이미 국회에서 미투 운동에 대해서는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변화 조짐이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런 법적, 제도적 개선이 뒤따라야만 미투 운동이 '성공한 혁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글 **장지영** 국민일보 기자, 공연 칼럼니스트 · 사진 제공 **한겨레**

서울문화재단은 지금

SFAC WITH YOU

문화예술계 미투 운동으로 유명 연출가와 배우들의 성폭력 사건들이 드러나면서 공연이 취소되거나 극이 수정되는 등의 사례가 잇따랐다. 남산예술센터 또한 한명구 배우의 성추행 사건 보도 이후 5월 17일부터 6월 3일까지 한명구 배우가 출연 예정이던 2018 시즌 프로그램 〈에어콘 없는 방〉 공연을 취소했다. 남산예술센터는 "배우를 교체해 공연을 강행하기보다 제작을 중단하고 지난 제작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점검하는 일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미투 운동을 계기로 문화예술계 전반에서 성범죄 방지 대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서울문화재단의 입장과 향후 대책을 들어보았다.


공지사항

남산예술센터

〈에어콘 없는 방〉 공연 취소 결정 및 향후 조치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작성일 2018-02-27

지난 23일 한명구 배우의 성추행 사건 언론 보도 직후, 한명구 배우는 극단 백수광부에 남산예술센터 2018 시즌 프로그램 〈에어콘 없는 방〉(5월 17일 – 6월 3일) 출연 하차 입장을 밝혔습니다.

극단 백수광부는 공연에 참여하는 배우 및 제작 스태프들과 합의 해당 사실에 대해 논의 후 공연재작 중단 의사를 밝혀왔고, 남산예술센터도 내부 논의를 거쳐 공연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남산예술센터와 극단 백수광부는 배우를 교체하여 공연을 강행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작을 중단하고 지난 제작 과정 속에 발생한 문제는 없었는지 점검하는 일이 우선시되어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최근 연극계에서 일어난 성추행, 성폭력 사태에 대해 국장과 극단 모두 성찰하는 숙고의 시간을 먼저 갖고자 합니다. 공연을 기다리셨을 관객들에게 설명과 불편을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의 일련의 사태를 마주하며, 남산예술센터의 제작문화를 되돌아보았습니다.
문제시 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기만을 바라왔던 것은 아닌지, 무감각했었던 것은 아닌지 지난날의 우리를 비롯한 마음으로 반성합니다.

지난해부터 시즌 프로그램 협력극단과 함께 진행한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을, 올해는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보완하겠습니다.
극단과 국장이 함께 노력해야 할 성희롱 성폭력 예방 지침을 마련하겠습니다.
남산예술센터는 이처 그동안 제작한 작품들의 제작 과정을 돌아보고 재점검하고자 합니다.
최근 사태와 관련하여 남산예술센터에서 발생한 사례를 알고 계신다면 남산예술센터 nocenter@sfac.or.kr로 연락해주십시오. 피해자와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며, 사건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극계 성폭력 사태에 대해 남산예술센터 역시 통감하며, 공연 제작문화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

'SFAC WITH YOU'라는 이 글의 제목은 서울문화재단(이하 재단)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미투 운동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구축한 '성희롱 · 성범죄방지특별대책위원회'(이하 특대위)를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3월 1일부터 가동된 특대위는 최근 문화예술계를 중심으로 미투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재단 직원은 물론 재단 관련 예술가들의 성희롱, 성범죄 방지 및 조치 회의체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출범했습니다. 이미 재단 내 규와 규정에 의거한 성희롱 예방 교육과 신고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이번 운동을 계기로 전사적 대응 체계를 다시 한 번 환기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점검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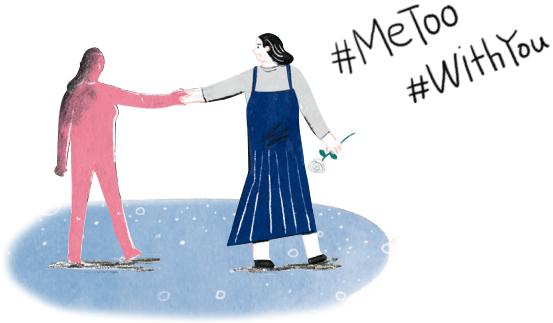
사각지대 없는 예방 지침

특대위의 정기 회의에서는 현장에서 일어났거나 일어날 수 있는 성희롱 · 성범죄를 사안별로 집중 논의하고, 필요하다면 다양한 대응 시스템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특대위는 정부의 성범죄 관련 대응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100일간 설치 · 운영됩니다. 대표이사(위원장)를 중심으로 재단 간부진과 노동이사, 실무부서 책임자 등으로 구성된 15명의 특대위 위원은 정기적인 회의와 비정기적인 의견 수렴 회의를 개최 · 운영합니다. 또한 특대위 가동 기간 동안 성희롱 · 성폭력 관련 '고충상담원' 3명이 상시 활동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직원들이나 재단 사업 관련 예술가들이 이들에게 문의하고 고충을 상담할 수 있습

니다. 또한 각 사업 진행 시 나타날 수 있는 성희롱 · 성범죄 조사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사례별 워크숍, 예방 교육 및 전사적 예방 활동 방안 마련, 현재 가동되고 있는 성희롱 · 성범죄 관련 내부 규정 등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현재 문화예술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발적인 미투 운동과도 사안에 따라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단의 주목할 만한 성과는 남산예술센터의 '남산예술센터 성희롱 · 성폭력 예방 지침' 제정입니다. 예술가와 빈번하게 협업하는 사업장의 특성상, 공공기관 규정 조례 내에 보다 강화된 성희롱 · 성폭력 예방 지침을 성문화했습니다. 남산예술센터와 협약을 맺어 추진하는 공연제작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 ·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적용 범위를 극장과 공동제작 협약을 맺은 협력극단의 프로덕션에 속한 모든 자로 확대하여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노력했습니다. 여기에는 총 20개 조로 이루어진 예방 지침 조항으로 성평등한 작업 환경 조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고충 상담 예방 교육,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이 포함됩니다.



1 한명구 배우의 성추행 사건이 보도된 후 남산예술센터는 누리집에 2018 시즌 프로그램 〈에어콘 없는 방〉 공연 취소에 관한 글을 올렸다.
2 서울문화재단 '성희롱 · 성범죄방지특별대책위원회' 회의 모습.
3 '연극뮤지컬관객 #위드유(WithYou)' 집회에서 연극계 관계자들이 집회 참가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모습.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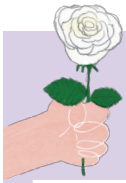
© 환거래

모두 함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지금까지 특대위는 세 차례의 정기 회의와 함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특대위 구성에 대한 의견 수렴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필자와 함께 공동간사를 맡은 오진이 전문위원이 의미 있는 제안을 했습니다. 유연해야 할 문화예술행정 기관으로서 '특대위'라는 이름은 관 주도적으로 들리고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번 미투 운동과 결이 맞지 않는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나온 이름이 'SFAC WITH YOU'입니다. 'SFAC'는 서울문화재단(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의 약자, 'WITH YOU'는 미투 운동의 또 다른 슬로건입니다. 이런 이름을 짓고 나니 이야기가 확대되어 유의미한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 미투 운동을 계기로 이제껏 피해 사실을 숨긴 사람들은 더 이상 성범죄를 묵과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피해자들끼리 공감하고 용기를 북돋아 숨겨진 사실과 피해 내용을 폭로하고, 법률적인 장치나 시스템으로는 처리 불가능한 사안까지 해결해나가고 있습니다. 힘센 자들에 의한 잘못된 폭력에 항거하는 것입니다. 재단은 위계에 의한 폭력으로부터 해방된 사내 문화를 가꾸어가려고 합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입니다. 물이 들어왔으니 노를 저을 때가 됐습니다. 잘못된 관행, 사회적 차별과 결함에 대해 여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이를 과감하게 바꾸어가야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시발, 그것이 미투 운동이었으면 합니다.

글 **김영호** 서울문화재단 감사실장, 성희롱 · 성범죄방지특별대책위원회 공동간사



문화예술계 성희롱 · 성폭력 신고 및 상담을 원한다면?

문화예술계 성폭력 특별신고 · 상담센터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해바라기센터와 함께 지난 3월 12일부터 문화예술 분야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신고 · 상담센터' 운영에 들어갔다. 문화예술, 콘텐츠, 관광, 체육 분야에 종사하는 피해자와 대리인 모두 신고할 수 있으며, 센터는 피해자 상담부터 신고, 법률 지원, 치유회복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운영 기간 2018년 3월 12일(월)~6월 19일(화) 100일간
대상 문화예술계 종사자
운영 시간 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 운영 시간 외 온라인 상담 가능 (www.help0365.or.kr)
연락처 02-742-7733
지원 내용

- 피해 상담 · 신고, 법률 지원, 치유 프로그램 등 지원
- 피해 사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경찰청 연계 고소 · 고발 지원
- 2차 피해 방지 및 가해자 조치 요청에 대한 지원 등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

(사)여성영화인모임이 운영하고 영화진흥위원회가 지원하는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이 3월 1일 개소했다. 임순례 감독과 심재명 명필름 대표가 공동대표를 맡았으며, 영화산업 내 성희롱 · 성폭력 예방 교육, 상담 및 조사, 피해자 지원, 성평등 영화정책 연구 및 실태조사, 정책 제안 등을 진행한다.

–

대상 영화산업에 종사 또는 참여하는 누구나
운영 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5시
내용 성희롱(언어적, 신체적, 시각적), 성폭력(성추행, 강간), 데이트 폭력, 스토킹 등
상담 신청 전화 또는 이메일 접수 후 면접 상담

- 전화 1855-0511 내선번호 2
- 이메일 with@solido.kr (이메일 접수 시 누리집 상담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

누리집 http://solido.kr

성폭력반대 연극인행동

지난 2월 22일 연극인들은 성폭력 피해자 지지 및 지원을 위해 '성폭력반대 연극인행동'을 출범시켰다. 연극계 내의 성폭력 사태에 대처하고, 용기 있는 발언을 지지하고 동참하고자 모인 연극인들이 반성하고 토론하며 함께 행동하기를 결의한 것. 긴급상담창구를 운영하며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제보와 상담 요청을 할 수 있다.

–

피해 신고 theaterwithyou@hotmail.com (상담 및 제보만 가능)
페이스북 www.facebook.com theaterwithyou

남산예술센터
2018 시즌 프로그램

의정부 예술의 전당 ARTSTAGE SAN 예술무대 산

출연
김양희
박선민
김다영
최석원
김상환
박형채

손 없는 색시

차 경민선 / 연출 조현산

2018.04.26. - 05.07.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평일 오후 8시,
주말·공휴일 오후 3시
(4/30 월요일 쉼)
전석 30,000원
문의 02-758-2150

NAMSAN ARTS CENTER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 총연출 양정웅

무대로 세계인의 마음을 잇다

여러 올림픽 행사 중에서도 개회식은 '올림픽의 꽃'으로 불린다.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기에 압박감도 적지 않다. 특히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은 총연출 중도 사퇴, 지역 소도시라는 공간적 제약, 한정된 예산 등으로 준비 단계부터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지난 2월 9일 개회식이 시작되자 우려는 사라지고 감탄만이 남았다. 고분 벽화 속 상서로운 동물들과 오륜기를 상징하는 다섯 아이들이 함께 뛰놀고, 사람의 손으로 움직이는 인면조와 첨단 기술로 구현한 드론의 춤이 평창을 수놓았다. 연극적 요소와 미디어아트가 결합된 거대한 판타지에 세계인은 열광했다. 2016년 12월 개회식 총연출로 뒤늦게 합류해 꿈의 무대를 일궈낸 연극연출가 양정웅은 평창 동계올림픽의 '신의 한 수'였다.

이번 개회식은 정말 화제가 될 만한 요소가 많았죠? 팬아트가 생길 만큼 인기를 끈 인면조를 비롯해 드론의 군무, 72m 원형 무대에 펼쳐진 미디어아트까지 그야말로 복합예술무대 같았습니다. 한데 26년 전에 이런 종합예술이 어우러진 올림픽 무대 연출을 꿈꾼 적이 있었다고요.

1992년 알베르빌올림픽을 TV로 보았을 때 '아, 나도 저런 무대를 연출해보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당시 30살의 프랑스 안무가 필립 드쿠플레가 총연출을 맡았는데 서커스, 현대무용, 연극 등의 공연예술이 어우러진 무대였죠. 기존 개회식에서 보던 매스게임 같은 공연과는 전혀 달랐어요. 스토리와 캐릭터가 명확하고, 판타지와 내러티브도 공연 같고 연극 같아서 깜짝 놀랐어요. 그때 전 총체극에 한참 빠져 있던 20대 연극학도였으니 더 큰 감동을 받았죠.

공연기획자가 아닌 연극연출가가 개회식 총연출을 맡았다는 점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해외에서는 연극연출가가 개회식 총연출을 많이 해요. 2004년 아테네올림픽과 2015년 바쿠 유러피언 게임을 총연출한 디미트리스 파파이오아누도 그리스의 유명한 연극연출가죠. 우리나라 사례를 봐도, 서울올림픽 총연출을 맡은 표재순 선생님도 방송국 PD이자 연극연출가셨고, 2002년 한일월드컵 개회식 총연출 손진책 선생님도 연극연출가셨지요.

인면조를 비롯해 백호, 주작, 현무, 청룡 같은 고분 벽화 속 캐릭터들은 인형극처럼 손으로 움직이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연기했는데, 무대 바닥에 투영된 미디어아트에 힘입어서인지 더 강렬한 이미지로 다가오더라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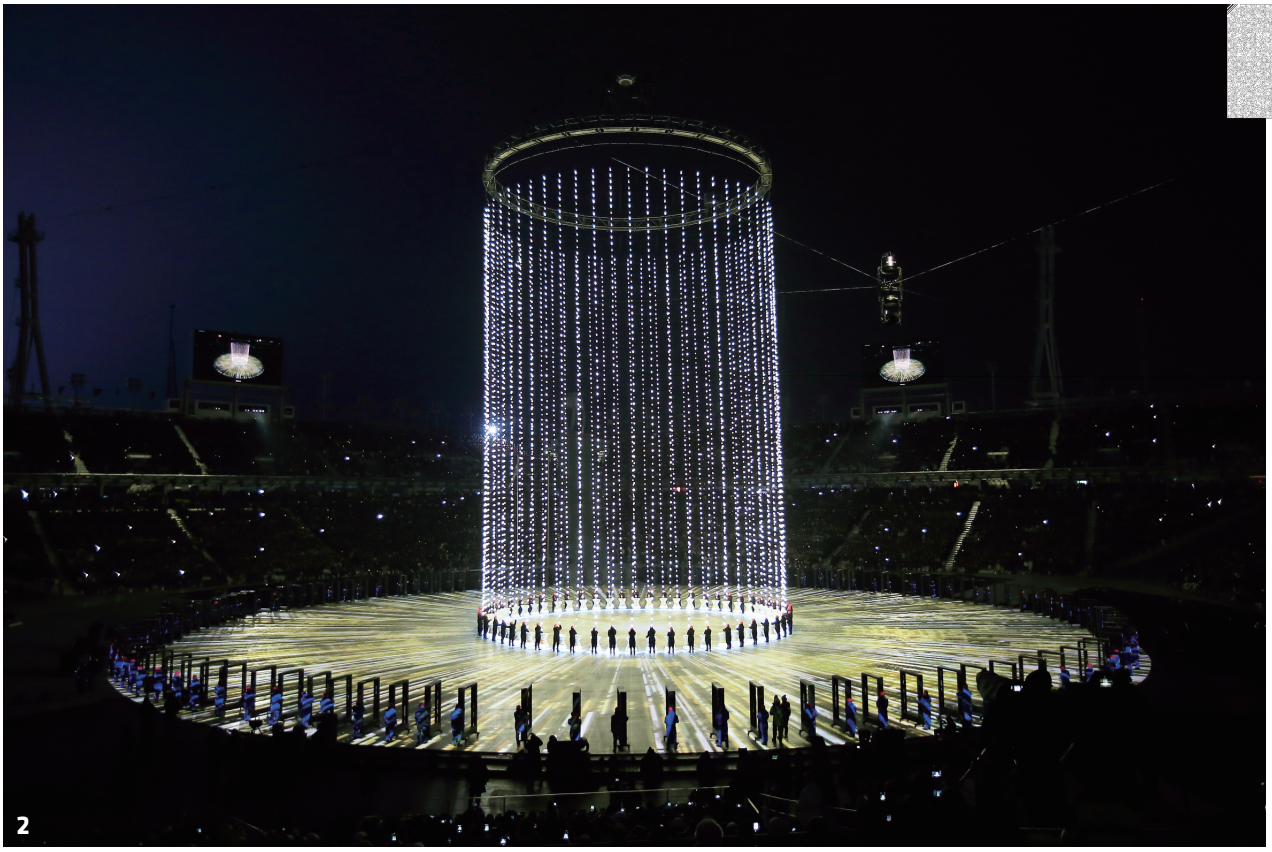
원래 홀로그램이나 로봇 등을 활용한 VR(가상현실)도 적용하고 싶었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AR(증강현실)만 적용할 수 있었어요. 첫 번째 장면에 등장하는 천상열차분야지도 별자리, 두 번째 장면에서 메밀꽃이 반딧불이로 바뀌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 대표적이죠. 첫 장면을 연출할 때는 고대를 표현하는 데 있어 다른 올림픽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방법을 고민했어요. 판타지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다섯 아이가 여행할 때 겨울동화 같은 콘

1 인면조와 다섯 아이들, 고구려 고분 벽화를 2D로 표현한 무용수들이 함께한 문화공연 〈평화의 땅〉.
2 문화공연 〈모두를 위한 미래〉.

셉트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거기에 아이들이 좋아할 법한, 또 어른도 좋아할 인형극 형식을 넣자고 결정했죠. 고분 벽화에 표현된 상상력을 현대에 되살리면서 평화를 사랑했던 우리 선조들의 모습을 자유롭게 펼쳐보고 싶었어요. 그때는 경계와 영토를 초월한 축제가 열리던 시대였잖아요. 실제로 고구려 벽화에도 평화의 염원이나 기원이 담겨 있고요.

공연은 오각형의 경기장 안에서 진행됐지만 바닥의 원형 무대도, 다섯 아이들이 손에 쥔 수정구슬도, 달항아리를 형상화한 성화대까지도 둥글고 푸근한 원의 이미지가 강했어요. 원의 상징성을 통해 대중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나요?

원은 일체, 합일, 하나라는 개념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평화의 이미지와도 이어지는 것 같아요. 태양이든 달이든 지구든, 둥근 형상 곳곳에 그런 메시지가 구석구석 스며 있는 것 같고요. 개회식 주제가 평화다 보니 달항아리 성화대라든지 마당 같은 무대 바닥이라든지 여러 요소에서 무의식중에 드러나는 원형이 있었을 거예요. 송승환 총감독님도 연극인이시기 때문에, 제가 총



2

연출로 합류하기 전부터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셨던 것 같고요.

방송으로 개회식을 지켜보는 사람에게까지 현장의 감동을 전하려면 어려움도 많았겠어요. 카메라 앵글도 굉장히 섬세하게 고려했을 것 같은데요.

1년 전부터 3초 단위로 바뀌는 커트를 준비했어요. 리우올림픽이나 소치올림픽 중계방송만 해도 평균 8초, 길게는 10초 단위로 방송용 커트가 바뀌어요. 런던올림픽은 짧은 경우 3초 단위로 커트가 바뀌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다이내믹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올림픽 주관 방송국인 OBS(Olympic Broadcasting Service) 측과 회의를 많이 했죠. 매일 아침 10시마다 커트를 리뷰할 만큼 심혈을 기울였으니까요.

이번 개회식 주제가 '행동하는 평화'(Peace in Motion)였는데요. 고분 벽화에서 깨어난 평화의 메시지가 다섯 아이들의 촛불로 이어지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기획 단계에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나온 이미지가 촛불이었어요. 우리나라의 촛불시위는 가장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정권을 교체한 사건이었잖아요.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든, 평화를 가장 대표할 만한 것이 촛불이라 생각했어요. 집 안에만 있지 않고 온 가족이 밖으로 나와서 행동함으로써 이룬 평화인 거죠.

개회식 무대뿐 아니라 과거에 연출한 작품에도 한국 전통문화의 영향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죠. 셰익스피어 연극에 전통 요소를 접목한 대표작 〈한여름 밤의 꿈〉(2002)을 비롯해 〈십이야〉(2008)에서는 꼭두 이미지와 마당놀이가 어우러졌고, 〈햄릿〉(2009)에서는 진오기굿, 수망굿 등 다양한 굿이 등장했으니까요.

고도(故都) 경주에서 보낸 어린 시절의 영향이었을까요?

제 고향은 서울이지만 아버님 고향이 경주여서, 초등학생 때까지 여름방학을 경주에서 보냈어요. 만날 김유신 장군묘나 천마총 같은 데 가서 놀았죠. 부모님이 모두 작가라 집에는 늘 책과 그림이 있었어요. 아침에 눈뜨면 별표 전축으로 차이코프스키의 〈1812년 서곡〉을 틀어주셨죠. TV에서 〈주말의 명화〉가 방영할 시간이면 자고 있는 저를 깨워서 영화를 보라고도 하셨어요. 1988년 문예창작과에 입학한 것도 "앞으로 배우를 하든 감독을 하든, 먼저 글을 쓰고 문학을 공부해라"라는 어머님의 조언 때문이었죠. 어

머님이 고대 극회 출신이셨는데, 인간의 이야기와 내러티브, 캐릭터와 스토리를 직접 쓰고 이해해야 한다고 권하셨어요.

고등학생 때 동랑레퍼토리 청소년 연극아카데미 1기로 활동했고, 고3 때 영화배우로 데뷔하는 등 일찌감치 다양한 경험을 해왔어요. 하지만 연극배우로 정식 데뷔한 건 대학에 들어온 뒤였지요?

첫 무대가 1989년 6월에 열린 베르톨트 브레히트의 〈남자는 남자다〉였어요. 그땐 현대백화점 위에 현대토아트홀이라고 극장이 있었는데 거기서 했죠. 그전까지 브레히트의 작품은 공연 금지였어요. 공산주의자였으니까요. 〈남자는 남자다〉는 그가 해금되고 나서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된 작품이었죠. 대학을 다니다가 근질근질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1년 다니다가 휴학하고 연극하겠다고 대학로로 갔을 때인데요. 복학하고 나서도 대학로에서 활동하느라 수업을 많이 빼먹었죠.

연극인으로서 가장 큰 전환점은 1994년부터 1996년 초까지 몸담았던 다국적 극단 라센칸 활동이 아닐까 해요. 대표로 있는 극단 여행자의 이름도 이 시절의 유랑 경험에서 비롯됐잖아요.

라센칸은 새로운 연극 언어를 찾는 실험적 극단이었죠. 창무국제예술제에 라센칸이 참여했을 때 워크숍을 듣고 오디션을 봐서 합격한 후 함께 떠났어요. 스페인과 일본을 돌며 연극을 했고, 라센칸을 나와서도 저 혼자 인도에서 1년 정도 현지인들과 연극도 하고 여행도 했죠. 그때부터 '집시의 방랑'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러다 히말라야 해발 5,000m에 있는 베이스캠프에서 문득 생각했어요. '아, 한국에 돌아가서 연극을 해야겠다.' 그렇게 돌아왔지만 그때 만끽했던 자유에 대한 기억, 인종과 언어와 문화가 달라도 인간은 서로 연결되는 지점이 있다는 깨달음, 이를테면 인간의 보편성에 대한 생각…. 그것이 제 안에 굉장히 많이 남아 있죠.

돌이켜보면 극단 여행자에서 쌓은 경험과 인연을 맺은 분들이 개회식 연출에도 큰 영향을 미쳤겠네요.

예를 들면 인면조가 등장하는 인형극 형식은 오래전부터 고민해오고 실험했던 장르예요. 카이로국제실험연극제(2003)에서 대상을 받은 공연 〈카르마〉도 인형적인 움직임을 콘셉트로 했고요. 그런 요소를 확장 · 변형시키면서 다른 공연에도 반영해왔어요. 극단 여행자의 배우들은 예전부터 그런 시도를 수없이 해왔기 때문에, 개회식에서도 그들에게 트레이너 겸 출연진 역할을 맡길 수 있었어요.

일반 대중은 올림픽 개회식 총연출로 기억하지만, 연극계에서는 이미 중견 연출자로 입지를 굳히셨는데요. 특히 2015년 제22회 한국 베세토 페스티벌 위원장을 맡은 뒤로 기존의 베세토 연극제가 페스티벌 개념으로 확장되고, 참가국도 기존 한 · 중 · 일 3개국을 넘어 홍콩으로까지 넓어졌어요. 이처럼 파격을 추구한 계기가 궁금합니다.

21세기 연극의 모습은 미디어아트까지 포함해 다양하게 변모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을 맡으면서부터는 장르를 연극으로 국한하기보다, 퍼포밍 아츠를 아우르는 페스티벌 개념으로 성장하길 바랐어요.

3년마다 열리는 베세토 페스티벌이 올해 개최되는데요, 간단한 소개 부탁드려요.

올해 베세토 페스티벌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함께합니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 최근 떠오르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엔 이 나라들이 블루오션 같아요. 이제 공연 문화의 중심이 극동아시아에 머무는 게 아니라 중앙아시아로까지 넓어지면 좋겠고, 21세기에는 유럽이 아닌 아시아가

중심이 되는 페스티벌을 바라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회식 연출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난 후 각계에서 다양한 제안을 받으셨지요. 앞으로의 계획에는 연극을 넘어선 새로운 장르에 대한 도전도 포함될까요?

제가 아직 생일이 안 지나서 만 나이로 49살, 우리나라 나이로는 51살이에요. 근데 50살이 넘은 지금 사춘기 소년처럼 진로를 다시 고민하게 됐어요. 올림픽이 큰 전환점이 된 거죠. 앞으로 어떻게, 어떤 예술을 하면서 살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장르에 대한 시도는 계속해왔어요. 영화, 오페라, 무용까지도요. 지금도 멀티미디어나 미디어아트에 관심이 많고, 어렸을 때

의 꿈이 영화감독이라서 개인적인 꿈을 실현해볼까 생각할 때도 있어요. 연극을 떠나지는 않겠지만 새로운 장르에 대한 도전과 실험은 계속될 것 같아요. 이번에 올림픽 개회식도 연출했으니까요. 많은 제안을 받긴 했는데 아직 올림픽 끝난 지 2주도 채 안 돼서. 일단 한숨 고르고 나서 가장 하고 싶은 게 뭔지 생각해볼 계획입니다.

한동안 휴직했던 서울예대 교수직도 올림픽 마치고 올해 복귀하셨다고요.

개회식 총연출을 맡은 동안에는 병행할 수가 없어서 휴직을 했었어요. 이번 학기에 복직해서, 요즘은 인도네시아의 그림자 인형극 아티스트와 함께 5주간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학교에서 후학을 가르치는 일은 무대 현장에 서는 일과는 또 다른 일이겠지요. 그만큼 책임이 막중한 일이기도 하고요. 스승이자 선배로서 제자들에게 강조하는 게 있다면요?

저는 학생들에게 늘 "멋대로 상상하고 자유롭게 실험해라"라고 말합니다. 자유와 상상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요. 그들이 꿈꾸고 상상하는 모든 것이 이뤄진다는 생각으로. 어떤 경계도 한계도 없이 꿈을 꾸면 좋겠어요.

1997년 극단 여행자 창단 이래 10주년마다 굵직한 행보를 이어왔어요. 2007년 창단 10주년 때 성북동 연습실을 열었고, 2017년 창단 20주년에는 성북동 창고극장을 개관했는데요. 대표로서 앞으로 구상 중인 극단의 미래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세요.

극단 여행자는 제가 주도한다기보다, 단원들끼리 정말 자유롭게 운영하고 있어요. 다른 팀을 불러서 함께 섞이기도 하면서 〈여행자 연극제〉를 재미있게 하고 있고요. 제 생각에 연극은 페스티벌 같아요. 이건 꿈같은 얘기지만 저희 극장이 1년 내내 페스티벌을 진행하는 공간이 되면 좋겠어요. 그게 상설공연이 열리는 공간을 뜻하는 건 아니고요. 다른 많은 연극인들이 모여서 같이 어우러지며 노는 마당이 되길 바랍니다.

글 **고경원** 자유기고가 · 사진 **오계옥** · 사진 제공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왼쪽부터)
경민선 작가, 조현산 연출.

〈손 없는 색시〉 경민선 작가 · 조현산 연출

익숙함과 낯섦을 모두 감싸다

정해진 것을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작업은 알고 있는 것을 다르게 보고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이것이 남산예술센터가 올해 키워드로 내세운 '성찰과 되짚기'의 모습 중 하나 아닐까. 4월 26일부터 5월 7일까지 남산예술센터에 오르는 〈손 없는 색시〉의 경민선 작가와 조현산 연출을 만났다.

회복, 아픔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

계모의 모함 때문에 양손이 잘려 쫓겨난 데다, 부잣집에 시집 간 후 갓난아이와 내쫓긴 색시가 우물에 떨어지는 아이를 잡으려는 순간 양손이 되살아났다는 이야기는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 러시아, 유럽 등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민담이다. 이 '손 없는 색시' 설화가 새 옷을 입고 남산예술센터 무대에 오른다. 경민선 작가와 조현산 연출이 주축이 돼 재탄생시킨 〈손 없는 색시〉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손이 부재하고 재생하는 방식, 그리고 인형극이라는 장르이다.

〈손 없는 색시〉에서 색시는 전쟁으로 남편을 잃은 슬픔 때문에 늘 자신의 아픈 가슴을 손으로 쓸어내린다. 어느 날 손은 더 이상 아픔과 슬픔을 대하기 싫다며, 스스로 떨어져 나와 떠난다. 극심한 고통에 색시가 목을 매는 순간 태중의 아이가 태어난다. 하지만 어미의 슬픔을 품고 태어난 갓난아이는 노인의 모습을 하고 있다. 아이는 자신에게 새 옷을 지어줄 손을 찾으러 우물에 가자고 제안하고, 아이와 어미는 손을 찾아 길을 떠난다. 우여곡절 끝에 우물에 도착한 두 사람. 아들이 물을 마시려다 우물에 빠지지만 손 없는 색시는 아들을 잡을 수가 없다. 그 순간, 색시의 손이 나타나서 아들을 구하고, 아들은 갓난아이의 모습으로 어머니의 품에 되돌아온다.

'손 없는 색시' 설화에 매료된 경민선 작가를 자극한 것은 '손이 스스로 떨어져 나가면 어떨까' 하는 상상이었다. "손은 무언가를 쥐고 흔드는 행위나 어휘에서 알 수 있듯 욕망을 상징한다"는 경 작가의 말에, 조현산 연출은 "손이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욕망이 거세된다는 의미이고, 그것은 인간에게 죽음 같은 일"이라고 덧붙인다. 전 세계 곳곳에서 전쟁 또는 전쟁과 다를 바 없는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그 때문에 죽음과도 같은 극심한 고통을 겪는 이들이 수없이 많다. "큰 슬픔을 겪은 사람들도 살아가지 않나. 극한 슬픔과 살게 되는 것 사이에는 어떤 다리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 그리고 사람들이 그 다리를 넘을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이 들었다." 경 작가에게 전쟁으로 폐허가 된 배경, 그 끝에서 만나는 손은 극심한 고통과 마주하는 일이었다.

"어떤 일은 회복되기 힘들거나 전혀 회복되지 않을 것 같다. 그걸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경 작가는 이 작품에서 상처의 회복에 다른 의미를 부여한다. 설화에서는 손이 되살아나거나 인공으로 손이 만들어지지만, 〈손 없는 색시〉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손과 재회한다. 우물에서 손과 만나지만, 색시의 손이 떨어진 부위가 이미 아물어서 손을 붙이려 해도 붙일 수가 없다. 대신 늙은이로 태어났던 아이가 우물 속에서 손과 합쳐지면서 진짜 어린 아이로 되돌아온다.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것은 이런 게

아닐까. 있었던 일이 없어지는 게 회복은 아니지 않나. 전쟁과도 맞먹는 상처들을 앞으로도 겪을 것이다. 그렇다고 삶을 끝낼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겨내야 하는지 생각해봤다. 상처를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회복 아닐까." 조현산 연출은 회복이 이전 상태로의 복귀가 아니라 문제의 수용과 인정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며, 더불어 "관객에게 질문을 던지고 같이 생각하고 이야기하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협업으로 확장되는 의미

경민선 작가는 그간 사실적인 극보다는 전통 및 역사에서 소재를 취해 국악과 연희 등 다양한 장르를 융합한 작품들을 주로 선보였다. 2011년 제2회 대한민국 전통연희 페스티벌 대상을 수상했으며, 〈운현궁 로맨스〉로 2014년 제1회 창작국악극 대상 및 작가상을 받았다. 또한 올해 1월 KBS에서 방영한 신년 특집 단막극 〈조선미인별전〉의 대본을 쓰는 등 장르를 넘나들며 그만의 스타일을 드러내고 있다. 〈손 없는 색시〉 역시 설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시적이고 상징적인 작품이다. 경 작가가 이 작품의 매력을 가장 잘 전달하리라 생각해 선택한 파트너는 '예술무대산'의 조현산 연출이다. 〈달래이야기〉, 〈그의 하루〉, 〈상자〉 등 개성 있고 완성도 높은 인형극으로 인정받고 있는 예술무대산은 상징적인 이미지에 이야기를 담아 관객에게 전달하는 작업을 꾸준히 해왔다. 경민선 작가와 조현산 연출의 만남이 어떤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지 기대되는 이유다.

먼저 조현산 연출이 경민선 작가가 쓴 극본의 강렬한 상징에 관심을 표하자, 경 작가는 "예술무대산의 많은 작품에 손이 나온다. 손의 이미지, 손에 대한 상징을 이미 많이 연구한 것 같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러자 조 연출은 인형극의 특성에 따른 결과라고 말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사가 많지 않은 공연에서 손은 외부와 소통하는 수단이다.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할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으로 보여주는 신호 행동 중 많은 부분이 손을 통해 이뤄진다. 그래서 인형극에서 손으로 표현하는 부분이 많다."

성인들은 인형극을 다소 낯설어하고, 어린이들의 전유물처럼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조현산 연출은 그에 대한 선입견을 단번에 뛰어넘게 만든다. "〈손 없는 색시〉에서는 무대에 등장하는 모든 배우가 이야기꾼이고 인형 연기자다. 또한 배우 자체가 세트와 소품으로 기능할 것이다. 배우들의 몸이 인형이나 오브제가 되기도 하고, 배우가 만들어진 인형이나 오브제를 연기하기도 하는 등 무대 안에서 계속 모습을 바꾸면서 장면을 만들어나간다. 무대는 특정 시간과 장소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창작하는 공간이 되어, 이야기꾼이 때로는 광대처럼 때로는 정령처럼 인물과 공간을 만들어내어 이야기를 전달한다." 상징성 짙은 이야기가 한층 환상적인 이미지로 구현되리라 기대되는 대목이다.

음악 또한 극에 독특한 분위기를 더한다. 손 없는 색시와 아들의 파란만장한 여정과 사계절의 변화를 표현하고, 해학적이고 상징적인 극의 이해를 돕는 데 음악이 한몫한다. "선율이 살아 있어서

1

©예술무대산

1 남산예술센터 2018 시즌 프로그램 〈손 없는 색시〉.
2 오는 6월에 발간 예정인 경민선 작가의 그림 동화책 〈손 없는 색시〉.

배경음악으로 기능하는 방식이 아니라 소리로서 존재하는 음악"이라는 조 연출의 설명처럼, 전형적인 형태로는 기능하지 않을 음악의 효과를 기대해보는 것도 좋겠다.

낯섦이 아닌 새로움으로

그동안 경민선 작가와 조현산 연출은 고전 및 옛날이야기를 재해석한 작품을 다수 선보였다. 경 작가는 그 이력에 대해 "설화나 민담은 과거 크게 유행했던 대중문화 콘텐츠다. 그 이야기들은 어떻게 그렇게 널리 퍼졌는지, 그것들이 현재와 어떤 점에서 통하고, 또 통하지 않는지에 관심이 많다"고 설명했다. 조 연출도 이에 동의하며 말을 더했다. "신화는 모든 이야기의 뿌리이고, 신화가 설화나 민담으로 바뀔 때 당시의 이데올로기를 담는다. 지금 그걸 그대로 이야기하면, 현재와 맞지 않는 이데올로기를 다시 말하는 이상한 작업이 된다. 이미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담아 변주하는 게 재미있다."

이런 두 사람의 결과물은 대체로 사실적이라기보다는 상징적이었다. 이런 작업의 매력을 묻자, 조현산 연출은 "작품 속에 상징이 많다 보니, 관객 각자가 자기 삶에 비추어서 작품을 다양하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더라. 그게 보람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관객과 달리, 작업하는 우리는 이 장면 또는 이 오브제의 상징을 구체적으로 공유해야 한다. 때문에 그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고 배운다"고 덧붙였다. 경민선 작가 역시, 〈손 없는 색시〉를 키운 지난 1년여의 시간을 "발견하는 과정"이라고 표현했다. "왠지 모르게 끌리는 대로 글을 썼는데, 함께 고민하고 생각을 공유하면서 내가 제시한 초석에서 많은 걸 발견했다. 인형 디자이너 및 연출가가 보여주는 이미지로 더 많은 아이디어를 얻기도 했다."

이제 두 작가의 작품이 남산예술센터와 만났다. 이는 두 사람에게도, 남산예술센터에게도 의미 있는 일이다. 남산예술센터의 전통과 역사가 창작자들에게 힘을 실어줄 뿐만 아니라, 남산예술센터만의 독특한 무대 구조가 〈손 없는 색시〉와 훌륭한 조화를 이루리라 기대되기 때문이다. 또한 실험적인 작품을 다수 올린 남산예술센터로서도 인형극은 이례적인 선택이다. 조현산 연출이 "전위적인 작품을 많이 해왔고, 처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남산예술센터이기에 우리 작품을 선택한 것 같다"고 밝혔듯, 남산예술센터에게는 공연의 영역을 확장하는 기회가 될 듯하다.

색다른 공연을 보리라는 기대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일견 낯선 요소들이 모인 이 작품에 거리감을 느낄 관객들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조현산 연출의 각오를 믿어보는 게 어떨까. "슬프고 무거운 극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처음 대본을 봤을 때 재미있었다. 상황이 주는 기이함이 있지만, 내가 느낀 재미를 관객들에게도 전달하고 싶다.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고 하지 않나. 비극적인 설화를 바탕으로, 무엇보다 재미있는 극을 보여주려 한다."

글 **이민선** 자유기고가 · 사진 **백종헌** · 사진 제공 **남산예술센터**

골목길 재생 활성화 심포지엄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길로

서울시는 도시의 역사와 함께해온 역사문화유산이자 삶의 공간인 골목길을 일 · 삶 · 놀이가 어우러진 곳으로 만드는 소규모 골목길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은 일정 구역을 정해 '면' 단위로 재생하는 기존 도시 재생사업과 달리 골목길을 따라 1km 이내 현장에서 추진하는 밀착형 소규모 방식의 '선' 단위 재생사업이다.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서울시는 전문가, 시민과 함께 골목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을 열었다. 서울의 골목길을 어떻게 보전하고 가치를 살려나갈지 건축 · 도시계획 · 마을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 시민이 함께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였다. 다양한 논의의 장을 통해 골목길 재생의 필요성을 알리고 향후 골목길 재생사업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했다.

발제 유현준 건축가(홍익대 건축학부 부교수)
강희은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장
민현석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연구위원

토론 좌장 김기호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명예교수
신승수 디자인그룹오즈 건축사사무소장
김규원 한겨레 기자
김충호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
장남종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김은희 도시연대 정책연구센터장
이창식 서울소방재난본부 대응전략팀장

일시 2018년 3월 14일(수) 오후 2시~5시

장소 서울시청본관 3층 대회의실

발제 1

골목길의 변화 및 재생의 필요성

유현준 건축가(홍익대 건축학부 부교수)

골목길의 사전적 정의는 '큰 길에서 들어가 동네 안을 이리저리 통하는 좁은 길'이다. 과거 골목길은 사람이 정주하는 공간이었다. 빈 공간에서 놀고 머리도 자르고 숙제도 했다. 자동차가 많아지고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골목길은 자동차 중심의 공간이 되었다. 사람이 차지하던 골목길은 자동차가 서 있는 주차장이 되었다. 골목길은 사람이 걸어 다니기에는 넓지만 차가 다니기에는 좁다. 사람은 시속 4km로 걷지만 자동차는 더 빨리 달린다. 예전의 골목길을 그리워하는 이유는 속도가 느리고 사람이 주인이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도시에는 교통, 주차, 주택, 인구, 전봇대 등 많은 문제가 있다. 한 번에 손쉽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재개발이다. 지금까지는 재개발 중심으로 발전해왔지만, 휴먼 스케일(human scale)과는 동떨어진 개발이었다. 골목은 사람이 다니면서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진 사람 중심의 모듈러 길이다. 평균 37m, 33초마다 갈림길이 나오고 새로운 풍경이 펼쳐진다. 사람들은 자신의 속도에 맞는 다양한 체험이 있고 휴먼 스케일에 가장 가까운 골목길을 편안하게 느낀다. 휴먼 스케일의 외부공간으로는 마당과 골목길이 있는데 마당은 거의 없어지고 골목길만 조금 남아 있다. 소통이 사라진 21세기 서울에서, 골목길을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으로 만들고 재개발 대신 사람 중심의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골목길은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진 갯벌과도 같다. 오랫동안 사람의 생활을 통해 만들어진 골목길을 유지하고 보존해야 한다. 골목길 보존을 순진하게 생각해선 안 된다. 과거 골목길이 활성화된 이유는 농경사회에 뿌리를 두었기 때문이다. 1960~70년대 풍경을 상상하면 안 되고, 이 시대에 맞는 골목길의 형태와 용도를 찾아내야 골목길 유지의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다.

발제 2

서울의 골목길 재생정책 추진 방향

강희은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장

골목길 재생은 우리가 살아온 아름다운 추억, 정을 보존하고 공유하는 데 의미가 있다. 골목길은 도시의 거실이자 만남의 장소이고, 축제가 열리는 곳이자 도시가 자라나는 실핏줄이다. 1975년 건축법 개정 이후 골목길은 성장을 멈추고 쇠퇴하고 있다. 자동차가 통행할 수 없는 4m 미만 골목길은 재건축이 어려워지면서 낙후되기 시작했다. 4층 이하 저층 주거지는 서울 전체 주거지 면적의 38.2%를 차지한다. 424개 동을 조사한 결과 4m 미만 보행자 도로는 286개 동에 분포해 있고 이 중 40%가 도심권에 있다.

서울시의 정책 방향은 사람과 역사문화, 정 중심으로 골목길의 가치를 높이고 골목길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골목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서울형 골목길은 '너비 4m 미만의 자동차가 다니지 못하는 길로서 대지에 접한 보행로'를 의미한다. 골목길 재생은 소규모 선(1km 내외) 단위, 주민 중심이 원칙이다. 민관이 역할을 분담하고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골목에 살고 있는 주민, 전문가가 협업하는 체계로 사업을 진행한다. 올해 1월부터 용산구(후암동 두텁바위로40길)와 성북구(성북동 선잠로2가길) 2개소를 선정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성북구는 노인들이 많이 살고 경사가 가파르며 정주환경이 열악하다. 1인 가구 37%, 65세 이상 인구 24%로 서울시 평균보다 높다. 후암동은 협곡처럼 좁고 독특하며, 경로당 활용도가 낮고 진입로에 4채의 폐가가 있어 방치된 느낌이다. 1인 가구가 63%로 압도적으로 많다. 시범사업을 통해 공통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골목길 현황 지도를 제작해 골목길의 유형과 특색을 파악할 계획이다. 원활한 사업을 위해 골목길 지원 조례 제정을 검토 중이며,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해 중앙 정부에 건의하려고 한다. 골목길이 역사와 문화와 추억을 담은 매력 있고 활력 넘치는 정주공간으로 회복되면 주변에 상권이 형성되고 일자리도 창출될 것이다.

발제 3

국내외 골목길 보전정책 사례

민현석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연구위원

국내외 사례에서 골목길 보전 방법의 시사점을 도출해보았다. 골목길의 성격에 따라 지역의 고유성이 남아 있는 역사지구의 골목길, 물리적 정비에 한계가 있는 골목길, 문화적 향수가 강한 골목길, 도시시설물로서의 공공적 가치를 찾아낸 골목길 등 4가지 접근 방식으로 사례를 구분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알트 작센하우젠(Alt Sachsenhausen)은 문화유산의 보존을 통해 골목길의 역사적 가치를 공유했다. 중세에 만들어진 공공성 있는 목조 건축물과 골목길의 특성을 보전하기 위해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역의 문화유산을 24시간 개방해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적 혜택을 제공했다. 부산의 대표적인 노후 주거지였던 초량 이바구길은 도시재생이 어려운 지역이었지만 스토리텔링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했다. 지역 노인을 '이바구길 할매 · 할배'라는 해설가로 고용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을 마련했다. 일본 오사카 호젠지 요코초는 에도시대 만들어진 폭 2.7m의 먹자골목으로, 소설에 등장하고 영화화되면서 유명해졌다. 화재로 훼손되었지만 시민들이 힘을 모아 부흥위원회를 결성해 복원했다. 미국 LA 아발론(Avalon) 녹색 골목길 사업은 골목길을 생태적으로 활용하고 커뮤니티를 재생한 사례이다. 골목길 청소, 나무 심기 등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를 통해 골목길의 가치를 공유했다. 라틴계가 다수 거주해 스페인어로 사업을 진행했고, 지역 공립학교 학생을 활용한 골목길 유지 관리 체계를 만들었다.

골목길의 보전은 공공성의 보전이다. 공공성을 확보하는 과정은 보전의 당위성을 찾는 과정이기에 중요하다. 지역 선정 작업을 정교하게 하면 그 과정 자체에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 서울시에서 사업을 수행할 때도 공공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도 중심의 골목길 활성화 방안

주제 발제 후 김기호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건축가, 언론인, 시민단체, 도시계획, 소방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하는 정책 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김은희 도시연대 정책연구센터장은 골목길에 대한 새로운 접근은 반가운 일이지만, 골목길에 사는 주민들의 일상적인 삶을 우선적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수많은 사업과 골목길 재생 활성화 사업의 차이는 무엇인지, 다른 사업의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할지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골목길 재생은 골목길에 접해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삶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김은희 센터장은 1996년 서울시에 도입한 '거주자 우선 주차제'로 골목길이 주차장화되었음을 언급하고 정책과 제도 변화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대인의 삶의 패턴을 고려하지 않은 직접적인 주민 참여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사업 대상인 4m 미만의 좁은 골목길은 대부분 열악하다. 주민의 삶과 연결해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지 고민해야 한다. 주민 참여는 막연히 모여 직접 참여하는 게 아니라, 공공의 이해관계를 표현하는 형태여야 한다." 이어 누구를 위해 벽화를 그리는지를 묻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건 담이 제 기능을 하고 튼튼해지는 것이

김기호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명예교수

다. 굳이 꽃길과 화단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 주민들이 직접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행정이 들어가야 한다"며 저층 주거지의 관광지화를 경계하고 앵커시설의 운영 관리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골목을 끼고 있는 집에 산다는 김규원 기자는 "골목은 보행자 중심의 아늑한 공간이며, 아파트와 달리 사람들 간의 자연스런 접촉과 공동체 형성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그는 자동차 통행과 주차를 위해 4m 도로를 확보하게 한 건축법 2조는 골목을 발전시키기는커녕 사실상 무너뜨리는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건축법 때문에 2~3m 골목은 살아남기 힘들다. 공간의 주인은 차가 되고 사람은 차를 피해 다니는 신세로 전락했다. 차에 대한 제한이 생기지 않으면 사람이 살 만한 곳이 되기 어렵다. 집 앞이 아닌 공공 주차장에 차를 대고 집까지 걸어가는 건강한 사고방식과 생활습관이 자리 잡으면 좋겠다."

그는 저층 주거지의 건폐율을 높이고 처마를 대지 경계선까지 연장한 북촌이나 서촌의 한옥 규정을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골목을 낀 동네에 완화된 조치를 적용하지 않으면 신축과 개축이 어려워지고 결국 주거공간이 낙후되어 젊은 사람이나 중산층은 살지 않게 된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건축법을 개정했으면 한다"며 화재 등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골목에 소방차가 들어가야 한다면 골목은 존재할 수 없다. 소방차가 들어올 수 없는 골목에는 소화전, 소화기,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하거나, 작은 소방차를 만들어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기호 좌장은 "건축법은 1800년대 말에서 1900년대 초반의 근대 도시계획을 따른 것이다. 일조, 채광, 통풍, 주차 등 현재까지 유지된 제도를 바꾸고 건설적인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신승수 건축가는 "창신동 골목에 대한 인터뷰 자료에서 모순적인 부분을 발견했다. 창신동의 좋은 점을 물었더니 '놀기에 좋다'고 하고, 아쉬운 점을 물었더니 '놀 곳이 없다'고 했다"며 골목길의 양면성을 언급했다. 그는 먼저 골목길을 보전하거나 끌어내야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골목길 활성화는 사람들이 계속 찾고 소통하는 장소를 만드는 것이다. 서울에 남아 있는 위험하고 열악한 골목은 대부분 세입자들이 사용하는 사유공간이다. 이들 공간이 일터이자, 삶터이자, 놀이터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개입과 지속적인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는 대규모 아파트 공급 중심인 우리나라에서 골목길 주택 설계 시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 심의제를 제안했다. 공공에서는 '선'이 아닌 '점'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며, 골목은 복합적이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관리 · 운영할 수 있는 제도와 프로세스가 만들어지길 바란다는 이야기로 발언을 마무리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김충호 서울시립대 교수는 아주 작은 골목길에서 출발해 도시를 만들려는 시도는 상당히 의미 있다며 먼저 용어의 정의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골목길 재생의 방점이 골목길에 있는지, 재생에 있는지에 따라 접근 방법이 달라진다. 골목에 찍힌다면 골목 자체를 역사문화적 자산으로 바라보고 보전한다는 측면이 강하다. 재생에 찍힌다면 골목길을 통해 마을을 재생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골목길을 살릴 것인지, 마을 전체를 재생할 것인지 유형을 분류해야 한다."

신승수
디자인그룹오즈 건축사사무소장

김규원
한겨레 기자

그는 시애틀 다운타운 골목길 활성화 프로젝트를 예로 들며 "시애틀은 서울과 달리 측량에 따라 길과 건물이 만들어진 도시다. 시애틀에는 6,000평 이상의 골목길이 있고, 공원은 1만 3,500평이다. 골목길만 제대로 가꾸어도 오픈 스페이스가 절반 이상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애틀은 건물의 밀도, 주변 용도 등에 따라 골목길을 유형화했고 물리적인 접근 계획도 포장을 바꿀지, 조명을 쓸지, 캐노피를 설치할지 등으로 다양하게 도출했다. 그는 "서울의 골목길은 유기적이고 복잡하다. 공도와 사도의 구분이 불분명하고 토지대장과 맞지 않는 건물이 많으며, 주로 세입자들이 산다. 개별필지 단위가 아닌 마을이라는 집합 단위로 접근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골목을 낭만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낙후된 주거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소 주거 기준 이하의 마을에 접근할 때는 어떻게 집수리를 하면서 골목을 변화시킬지, 주거 복지와 자산의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기호 좌장은 "오늘날 골목에 면하고 있는 집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가 중요하다. 골목을 집 안에서의 활동이 대문을 통해 밖으로 나와 확산되는 공간으로 생각할 수 있다"며 "골목길의 면적은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이다. 골목길의 새로운 잠재력을 어떻게 쓸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건축, 도시 분야에 이어 소방안전에 대한 의견도 더해졌다. 이창식 서울소방재난본부 대응전략팀장은 "골목길 재생방안에서 국민들의 안전을 도외시하면 안 된다. 2015년 경기도 의정부시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얼마 전 종로 서울장여관 화재는 좁은 골목과 주정차 문제로 인해 대형 화재로 번졌다. 골목길 안전에 대한 과제를 치안에서 소방안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는 '소방활동 장애지역'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좁은 골목길, 쪽방촌 등의 소방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계단, 급경사, 급커브 등이 있는 진입 불가 지역과 진입 곤란 지역으로 구분해, 골목길에 비상소화장치함, 소화전을 설치하고 '보이는 소화기'를 비치한다. 그는 "골목길 정책은 소방본부 혼자 할 수 없다. 도시공간개선단과 협업을 통해 가시성을 확보하기 위한 소화전과 비상소화장치함 디자인 개선에 들어갔다"며 골목길 재생사업 진행 시 비상소화장치함과 소화기 설치 장소를 우선적으로 확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장남종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골목길이 차량보다

김충호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

장남종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사람을 위한 공간이라고 전제한다면 주차와 차량 진입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일본은 차고지 증명제로 주차 문제를 풀었다. 공공이 주차공간을 확보해줄 것이 아니라 차량을 소유한 개인의 의무도 같이 고민하면서 가야 한다"며 서울은 저층 주거지의 30% 정도가 4m 미만 골목을 접하고 있는데 어느 지역이 문제이고 어떤 양상인지, 천태만상인 골목길을 유형화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공공은 재생에 접근할 때 조심스러워야 한다. 재생은 지속성을 갖고 대응해야 하는 문제이기에 단기적인 지역 현안부터 장기적인 동네 사업까지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골목길은 생각보다 느리게 변한다. 갑작스런 물리적 환경 변화를 초래하는 사업을 할 때 골목을 접하고 있는 사람을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

골목길 재생사업 진행에 대해서는 "주민 참여 시 이해 당사자인 세입자와 집주인을 충분히 고려해 접근하고, 사업 진행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개별적인 사업도 중요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상호보완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여러 사업들이 다양성을 갖고 일괄적으로 진행되는 구조라면 사업의 효율성도 담보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기호 좌장은 "독일 프라이부르크 주거단지는 차 없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배려한다. 우리나라에도 차 없는 사람을 우대하는 아파트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묻고 "어린 시절부터 걷기에 대한 추억과 습관을 만들면 어른이 되어서도 걷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정 토론에 이어 플로어에서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의견을

김은희
도시연대 정책연구센터장

이창식
서울소방재난본부
대응전략팀장

개진했다. 최근까지 뉴타운 예정지에 거주했다는 이태희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은 골목길 낭만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인적인 경험상 골목에 공동체는 없었고, 안전하지 않았으며 4m 미만임에도 자동차 중심이었다. 일부 골목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낭만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도시 정책은 보통사람을 위한 정책이어야 한다"면서 매슬로우(Maslow)의 욕구 이론을 적용해 "골목길은 첫째, 안전해야 하고 둘째, 이동이 편해야 하고 차가 필요한 사람은 주차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이후 낭만과 공동체가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며 현실적인 이야기를 덧붙였다.

문화 분야의 윤현옥 aec비빗펌 대표는 골목마다 인문사회학적 기능과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에서 골목의 문제를 들여다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골목은 공공 영역인 광장과 사적인 영역인 개인 주택 사이의 공간이다. 서울의 골목에는 다양한 층위가 있지만 근대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골목길에서 이웃 간의 따뜻한 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우리는 구경꾼의 입장에서 골목길을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닌가."

골목길 주차의 대안으로는 수유동 도시재생사업 사례를 제시했다. 주택을 리모델링하면서 1층에 주차장을 넣고 나니 골목에 주차한 차가 한 대도 없었다는 것이다. 김기호 좌장은 "주차라는 쓰임새를 걷어내고 예쁘게 만들면 사람들이 골목에 나올 거라고 담보할 수는 없다. 골목이 공동체를 만드는 매개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더했다.

관광 분야에서는 고령인구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할 경우 노인들의 참여와 역할은 한정적이라는 점과 골목 대상지를 인위적으로 관광지화하는 정책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관광이 지역으로 들어가면 긍정적인 효과도 발생하지만 부정적인 효과를 동반할 수 있고, 혜택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한 주민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기대 이상훈 박사는 "주민 참여라고 하지만 사실 극소수만 참여한다. 부산 감천문화마을 주민협의회에서는 전체의 1~2%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모든 마을 계획에 관여한다. 대다수의 주민은 내용을 모르고 있다. 주민 참여는 의견을 한 번 들어보는 수준이 아니라, 주민들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반영할 수 있게 계획의 한 과정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현석 연구위원은 "골목길을 감상적으로 보전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해외 사례에서 보듯 천편일률적인 접근이 아니라 골목길의 정체성에 맞춰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 호젠지요코초는 문화적인 감성에 시민들이 공감했고 공공성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100% 동의를 얻을 수 있었다. 미국은 골목길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해 청소부터 시작했고 그 과정을 통해 커뮤니티를 되찾았다. 단순한 골목길 환경 개선이 아닌 네트워크 활성화의 가치가 있는 곳을 시범사업을 통해 찾아냈다"고 부연하며 골목길 특성에 맞춘 접근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강희은 과장도 가장 중요한 사람과 그 사람의 안전, 공공적인 가치 관점에서 사업을 진행할 것을 약속했다. 김기호 좌장은 "낭만적인 생각으로 단순하게 골목길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 그런 골목길은 그림이나 사진 속에만 존재한다. 골목길의 기능, 사회적 활동, 의미에 구체적으로 접근하면 새로운 골목길 문화와 로맨티시즘이 나타날 것"이라는 말로 토론을 마무리했다.

대다수의 참가자들은 서울시에서 골목길을 대상으로 정책을 만들고 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역사적이고 반가운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왔지만 그동안 정책이 주목하지 못한 일상적인 공간에 눈을 뜬 것에 고무된 분위기였다. 서울의 골목길 재생사업이 시민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시민 참여를 통해 진행되고, 서울의 골목길이 안전하고 매력적인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본다.

글 **전민정** 객원 편집위원 · 사진 **백종헌**

※심포지엄 풀영상 https://youtu.be/tRlL1KlkMdk

엑스레이 아티스트 정태섭

본질을 꿰뚫다

연세대 의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영상의학과 정태섭 교수. EBS 메디컬 다큐멘터리 〈명의〉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선정한 그에게는 또 하나의 직업이 있다. 국내 최초의 엑스레이 아티스트가 그것. 서늘하고 섬뜩한 흑백의 엑스레이 사진이, 그의 손끝에서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감성적인 사진으로 변화한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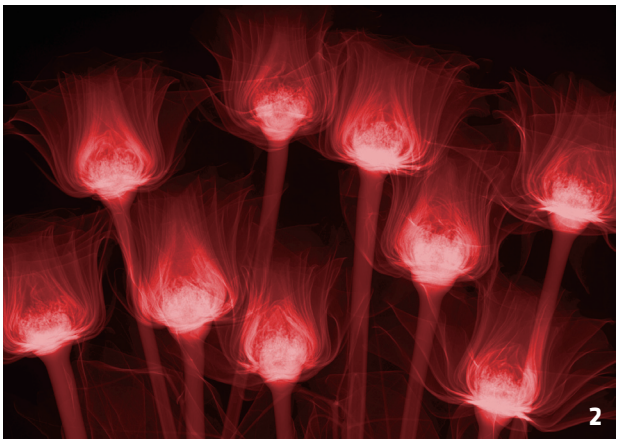
아름다움은 내면에 있다

영상의학과 의사인 나의 또 다른 직업은 엑스레이 아티스트다. 엑스레이 아트란 엑스레이 사진을 합성하고, 색을 입혀 작품으로 만드는 것이다. 사진이 빛이 부딪힌 피사체의 표면을 담는다면, 엑스레이 아트는 빛이 뚫고 지나간 내면의 구조를 보여준다. 아름다운 건축물을 발견하면 그 내부가 궁금해지는 것처럼, 나는 피사체의 내부가 보고 싶어 엑스레이로 사진을 찍는다. 피상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본질을 꿰뚫어 내면의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엑스레이 아트를 하는 이유다.

나의 엑스레이 아트는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됐다. 당시에는 작품을 위해 엑스레이 사진을 찍기보다 환자들의 엑스레이 사진에서 하트 모양의 동맥류 등을 우연히 발견하는 정도였다. 의도를 담아 엑스레이 사진을 찍고, 본격적인 엑스레이 아트 작업을 시작한 건 한 TV 프로그램 때문이었다. KBS 〈TV문학관〉에서 기형도 시인의 〈입 속의 검은 잎〉을 소개했는데, 이를 제대로 표현하는 방법은 엑스레이밖에 없을 것 같았다. 꽃잎 모양 브로치를 입에 물고 나를 모델로 엑스레이를 찍었다. 한데 충치 치료 흔적이 남긴 거뭇거뭇한 모양새가 영 좋지 않았다. 결국 건치를 자랑하는 후배 의사가 모델이 되어줬다. 이것이 바로 나의 첫 작품 〈입 속의 검은 잎〉이다. 2006년, 50살이 넘은 나이에 엑스레이 아티스트라는 새로운 직업을 얻었다.

엑스레이 아트는 소재에 따라 다른 엑스레이 기계를 사용해 촬영해야 한다. 내 작품을 보고 엑스레이 아트를 시작한 사진가들이 생겨났지만, 그들이 본격적으로 작업을 이어갈 수 없었던 것도 그 때문이었다. 아무리 좋은 카메라라 하더라도 기술이 좋아야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것처럼, 엑스레이도 찍는 기술이 중요하다. 기계의 종류도 다양해 모두 익히기가 쉽지 않다. 사진과 엑스레이는 모두 빛을 이용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사진은 가시광선을, 엑스레이는 투과성이 강한 빛을 사용하기에 전혀 다른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작업을 위해 엑스레이 촬영을 할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바로 안전이다. 피폭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최선의 조치를 한다. 촬영 대상은 나를 포함해 동료 의사나 엑스레이 기계를 이해하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진단 목적이 아니기에 방사선의 양도 최소로



1 〈좋은 날이야!〉.
2 〈장미〉.
3 〈꿈꾸는 카라〉.
4 〈해바라기〉.

해 촬영한다. 한 번 촬영한 사람은 1년 동안 재촬영하지 않는다는 원칙도 세웠다.

엑스레이 촬영을 마치면 색을 입히고 원하는 형태로 합성하기 위한 포토샵 작업이 이어진다. 사람을 담을 경우 부분을 나누어 찍는데, 때문에 간단한 포토샵 작업이라 할지라도 최소 50시간, 길게는 200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와인잔을 든 여성을 표현한 〈좋은 날이야!〉는 신체를 40군데로 나누어 각각 촬영한 후 포토샵으로 합성한 작품이다.

엑스레이 아트로 인생 2막을 열다

엑스레이 아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후 18회의 개인전을 열었고, 아트페어를 포함한 단체전에는 100회 이상 참여했다. 8종의 미술 교과서에 내 작품이 실렸고, 과학 교과서에는 과학과 예술의 융합 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 내 작품이 소품으로 사용된 것도 작가로서 크게 영광스러운 일이었다. 인생의 후반기에 엑스레이 아트를 시작했지만 남들이 안 하는 일을 하는 걸 좋아하는 나의 성향과 새로운 것을 선호하는 사회 분위기가 맞아떨어져 어느덧 해외에서도 알아주는 작가가 됐다. 사람의 능력은 다양하다. 경제적인 논리를 따져 자신의 능력에 미리 울타리를 치기보다 우선 시작하면 좋겠다. 과정을 즐기면서 하다 보면 결과는 따라온다. 이런 나의 생각은 〈하루를 살아도 후회없이 살고 싶다〉라는 제목의 책에 담겨 있다.

나는 내년 8월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다. 엑스레이 아트 외에도 패션소품 디자인, 소라껍데기 스피커 제작, 별자리 관측 등 20가지의 취미가 있어 퇴직 후의 시간도 심심할 새 없이 흘러갈 것 같다. 크로키, 스케치, 데생, 구도 등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엑스레이 기계를 구입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작업하고 싶기도 하다. 기계 자체가 워낙 고가인 데다 유지보수 비용도 상당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엑스레이 아티스트로 활동하는 사람은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을 정도다.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분야는 아니지만, 프랑스의 인상주의가 그랬듯이 언젠가는 제대로 인정받는 장르가 되리라 믿는다. 엑스레이 아트를 더욱 공고하게 만들 후배들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정리 **윤현영** · 사진 제공 **정태섭**

* 이 글은 정태섭 교수와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MeToo 운동의 상징인 '하얀 장미'는…

성희롱, 성폭력을 반대하며 저항한다는 의미입니다.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진상 규명을 통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성평등과 평화를 향하는 꽃길을 걸어가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양재동 화훼마을
글 · 사진 **필립리**

경매사 미술시장 독점 논란

화랑과 경매사, 상생의 길을 고민할 때

미술시장의 양대 축인 화랑과 경매사의 경쟁은 제로섬 게임인가, 윈윈(Win-Win)으로 갈 수는 없는가. 올해 들어 두 메이저 경매사가 공격적인 행보에 나서자 안 그래도 위축된 화랑들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창립 20주년을 맞은 서울옥션은 국내외 시장 강화에 나섰고, 케이옥션은 30대 그룹 전문 경영인 출신을 새 대표이사로 맞아 신경영의 출사표를 던졌다.

서울옥션은 지난 2월 초, 창립 20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는 10월 강남에 8층짜리 신사옥을 오픈한다고 밝혔다. 현재의 강북 평창동 사옥은 접근성에 한계가 있는 만큼 부자 고객 지역으로 옮겨 마케팅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서울옥션은 홍콩에 전시장 'SA+'도 마련했다.

케이옥션은 3월 중순 이사회를 열고 대기업 전문 경영인 출신의 신미남 대표이사 체제를 출범시켰다. 신 대표이사 내정자는 2001년 연료전지 회사 퓨얼셀파워를 설립했고, 2014년 두산과 인수합병하며 두산의 수소전지 사업부문인 두산 퓨얼셀BU 사장에 올랐다. 30대 그룹에서 치열한 경쟁을 거친 전문 경영인을 새 수장으로 앉힌 것은 시장의 파이를 키우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미술시장을 바라보는
화랑과 경매사의 온도 차

두 경매사의 의욕적인 행보를 지켜보는 화랑들은 표정이 밝지 않다. 미술시장 경기가 2014년 이후 회복되고 있다고는 하나 경매로 쏠린 탓에 화랑은 온기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1월 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미술시장 규모는 2016년 3,965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1.6% 증가했다. 그럼에도 이 기간 화랑의 매출액은 오히려 줄었다. 반면 경매사 매출은 껑충 뛰었다. 그러다 보니 전체 미술품 판매에서 화랑의 비중은 51.3%에서 41.2%로 10.1%p 급감했고, 경매의 비중은 28.9%에서 37.3%로 8.4%p 올랐다. 화랑의 경우 아트페어를 합쳐도 감소세를 반전시키지 못했다.

그만큼 경매로 미술시장 손님들이 몰린 것인데, 특히 상위 1, 2위인 서울옥션과 케이옥션의 독과점이 심하다. 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에 따르면 2017년 현재 총 12개 경매사 가운데 서울옥션(50%)과 케이옥션(39%)을 합친 양대 양사

서울옥션의 경매 장면.

점유율은 89%나 된다.

서울옥션 최윤석 상무는 "시장 독점 논란이 있지만 2014년을 기점으로 서울옥션은 국내보다 해외시장 비중이 커졌다. 현재 해외시장이 65%를 점한다"라며 "한국 작가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나오면 이는 국내시장 전체에 선순환을 이룰 것"이라고 기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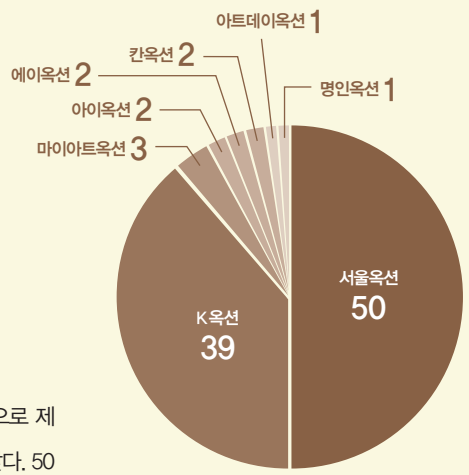
하지만 화랑업계는 경매사의 이런 매출 증가에 마케팅 무리수가 있다고 본다. 이화익 한국화랑협회 회장은 "화랑은 2007년 호황 이후 10년이 넘도록 상황이 좋지 않다. 상생의 의미에서 경매 횟수를 줄이면 좋겠다. 메인 경매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온라인 경매를 너무 자주 하는 것은 1차시장(화랑)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양대 경매사는 미술품 구매 대중화를 내걸고 온라인 부문을 강화하고 있다. 서울옥션의 경우 메인 경매는 연 4회지만, 온라인 경매는 월 1~2회씩 이루어진다.

〈국내 미술시장 현황〉 (단위: 백만 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화랑	275,136	194,504	204,841	240,655	215,825
경매	85,274	59,216	77,868	98,472	127,798
아트페어	42,021	66,113	62,427	67,388	73,593

〈주요 옥션의 경매시장 점유율〉 (단위: %)



자료: 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

추정가의 정상화가 요구된다

생존 작가, 특히 이들의 3년 내 최근 작품 등은 경매를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생존 작가 가운데서도 전속 화랑이나 '주거래 화랑'이 있는 작가들의 작품이 최근 들어 지나치게 낮은 추정가로 나온다며 불만을 토로한다. 개인전을 활발히 열고 있는 전광영, 이배, 이강소 작가 등이 그러한 예다.

전광영 작가의 〈접합〉 시리즈는 전속 화랑인 PKM갤러리에서는 100호(130×162cm)가 1억 3,300만 원에 나온다. 하지만 케이옥션의 3월 경매에서는 추정가가 6,000만~1억 원으로 제시됐다. 높은 추정가도 화랑 가격보다 낮다. 50호(92×118cm)의 화랑 가격은 8,200만 원인데, 서울옥션의 지난해 12월 경매에서는 추정가가 3,000만~6,000만 원으로 나왔다. PKM갤러리 박경미 대표는 "추정가의 시작이 너무 낮다. 화랑 가격의 70% 정도인 5,000만 원에서 출발해 낙찰 가격을 화랑 가격에 근접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서울옥션의 지난해 12월 경매에 나온 이배, 이강소 작가의 작품 추정가도 작가가 제시한 가격보다 형편없이 낮다. 이강소 작가의 〈무제〉 100호 추정가는 2,500만~7,000만 원이다. 이강소 작가의 작품을 주로 취급하는 A화랑 대표는 "이강소 작가가 자신의 100호 작품 가격을 2015년 이후 1억 원으로 조정했다. 최근 1억 2,000만 원으로 재조정한 상태"라면서 "옥션에서 나온 가격은 화랑에서는 절대 팔 수 없을 정도로 낮은 금액"이라고 말했다. 이배 작가의 작품 역시 추정가가 시가의 50% 선에서 시작됐다.

추정가를 낮게 시작하는 것은 경매 때 비딩의 열기를 높임으로써 유찰을 막겠다는 전략일 수 있다. 낙찰되면 옥션은 매수자와 매도자 양쪽으로부터 27.5~30.5%의 수수료 수입을 챙긴다. 1억 원에 팔리면 3,000만 원 안팎의 수수료를 버는 것이다.

B화랑 대표는 "경매사는 낙찰을 통해 수수료 수입을 올리면 그만이지만, 우리는 손님이 끊긴다"라며 "한창 전시를 열고 있는 작가는 경매사에서 작품을 거래하지 않든가, 제값을 받고 거래하든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 · 사진 **손영옥** 국민일보 기자

제8회 현대일본희곡 낭독공연

한·일 양국 현대희곡 교류의 교두보

16년 역사의 〈현대일본희곡 낭독공연〉은 한일연극교류협의회(회장 구자흥)와 일한연극교류센터(센터장 오자사 요시오)가 한·일 격년으로 주최하는 행사이다. 남산예술센터는 2016년 제7회 행사와 2018년 제8회 행사를 공동주최했다. 올해는 3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펼쳐졌다.

매회 양국의 현대희곡 세 편을 꾸준히 소개하고, 양국 작가 간 교류를 진행하는 등 〈현대일본희곡 낭독공연〉이 한국 연극계에 미친 영향은 적지 않다. 〈니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 〈위대한 생활의 모험〉 등 이 행사에서 선보인 낭독공연이 연극으로 제작되어 사랑을 받기도 했다. 연극 관객들이 동시대 일본 작품을 낯설어 하지 않고 접할 수 있는 것도 이런 교류 프로그램이 저변에 있어 가능한 일이다.

올해 〈현대일본희곡 낭독공연〉에서는 최근 4~5년간 일본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극작가들의 세대적 특징을 보여줬다. 퍼포먼스 중심의 현대연극 경향 속에서 새로운 흐름을 희곡에 반영한 작품들이다. 내년에는 일본에서 한국 극작가 3명이 일본어로 낭독공연을 올릴 예정이다.

자본주의 사회 속 끝없는 욕망

〈인사이더-헤지2〉

공연 첫날 관객과 만난 작품은 면밀한 취재를 거쳐 사회문제를 다루는 시모리 로바(詩森ろば) 작가의 〈인사이더 – 헤지2〉(INSIDER – Hedge2, 번역 이시카와 쥬리(石川樹里), 연출 최진아)였다. 일본 금융계에서 주목받는 펀드 운영사의 내부자 거래 의혹을 그린 이 작품은 2016년 기노쿠니야 연극상 개인상을 수상했으며, 쓰루야 난보쿠 희곡상 최종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120분이라는 짧지 않은 러닝 타임 동안 관객은 금리, 펀드, 증권 거래 감시, 선물 거래, 내부자 거래 등 신문의 경제면에서 만날 법한 내용을 마주했다. 일상에서 자주 접하지 못한 소재이다 보니 공연은 관객들에게 요약·설명하

1

는 친절함과 위트를 잃지 않았다. 물론 요약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 극을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극은 내부자 거래의 범인이 누구인지를 쫓는 구조를 취하지만, 중반 이후 범인이 밝혀지면서 왜 그가 내부자 거래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한다. 펀드회사의 내부자 거래는 극의 소재일 뿐 작가는 이 사건을 통해 자본주의 사회 속 인간의 끝없는 욕망을 경고한다.

공연은 내부자 거래의 범인이 경찰 조사를 받는 당일 자살하며 끝나는데, 다소 무책임해 보이기도 하는 이 결말은 실제 일본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공연 후 이어진 관객과의 대화에서 그 죽음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작가는 어떤 의도를 관객에게 전달하고자 하지 않았으며 실제 있었던 사건인 만큼 관객들이 각자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바라보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상대적인 것들의 유영

〈+51 아비아시온, 산보르하〉

두 번째 작품은 가미사토 유다이(神里雄大) 작가의 〈+51 아비아시온, 산보르하〉(+51 Aviación, San Borja, 번역 고주영, 연출 김정)였다. 가미사토 유다이는 페루 리마에서 태어나 10대 시절을 파라과이, 미국 등에서 지내다 와세다대 재학 중 연극 활동을 시작했다. 작가는 자신과 가족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로 이민자와 노동자 문제, 개인과 국민성의 관계, 동시대를 살아가는 타자와 소통하는 문제 등을 다룬다. 일본인이지만 일본인 같지 않은 정서와 극작 스타일이 일본 연극계에서 주목받고 있다.

극은 어느 젊은 연출가가 도쿄에서 출발해 오키나와를 거쳐 할머니가 살고 있는 페루의 +51 아비아시온, 산보르하(산보르하시(市) 아비아시온길 51번지)로 여행을 떠나며 시작된다. 여행 중 젊은 연출가는 노년의 연출가를 만나게 되는데, 그는 멕시코 연극의 아버지라 불

1 〈인사이더-헤지2〉 공연 모습.

2 〈+51 아비아시온, 산보르하〉 공연 모습.

1

리는 '사노 세키'의 환영이다. 그 역시 도쿄 출신이지만 베를린, 모스크바, 미국을 떠돌다 멕시코에 정착한 인물이다. 일본에서 페루로 여러 도시와 공간들을 이동하며, 다른 두 세대의 대화를 통해 국가와 민족의 문제, 세대 간의 차이 등을 드러낸다.

이 작품의 낭독공연 연출을 맡은 김정은 빠른 대사 처리로 형식미를 전달했다. 덩어리째 들어오는 배우의 대사는 '서로 다름'을 드러내는 데 효과적이었지만 어느 부분은 내용 전달이 여의치 않기도 했다. 공연 이후 진행된 관객과의 대화에서 작가는 한국어를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공연을 보며 대본의 구조적 문제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작가는 한국어로 내뱉어지는 공연의 질감과 배우들의 움직임에 주목했다. 또 김정 연출은 젊은 세대의 어쩔 수 없는 불안감, 상실감 등을 속도감을 통해 드러내고 싶었다고 했다.

시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회

〈저편의 영원〉

마지막 작품은 지난해 남산예술센터 〈서치라이트〉 프로그램에서 〈소에츠—한반도의 하얀 태양〉으로 한국 관객과 만난 바 있는 오사다 이쿠에(長田育恵) 작가의 〈저편의 영원〉(번역 이홍이, 연출 강량원)이었다. 소련이 러시아로 바뀌는 혼돈 속, 이념과 국가에 의해 흔들리는 개인의 이야기에 집중했다. 2016년 초연으로 요미우리 연극대상 상반기 작품상 등을 수상했다.

냉전이 끝나면서 소련은 역사에서 사라졌지만, 자유의 물결이 흘러넘치는 러시아는 새로운 혼돈을 맞이한다. 그곳에 살고 있는 번역가 엘레나에게 어느 날 편지 한 통이 배달된다. 오래전 가족을 두고 망명을 선택한 아버지 안드레이의 편지다. 그는 유대계라는 이유로, 또 시인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고국에서 추방되었다. 아버지는 장성한 딸의 모습을 알지 못하고 딸은 늙은 아버지의 모습을 알지 못한다. 아버지의 오래된 편지로 인해 둘은 만나게 되지만, 결코 만날 수 없다. 이념과 국가의 허상 속에 희생된 개인의 이야기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되돌아보게 한다.

작가는 일본이 아닌 러시아를 배경으로 한 이유를 지금 일본의 모습이 아주 오래전의 러시아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제국주의적인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일본 사회에 경종을 울린다. 강량원 연출은 낭독공연이 처음이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몰랐다고 밝혔지만, 배우들의 열연은 130분이라는 긴 시간이 지루하지 않을 정도로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스케일이 크면서도 심리 묘사가 뛰어난 대본, 그리고 한국 공연팀의 집요한 해석과 열연은 이 작품의 무대 공연을 기대하게 하기에 충분했다.

한자리에 모인 극작가들,
심포지엄 '사실과 드라마'

두 번째 낭독공연이 끝난 3월 10일, '사실과 드라마'라는 주제로 한일 양국의 대표적인 극작가들이 함께하는 심포지엄이 열렸다. 올해 〈현대일본희곡 낭독공연〉에 참여한 극작가들의 공통점은 현장 취재가 강하다는 점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 · 일 양국의 연극이 취재, 조사 등을 통해 어떻게 창작으로 넘어가는지에 대한 과정과 사유를 나누는 자리였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사가테 요지는 "연극은 느린 속도의 저널리즘"이라고 설명했다. 모두에게 동일한 정보가 공유되지 못하는 현실을 어떻게 타계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사회운동의 한 방법으로서 연극을 하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건의 당사자로서, 창작자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연극을 만든다고 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시모리 로바는 취재에 기반해 글을 쓸 때 현실과의 거리감을 어느 정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나누었다. 연극이 저널리즘의 속성을 띠고는 있지만 저널리즘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작가의 상상력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했다.

극작가 고연옥은 주로 강력사건을 바탕으로 신화와 결합한 글쓰기를 하는 자신의 극작을 공유하며, 강력사건은 현재의 문제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가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본성을 말한다고 했다. 이때 현재를 어떻게 의미화하는지가 중요하다고도 덧붙였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극작가 겸 연출가 김재엽은 연극이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언론의 통찰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했다. 최근 한국 정치사회의 변화와 함께 그 방법을 찾는 중이라고 말하며,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연극은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인문사회과학 계간 · 무가지 연극'이라고 소개했다.

최근 10여 년간 한 · 일 양국 모두 급속히 경직되어가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인간과 사회를 성찰하고 읽어내는 예술의 속성을 뜨겁게 발휘하고 있다. 양국의 극작가 모두 창작자이자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연극을 통해 사회를 비추고자 하는 고민과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다.

글 **김지우** 남산예술센터 · 사진 제공 **한일연극교류협의회**

1 〈저편의 영원〉 공연 모습.

2 '사실과 드라마'라는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 왼쪽부터 김소연, 사가테 요지, 고주영, 시모리 로바, 고연옥, 이시카와 쥬리, 김재엽.

통영으로 돌아온
작곡가 윤이상의 유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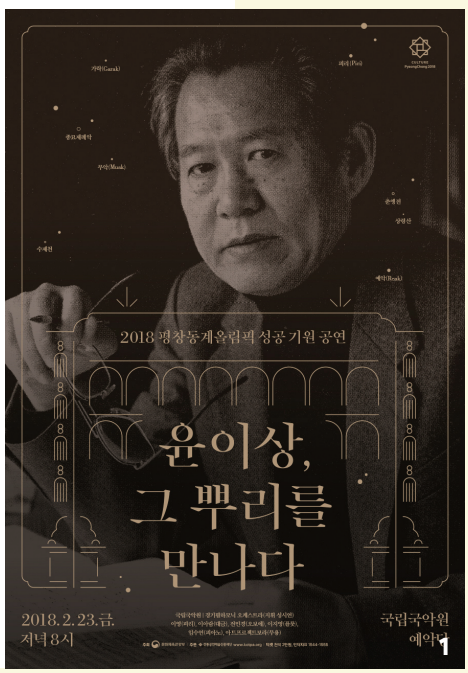
윤이상을 음악으로 읽다

독일 베를린에서 타계한 작곡가 윤이상(1917~1995)의 유해가 지난 2월 25일 고향인 경남 통영으로 돌아왔다. 윤이상 작곡가가 고국을 떠난 지 49년 만에, 타계한 지 23년 만에 귀향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탄생 100주년을 맞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주목받고 있는 윤이상에 대해 짚어본다. 이념적 논쟁은 차치하고, 그의 음악에 집중했다.

"내가 음악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세계는 우리 민족의 피와 정신 속에 스며 있는 정신과 감정, 멋의 추구입니다."
_윤이상

우리에게 윤이상이란

"윤이상? 왜 전통 분야에서도 윤이상을 찾아? 아무리 요즘 이슈라고 해도 굳이 전통공연에서까지 윤이상을 다룰 필요가 있을까?"
지난 2월 23일 오후 8시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열린 〈윤이상, 그 뿌리를 만나다!〉를 기획하면서, 이 공연에 대한 조언을 듣고자 찾아간 전문가들로부터 들은 이야기이다. 그렇다. 조금 식상한 것도 사실이다. 2017년 한 해 동안 '윤이상 탄생 100주년 기념공연'이란 명분으로 여기저기서 윤이상을 소재로 한 공연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윤이상 탄생 100주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갑자기 이런 의문이 들었다. 저마다 다른 시각에서 나름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겠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필자에게 윤이상은 이런 의미인 듯했다. '우리 전통의 위대함을 제대로 인식했던 예술가. 깊고 심오한 철학을 간직한 우리 전통예술로 서양 세계에게 제대로 한 방 먹인 대한민국이 배출한 세계적인 작곡가.' 그렇다. 〈윤이상, 그 뿌리를 만나다!〉는 그저 흔하디흔한 윤이상 탄생 기념 세리머니가 아니었다. 그의 음악에 녹아 있는, 그의 음악의 뿌리가 되는 우리 전통음악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특별한 작업이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동안 윤이상의 음악이 위대하고 세계적이라고 치켜세웠지만, 정작 그의 음악이 어떻게 현대음악의 새로운 길을 열었는지, 그의 음악 가장 밑바닥에 자리한 예술적 영감의 근원을 제대로 들여다본 적은 없었다. 그런 관점에서 이 공연은 기획 첫 단계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더욱 특별하고 의미 있게 다가왔다.



윤이상 음악의 뿌리를 찾아서

윤이상만의 특별한 작품 세계를 만들어낸 음악적 영감에는 여러 요소들이 있겠지만 가장 두드러진 재료는 우리 전통음악의 특별하고 심오한 색채와 기법이다. 깊이 고민하지 않아도 누구나 바로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종묘제례악의 영향을 받은 대규모 관현악을 위한 〈예악(Reak)〉과 전통 궁중무용 〈춘

앵전〉에서 영감을 받아 작곡했다는 대규모 관현악을 위한 〈무악(Muak)〉을 들 수 있다. 또한 전통악기 '피리'의 기법을 그대로 녹여낸 오보에 솔로를 위한 〈피리(Piri)〉와 마치 '대금' 연주를 보고 듣는 듯한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가락(Garak)〉을 꼽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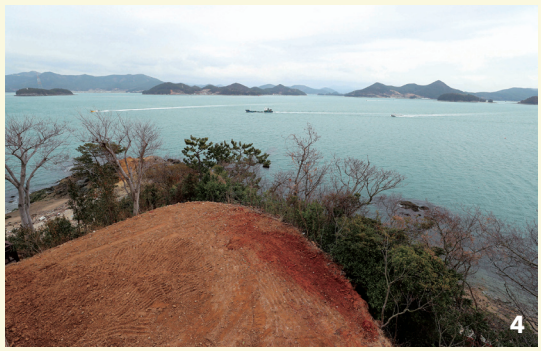
이 작품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같이 우리 전통의 양식과 색채, 기법을 차용하여 서양 악기로 자연스럽게 묘사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시도는 작곡가 윤이상을 대표하는, 한국의 전통적 표현 방식과 유럽의 현대적 기법을 결합한 '주요음(향) 기법'을 정립한 것이다. 결국 '동 · 서양 음악의 중개자'이자 세계 현대음악사의 위대한 작곡가로 평가받는 배경에는 동아시아의 사상과 문학적 전통, 특히 한국 전통음악의 음향관이 있었다. 이는 세계적인 작곡가 윤이상을 있게 한 우리 전통의 예술적 가치를 입증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1
〈윤이상, 그 뿌리를 만나다!〉 공연 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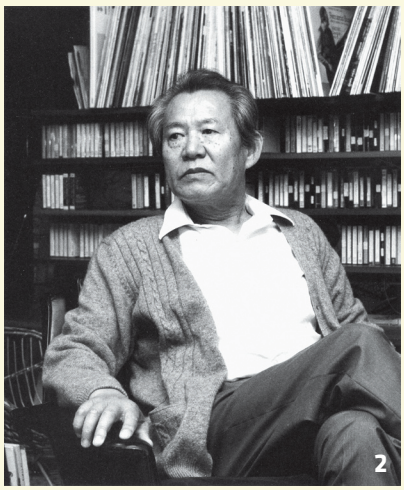
2
〈윤이상, 그 뿌리를 만나다!〉 공연 모습.

3
윤이상 기념관이 있는 통영시 도천동 생가터에서 옛 통영보통학교로 이어지는 '윤이상 학교 다니던 길'.

4
윤이상의 유해는 통영국제음악당 안의 동쪽 바닷가 언덕에 안장된다. 통영국제음악당 뭇자리에서 한려수도가 내려다보인다.



1


2

1
윤이상 기념관 옆 '베를린하우스'. 윤이상이 독일에 머물렀던 집을 재현해놓았다.

2
작곡가 윤이상.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의 시청각적 융합

〈윤이상, 그 뿌리를 만나다!〉에서는 그가 영감을 받은 우리 전통음악의 원곡을 전통악단인 국립국악원이 먼저 들려주고, 그다음 변주로서의 윤이상 작품을 서양악단인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지휘 성시연)가 교차 연주했다. 그 과정에서 시청각적으로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을 오버랩해 관객의 머릿속에서도 자연스럽게 융합적 이해가 가능하도록 했다. 윤이상의 음악을 통해 우리 전통의 위대함을 재조명하고, 그가 영감을 받은 전통음악 원곡을 통해 난해한 그의 음악 세계에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다. 어렵고 생소한 전통음악과 윤이상의 현대음악을 상호 연계시킴으로써, 양쪽 모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청각적으로 교차한 점이 이 공연의 가장 큰 특징이었다.

공연을 감상한 지인은 다음과 같은 후기를 남겼다. "윤이상… 참 논란도 많은 음악가입니다. 정치 이념 때문이죠. 그러나 그는 세계가 인정하는 대한민국 음악의 대표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윤이상의 이중성은 씁쓸함을 주기도 합니다. 정치가, 이념이 뭐길래? 하지만 〈윤이상, 그 뿌리를 만나다!〉 공연이 펼쳐지는 동안 '이념적 노이즈'에서 벗어나 그의 음악 세계에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오로지 음악만 들렸습니다." 공연을 기획한 필자의 바람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소감이었다.

반갑게도 대한민국이 배출한 세계적 예술가의 유해가 23년 만에 고향 통영으로 돌아왔고, 그의 귀향을 반기는 통영국제음악제가 3월 30일부터 4월 8일까지 '귀향'이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이러한 과정들이 정치적 이념과 상관없이 세계가 인정하는 작곡가 윤이상의 음악에만 집중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글 **손혜리**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이사장
사진 제공 **한겨레,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I·SEOUL·U 서울문화재단

2018
관악어린이
창작놀이터

예술로 놀이터

예술가 창작기반 창의 예술교육프로그램 '예술로 놀이터'는 어린이들이 예술로 마음껏 뛰놀고,
예술로 생각이 자라나며, 예술로 미래를 꿈꾸는 놀이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공연예술융합
돌돌 돌아가는 종이연극 : 파푸아뉴기니를 찾아라!
이야기원정대 & 예술하는아이다

시각예술
펀펀 플레이 그라운드
민수광

미디어아트
반짝 마른 기억 : 은천동
예술공학창작소 크래커

시각예술
콜라주 : 자르고 붙이는 상상의 세계
염지희

시각예술
내가 주인공, 포토북
시각 (sssigak)

오브제 퍼포먼스
단순하고 유연한 모나드의 생활 : 작은 예술의 비밀
프로젝트 락교

예술공학
Fun Fun한 키네틱아트 : 화성생명체연합
김동현

움직임 요리법
퍼포먼스 매뉴얼
박진영

참가비 무료 **신청방법**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www.sfac.or.kr)의 프로그램 신청접수 **문의** 02-871-7414/7417

서교예술실험센터 〈쉐어 프로젝트:실험실〉

시도와 실험, 실패가 허용되는 공간

예술의 거리, 청춘의 거리, 문화의 거리, 홍대. 그 중심에 위치한 서교예술실험센터는 '홍대 앞 예술생태계의 활성화'를 꿈꾸며 2009년 서교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해 개관했다. 접근성이 좋고 열린 공간이라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며 전시를 관람할 수 있다. 작년 12월에 확장 오픈한 1층 예술다방에서는 커피와 차를 마시며 서가에 비치된 예술문화 관련 장서를 읽을 수 있는데, 종종 회의나 작업 중인 예술가들의 모습도 볼 수 있다. 센터 전체가 실험실로 바뀌어 미완의 프로젝트를 실험 중인 〈쉐어 프로젝트:실험실〉을 소개한다.

비커, 샬레 없는 실험실

어린 시절 TV와 책 속에서 보았던 '실험실'을 떠올려보자. 꼬불꼬불한 유리관과 비커, 샬레가 가득한 공간. 과학자는 꽤 진지한 표정으로 실험 재료들을 혼합한다. 어느 순간 '펑!' 하는 소리가 나면서 실험실에 연기가 가득 찬다.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연기 뒤로 폭탄머리를 한, 비뚤어진 안경을 쓴 채 연신 기침을 해대는 과학자가 보인다.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에 웃음이 나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저 재료들이 무엇이기에 저렇게 '펑' 하고 터졌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실망한 표정의 과학자에게 자못 동정의 마음이 들었다가, 또 한편으로는 실험실이라는 공간에 대한 환상과 로망이 생기기도 했다.

서교예술실험센터에는 비커와 샬레 없는 실험실이 있다. 〈쉐어 프로젝트:실험실〉이 진행되는 3~4월은 센터 전체가 실험실로 바뀐다. 선정된 작가(팀)들은 각 실험실에서 공연 쇼케이스, 워크숍, 오픈 스튜디오, 전시 등 다양한 장르의 미완성 프로젝트를 실험한다. 서교예술실험센터에 방문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과정을 관람하거나 참여할 수 있다.

Just Do It!

"창조적인 삶을 살려면 내가 틀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버려야 한다"는 철학자 짐 론의 명언대로라면, 〈쉐어 프로젝트:실험

1 서교예술실험센터 1층에 위치한 예술다방.
2 실험실 3호에서 진행되는 신지언 작가의 '무위無爲를 위하여'.
3 실험실 4~6호를 구획하는 바닥 테이핑.
4 실험실 1호에서 진행되는 하소정 작가의 '1/4평의 시간'.

실〉의 6개 실험실은 그야말로 창조적인 삶이 시작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언뜻 보면 일반적인 무료 대관사업처럼 보이지만, 〈쉐어 프로젝트:실험실〉의 가장 중요한 선정 기준이 '완성되지 않은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일반 대관사업이나 공간지원사업과는 차이가 뚜렷하다. 덕분에 작업 활동에 대한 매너리즘에서 벗어나 스스로 동력을 얻으려는 작가, 혼자 하던 작업을 처음으로 대중 앞에서 선보이기로 한 작가, 아이디어만 있고 실행에 옮긴 적 없던 프로젝트 등 다른 전시공간에서는 보기 어려운 작업들을 만나볼 수 있다.

실험실은 공간별로 독특한 매력이 있다. 야외에 위치한 '실험실 1호'는 전면 통유리로 되어 있다. 기존에 아트인포(인포메이션 부스)로 사용되던 곳이라 외부인의 접근이 가장 용이한 공간이기도 하다. 1차 실험기간 동안 하소정 작가는 이곳에서 '1/4평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하루 6시간씩 나무 숟가락을 깎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실험실 2호'는 1층에 위치한 예술다방 공간으로, 주로 관객 참여형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실험실 3호'는 1층에 위치한 전시장 공간으로, 전시형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단순 전시형 프로젝트보다는 관객의 참여와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프로젝트가 많다. '실험실 4~6호'는 서교예술실험센터 지하 1층 공간을 구획해놓은 공간인데, 별도의 가벽이 없어 진정한 '셰어'의 정신이 빛을 발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퍼포먼스 시간이 지정된 프로젝트도 있지만, 대부분은 퍼포먼스 시간 외에도 관객이 관람하고 참여할 수 있다. 여유롭게 둘러보다 보면 참신하고 유연한 에너지로 충전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에너지로 홍대 앞 예술생태계 활성화를 꿈꾼다

한 발 멀리 떨어져 바라보면, 마치 센터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실험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서교예술실험센터는 민관 거버넌스 시스템 '공동운영단'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현장에서 활동 중인 예술가, 기획자 등 6명으로 구성된 공동운영단이 다양한 기획사업을 펼치는 것이다. '민관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유형의 공적 운영 주체'라는 독특한 정체성은, 서교예술실험센터라는 이름과도 그 결을 같이하고 있는 듯하다. 올해는 강지윤, 김민관, 불나방, 성진영, 안부, 조윤영 등 6명으로 구성된 공동운영단 6기가 활동 중이다.

서교예술실험센터의 예술다방 및 전시공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열려 있으며,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무다.

글 **우보람** 서교예술실험센터 · 사진 제공 **불나방, 서교예술실험센터**

용산공예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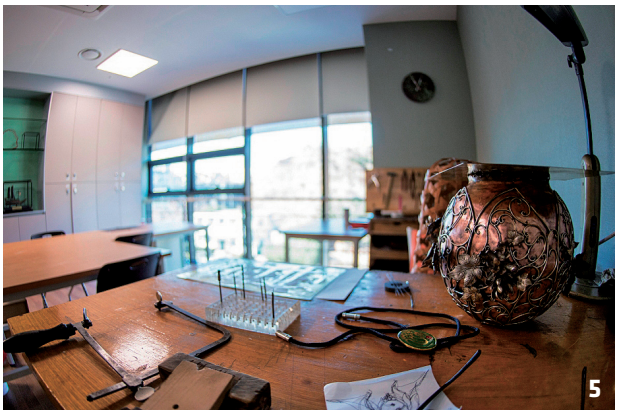
지하철 6호선 한강진역 이태원 초입에 공예 전문 문화복합시설 용산공예관이 들어섰다. 유동인구가 많고 외국인들도 많이 찾는 서울의 핫 플레이스에 자리해 최고의 입지 조건을 갖췄다.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우리의 전통문화를 알리는 동시에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민간 기업의 주차 문제도 해결한 1석 3조의 공간이 바로 용산공예관이다.

민관협력의 새로운 모델

지난 2월 8일 개관한 용산공예관은 옛 용산여성문화회관 건물 자리에 민관협력으로 지어졌다. 지하 3층, 지상 4층, 연면적 2,800㎡ 규모로 용산구에서는 부지를 제공하고, SPC그룹에서 55억 원의 건축비를 부담했다. 용산공예관 바로 옆에서 대형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는 SPC그룹은 지하 1~3층 주차장을 최장 20년간 무상사용하는 조건으로 용산구에 기부채납했다. 이 사업으로 용산구는 2017년 하반기 서울창의상 '상생협력'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민관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건물 1층의 공예품판매장에서는 용산공예관 입주작가들의 작품과 전국의 명인명장이 제작한 우수 공예품을 함께 판매한다. 밖에서도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여 지나가다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다. 470여 품목 1,400여 점을 갖추고 있어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명인들의 작품을 감상하거나 작은 기념품을 구입하기에도 좋다.

2층에는 전문 공예가의 공방 4개실과 도자기체험장, 한복체험장이 자리 잡았다. 전문 공예가 4명이 입주한 공방은 개인 작업실로 이용되고 있다. 1층 판매장과 연결해 제작과 판매가 한 건물에서 이뤄지도록 했다. 한복체험장에서는 사극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고급 한복을 빌려 입고 자유롭게 사진을 찍을 수 있다. 한복을 입고 가채 같은 머리 장식까지 제대로 갖추기 때문에 준비하는 데만 30분 이상 걸린다. 요즘 유행하는 한복대여점들과는 다르게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고급 스튜디오 분위기다. 가벼운 체험보다는 중요한 기념일 촬영에 적합하다. '한복'은 용산구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분야 중 하나다. 국적 불명의 저가 한복은 절대



1 용산공예관 전경.
2, 4 용산공예관 2층 도자기체험장과 한복체험장.
3 1층 공예품판매장.
5 3층에 있는 공예 분야 공방.

안 된다는 원칙 아래 전통의류 전문 디자이너가 운영에 합류했다. 운영을 맡은 박정욱 디자이너는 "한복을 제대로 하려면 손이 정말 많이 간다. 시나 구청의 지원 없이 개인이 혼자 하기는 힘든 일"이라면서 사명감을 드러냈다. 일일 체험용 대여 한복을 입고 외부로 나가는 것은 4월부터 가능하다. 인근 이태원관광특구 내 음식점 등에 한복을 입고 방문하면 지출 금액의 10% 이상을 할인받을 수 있다. 개관 하루 전인 2월 7일 용산구와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가 한복 대중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은 덕분이다.

도자기체험장에서는 '나만의 도자기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일주일에 3번, 화 · 목 · 토요일 오후 2시에 시작하며 1시간 정도 걸린다. '도자기 핸드페인팅'과 '흙가래 쌓기' 중 선택해 사전 예약해야 하고 완성품은 3~4주 후에 찾아갈 수 있다. 지금은 일일 체험 프로그램만 있지만 정규 프로그램도 개설할 계획이다. 이하연 강사는 "3월 첫 주부터 시작했는데 신청자가 많다. 절반은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등에서 온 외국인 관광객이다. 유명 K팝 스타인 빅뱅의 탑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되어 있다 보니 외국인들의 문의전화가 많이 온다"라며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보조 강사로 투입될 예정이라고 귀띔했다.

3층으로 올라가면 한지, 종이, 규방, 자수, 금속, 칠보, 금속 등 공예 분야를 망라한 공방 5개실과 교육실인 '공예 배움터'가 있다. 3층 공방은 60세 이상 어르신 공예가들을 위한 공동 작업실이다. 오전, 오후 각 4시간으로 나눠 운영하며 실별로 최대 7명까지 작업실을 공유한다. 지하 1층 주차장 옆의 목공예실, 2층의 도자실까지 합하면 총 7개실이다. 이하연 강사는 "그동안 공간이 없어서 작업하기 힘들다는 어르신들이 많았다. 공간과 재봉틀, 칠보 가마, 다리미 등 기본적인 도구만 빌려주지만 매우 만족스러워하신다"라며 거의 매일 나와서 작업하는 어르신도 있다고 전한다. 어르신 공예가들은 1층에서 작품을 판매하고 '공예 배움터'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며 수익을 낼 수도 있다.

꼭대기 층인 4층 겸 옥상에는 다목적실과 야외공연장이 있다. 전통문양 창살이 돋보이는 다목적실에서는 개관식을 개최했다. 앞으로 특강과 행사 운영에 사용하고 조명을 설치해 전시도 진행할 예정이다. 옥상의 야외공연장은 계단식으로 탁 트인 전망을 자랑한다. 접이식 어닝이 설치되어 햇빛이 강한 날이나 우천 시에도 공연이 가능하다.

일자리도 창출하는 관광 명소

용산공예관은 용산구청 일자리경제과에서 직접 운영한다. 공예 분야와 문화공간 운영에 대한 이해도가 낮지 않을까 하는 것은 기우였다. 기존의 구청 공무원을 배치한 것이 아니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별도로 선발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1층 상품 판매 보조 8명, 체험장 교육 보조 8명 등 총 16명의 65세 이상 어르신 근로자가 4시간 교대로 근무한다. 이를 통해 임기제공무원 3명, 어르신 공예가 24명, 어르신 근로자 16명 등 40개가 넘는 공공 일자리가 창출됐다.

용산공예관은 다양한 문화가 혼재된 이태원에서 우리의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는 새로운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화~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문을 연다.

글 · 사진 **전민정** 객원 편집위원 · 사진 제공 **용산구청**

연극 〈에쿠우스〉와 〈아마데우스〉

피터 셰퍼의 대표작 두 편을 만나다

2016년 타계한 영국 극작가 피터 셰퍼의 대표작 두 편이 나란히 무대에 오른다. 생존 당시 '현존하는 최고의 극작가'라는 평을 받았던 셰퍼는 1958년에 발표한 〈다섯 손가락〉(Five Finger Exercise)을 시작으로 여러 편의 희곡을 남겼다. 이번에 소개하는 〈에쿠우스〉와 〈아마데우스〉는 모두 셰퍼의 대표작으로, 동명의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말의 눈을 찌른 소년과 그를 치료하는 정신과 의사의 이야기 〈에쿠우스〉는 국내에서 초연된 지 43년째지만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 〈아마데우스〉는 조정석이 7년 만에 연극 무대에 복귀해 화제다.

1

2

17세 소년은 왜 말의 눈을 찔렀나

〈에쿠우스〉 3. 1~4. 29, 대학로 TOM(티오엠) 1관

〈에쿠우스〉는 셰퍼의 1973년 작으로, 1975년 토니상 희곡상과 뉴욕 드라마 비평가협회상을 받았다. 1977년에는 영화로도 제작됐다. 우리나라에서는 1975년 초연되어 올해로 초연 43주년을 맞았다. 발표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신과 인간, 성에 대한 고민, 인간의 잠재적 욕망을 깊이 있게 다룬 수작으로 평가받으며 끊임없이 공연되고 있다.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공연 때마다 많은 관객을 끌어 모으는 작품이다.

작품은 영국에서 실제 여섯 마리 말의 눈을 찔렀던 소년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다. 사랑하는 말의 눈을 쇠꼬챙이로 찔러 법정에 서게 된 17세 소년 '알런'. 판사는 그를 정신과 의사 '마틴 다이사트'에게 보내 치료를 받게 한다. 연극은 다이사트가 알런이 말의 눈을 찌른 이유를 추적하는 과정을 그린다.

다이사트는 알런을 면담하면서, 엄격하고 금욕적인 아버지와 종교에 집착하는 어머니 사이에서 소외되고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발견한다. 그리고 그런 혼란이 에쿠우스('말'을 뜻하는 라틴어)의 눈을 찌르는 행동으로 이어졌음을 이해하게 된다. 그는 알런이 사회적 관점에서 '비정상' 범주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치료받아야 하는 상황에 괴로워한다. 또 원시적인 열정을 간직한 알런의 모습을 보며 자신을 돌아본다.

〈에쿠우스〉는 공연 때마다 스타 배우가 탄생했기에 캐스팅에 대한 관심도 늘 뜨거웠다. 고(故) 강태기, 송승환, 최재성, 최민식, 정태우, 류덕환 등이 역대 알런을 거친 배우들이다. 해외에서는 〈해리포터〉 시리즈의 대니얼 래드클리프가 알런을 맡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번 공연에서는 전박찬, 오승훈, 정휘가 알런을, 장두이와 안석환이 다이사트를 맡았다. 수차례 〈에쿠우스〉를 연출했던 실험극장의 이한승 대표가 다시 연출로 돌아왔다.

천재 음악가 모차르트와 그를 질투한 음악가 살리에리

〈아마데우스〉 2. 27~4. 29, 광림아트센터 BBCH홀

셰퍼의 1979년 작 〈아마데우스〉는 런던 초연으로 호평을 받은 뒤 미국 브로드웨이에서도 1,000회 이상 공연되었고, 1981년 토니상 희곡상을 받았다. 1984년에는 밀로시 포르만 감독의 연출로 영화화됐다. 영화는 아카데미 11개 부문에 후보로 올라 작품상 등 8개 부문을 수상했고 셰퍼 자신도 각색상을 받았다.

천재 작곡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와 오스트리아의 궁정 음악가 안토니오 살리에리. 동시대의 실존 인물 두 사람을 놓고 셰퍼가 상상력으로 살을 붙여 이야기를 완성했다. 재능은 천부적이지만 사생활은 방탕한 모차르트. 음악에 대한 열정은 누구 못지않지만 모차르트만큼의 재능은 없는 살리에리는 모차르트를 질투하고 신을 원망한다. 연극은 노인이 된 살리에리가 과거를 회상하는 형식으로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두 사람의 이야기를 풀어낸다. 영화를 봤던 관객이라면 익숙한 스토리다.

'음악극'을 표방하며 음악을 풍부하게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돈 조반니〉, 〈후궁으로부터의 도주〉, 〈마술피리〉 등의 오페라 아리아를 비롯해 모차르트가 작곡한 20여 곡을 삽입했다. 작곡가 채한울이 새로 만든 넘버들도 삽입되어 뮤지컬 분위기도 난다. 미리 녹음된 반주음악(MR)과 함께 무대 뒤쪽에서는 6인조 관현악단이 실제 음악을 연주한다.

인기 배우 조정석을 무대에서 볼 수 있는 작품으로도 관심을 끈다. 조정석은 원래 뮤지컬 스타였지만 영화 〈건축학개론〉으로 인기를 얻은 뒤에는 드라마와 영화에서 주로 활동해왔다. 모차르트 역을 맡은 그는 2011년 〈트루웨스트〉 이후 7년 만에 서는 연극 무대에 대해 "공연하는 것 자체가 흥분되고 설렌다"는 소감을 밝혔다.

드라마 〈커피프린스 1호점〉으로 이름을 알린 배우 김재욱과 아이돌그룹 인피니트의 성규도 모차르트 역으로 번갈아 출연한다. 두 사람 모두 이번 작품이 연극 데뷔작이다. 극을 이끌어가는 살리에리 역에는 지현준과 한지상, 이충주가 출연한다.

글 **황희경** 연합뉴스 기자 · 사진 제공 **실험극장, PAGE1**

1, 2 연극 〈에쿠우스〉.
3 연극 〈아마데우스〉.

1

전시 〈구보타 히로지, 아시아를 사랑한 매그넘 작가〉와
〈이정진 : 에코-바람으로부터〉

사진으로 담아낸 단 하나의 세상

찰나의 예술, 사진. 시대를 기록하는 사진이 거장의 손을 거쳐 예술로 탄생했다. 50여 년간 아시아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기록한 순간들은 지금은 사라진 다양한 문화권의 모습을 담아냈다. 한지와 같은 평평하지 않은 질감의 종이에 붓으로 감광제를 발라 필름 너머 빛의 잔상을 담아낸 사진은 회화처럼 유일무이한 작품이 됐다.

2

다큐멘터리 사진의 미학

〈구보타 히로지, 아시아를 사랑한 매그넘 작가〉 3. 10~4. 22, 학고재

구보타 히로지는 세계적인 사진가 그룹 '매그넘'(Magnum)의 대표 사진작가이자 최초의 아시아인 멤버다. 1939년생인 그는 일본 와세다대 정치학과에 진학한 후 1960년대 학생운동에 참여한다. 그러던 중 학생운동을 취재하던 유명 사진가 하마야 히로시를 보조하는 일을 하면서 사진작가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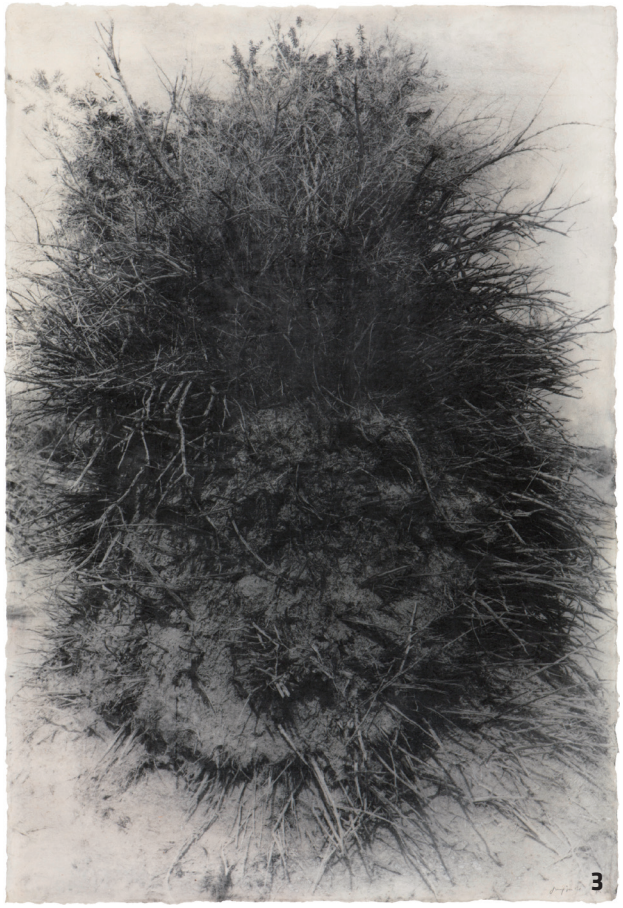
사건의 기록자로서 충실하고자 했던 구보타 히로지는 그의 작업 초·중기에는 전형적인 다큐멘터리 사진작업에 열중한다.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당시 사회의 모습을 중립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며 1970년대 초반까지 흑인 민권운동, 미국의 히피 등 당대에 관한 의미 있는 사진들을 남겼다. 1975년 매그넘의 의뢰로 베트남 사이공 함락을 촬영한 이후, 미국 반대편의 아시아 국가들을 탐험하기로 마음먹는다. 한국, 중국, 일본, 미얀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티베트 등 다양한 아시아 국가들을 돌아다니며 각 나라의 독특한 문화와 일상생활, 소수민족의 모습을 담았다.

1970년대 후반 미얀마의 황금바위를 촬영한 뒤 그의 시선은 '사건'에서 '풍경'으로 옮겨온다. 작업 초기 그는 화려한 색이 대상에 대한 진솔한 기록을 방해한다는 생각에서 흑백사진만을 고집했다. 그러나 미얀마의 장대한 자연과 다채로운 색상에 매료된 그는 자연 풍경의 모습을 기록하는 데 있어 색상을 배제할 수 없

다는 사실을 자각했다. 또한 객관적인 기록을 위한 사진으로부터 작가 자신의 주관을 담은 사진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구보타 히로지는 풍경 사진이 풍경 그 이상의 것을 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단순히 보기 좋은 풍경을 찍는 것이 아니라, 사진을 찍는 이와 찍히는 대상 모두의 삶과 아름다움에 대한 관점을 두루 포괄한다.

학고재에서 4월 22일까지 진행되는 구보타 히로지의 회고전은 1960년대부터 최근에 이르는 50여 년간의 작품 활동을 아우른다. 그의 대표작 109점을 선보이는데, 작가의 방대한 작품 세계를 초기 작업, 세계여행, 컬러의 세계, 중국, 한국과 북한, 미국과 일본 등 6개의 소주제로 나누어 소개한다.

특히 이번 전시에는 한국과 북한을 다룬 작품들이 대거 전시됐다. 1966년 서울을 처음 방문했을 때와 1978년 북한 방문 당시의 생활상이 사진으로 기록됐다. 백두산과 북한의 모습을 포함해 금강산과 설악산 등 남북의 수려한 명산 풍경들도 이번 전시에서 만나볼 수 있다.



1 〈금강산, 북한〉, 피그먼트 프린트, 1986.
2 〈불교 성지 황금바위, 짜익티요, 미얀마〉, 다이-트랜스퍼, 1978.
3 〈미국의 사막 I〉, 1991. ©이정진

사진을 회화로 탈바꿈시키다

〈이정진 : 에코-바람으로부터〉, 3. 8~7. 1,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이정진은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욱 활발히 활동하는 여성 사진작가다. 그는 필름만 있으면 무한 복제가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사진을 단 하나밖에 없는 회화적인 작품으로 탈바꿈시켰다.

대학에서 공예를 전공하다 사진에 대한 매력을 느낀 이정진은 독학으로 사진을 공부한 후 국내에서 2년 반 동안 잡지 사진기자로 일했고, 이후 미국 뉴욕으로 유학을 떠났다. 작가는 자신의 작업을 사진이라는 고정된 장르로 규정하는 것에 의문을 가졌다. 기존의 인화지 외에 다양한 소재를 실험한 결과 한지를 발견했다. 그는 전통 한지에 붓으로 감광제를 바르고 그 위에 인화하는 수공적인 아날로그 프린트 기법을 통해 유일무이한 회화적인 사진 작품을 탄생시켰다. 이정진 작가는 "한지 위에 감광제를 어디까지, 얼마큼의 두께로 바르느냐에 따라 인화된 작품의 농담이 결정되고 고유한 특성을 띤다"고 설명한다. 이를 통해 사진의 재현성과 기록성, 복제성과 같은 일반화된 특성에서 벗어나 작가의 주관적인 표현이 가능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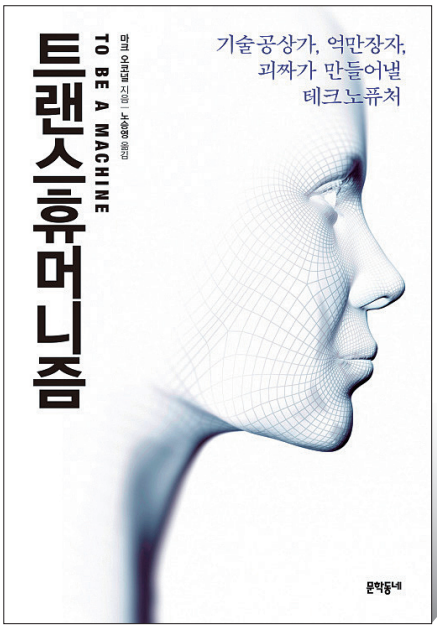
오는 7월 1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 열리는 〈에코-바람으로부터〉전은 이러한 작가의 감성과 직관을 통한 시적 울림의 공간을 보여준다. 유럽에서 손꼽히는 사진 전문 기관인 빈터투어 사진미술관과 공동으로 추진한 이 전시는 2016년 스위스 빈터투어 사진미술관 전시를 시작으로 지난해 독일 볼프스부르크 시립미술관과 스위스 르 로클 미술관을 순회한 후 올봄 한국 관람객들을 만나게 됐다. 이번 전시에는 이전 전시에서 볼 수 없었던 〈미국의 사막〉 시리즈와 〈바람〉 시리즈의 일부 작품들이 추가됐고, 한지에 인화하는 암실 작업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필름도 함께 공개됐다. 프레임 너머 작가의 자유로운 사상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오리지널 프린트 작품 원본을 액자에 끼우지 않은 채 벽에 그대로 설치했다. 종이의 거친 마감 끝과 한지 속 감광제가 덮인 부분의 경계까지 속속들이 볼 수 있다.

글 **박지현** 파이낸셜뉴스 기자 · 사진 제공 **학고재, 국립현대미술관**

책 〈트랜스휴머니즘〉과 〈스웨덴 장화〉

인간으로 산다는 것

최근 인간의 의식에 대한 사변에 빛을 던져줄 책 두 권을 만났다. 솔직히 말하면 두 권의 책에서 비교할 수 있는 대목을 추출했다. 그만큼 책 내용과 성격이 서로 이질적이다. 하나는 대중 눈높이에 맞춘 논픽션 과학교양서 〈트랜스휴머니즘〉, 다른 하나는 정통 혹은 본격이라는 수식어를 붙여도 좋을 만큼 호흡이 긴 북유럽의 장편소설 〈스웨덴 장화〉다.



명민한 영국 작가(올해 한국 나이로 71세인 작가에게 '명민'이라는 표현이 외람되긴 하지만) 이언 매큐언이 〈햄릿〉을 재해석한 장편소설 〈넛셸〉에는 태아의 신경세포 안에 인간 의식이 최초로 자리 잡는 환상적인 장면에 대한 묘사가 나온다. 매큐언은 신경세포 가닥들로 짜인 황금 피륙 가운데서 비로소 한 인간의 의식이 싹튼다는 식으로, 개체 발생의 신비로운 순간을 그린다. 그렇게 생겨난 태아는 소설 속에서 자신을 잉태한 엄마와 숙부의 죄악을 뚜렷하게 목격하고 증언하지만, (물론 청각과 엄마의 몸 상태 변화를 통해) 이를 테면 아직 의식으로밖에 존재하지 못하는 상태다. 기껏해야 엄마의 자궁벽을 발로 차는 행동 말고는 육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다.

거창한 얘기 같지만 인간의 의식을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 종교적 상상력에서 의식은 흔히 죽음 이후에도 살아남는다. 살아남아 죽기 전에 쌓아둔 소행에 따라 죗값을 받거나 복록을 누린다. 이럴 때 나는 곧 의식인가? 어쨌든 의식은 육체에서 분리될 수 있는 존재인가? 영혼이나 귀신의 형태로? 무의식은 어떻게 되나? 무의식도 나라는 정체성의 일부인가?

인간의 한계 뛰어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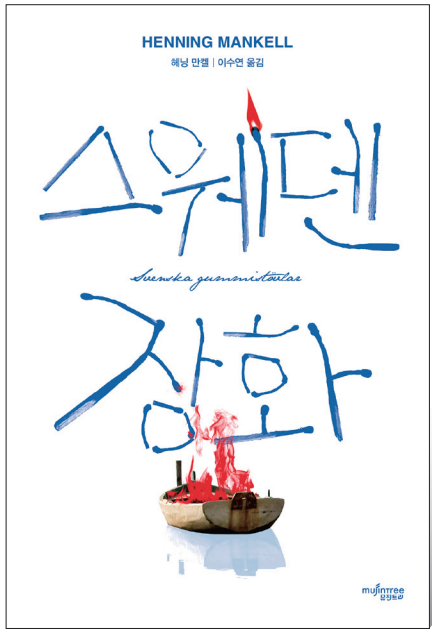
〈트랜스휴머니즘〉 마크 오코널 지음, 노승영 옮김, 문학동네

트랜스휴머니즘은 주로 미국, 그것도 급진적인 기술 낙관론이 지배하는 서부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죽음 극복 운동이다. 말 그대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자는 얘기다. 어떻게? 적극적인 과학기술 개발로. 인간이 절반 기계가 되는 방식으로. 책은 아일랜드 출신의 저널리스트이자 작가인 마크 오코널이 세계 곳곳에서 하나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는 트랜스휴머니즘 현상을 발로 뛰며 취재하는 형식이다. 대표적인 갈래가 SF 영화에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마음 업로딩이다.(조니 뎁이 출연했던 2014년 영화 〈트랜센던스〉가 생각난다.) 어떤 식으로든 인간 두뇌 안의 모든 정보, 사소한 마음의 기미까지 놓치지 않고 샅샅이 데이터화해 신경세포나 대뇌피질 같은 육체의 플랫폼이 아니라 0과 1의 끝없는 연쇄로 이뤄지는 디

지털 플랫폼 위에 되살린다는 발상이다.(책에서는 그런 업로딩 과정을 '모방하다', '복사하다'를 뜻하는 영어 단어 '에뮬레이션'(emulation)으로 표현한다.) 여기서 인간 의식은 얼마든지 육신에서 분리해낼 수 있는 무엇이다. 쥐의 뇌 절편(切片)을 완벽하게 스캔해 업로딩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실험실을 둘러보며 저자는 다음과 같이 중얼거린다. "정보야말로 나의 본질이며 우리 몸은 뇌 절편들이 보관된 유리판처럼 단순한 용기(容器)로 취급받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기이하기 이를 데 없었다."(84쪽)

지능이 곧 인간이며, 지능은 얼마든지 기계적으로 수집, 추출, 정리될 수 있는 정보라는 얘기다.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뇌는 '기본적으로 정보처리 시스템', 한 발 더 나아가면 마음이 곧 기계라는 생각이다.

성급한 과학기술주의자,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의 이 모든 소동은 죽음과 노화라는 근본적인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자는 데서 출발한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함께 닥칠 죽음을 인간의 기술로 극복하는 것이 지상목표다.



마음의 어두운 형이상학

〈스웨덴 장화〉 헤닝 만켈 지음, 이수연 옮김, 뮤진트리

그에 비하면 소설 〈스웨덴 장화〉의 인물들은 무기력하기 짝이 없다. 스웨덴 다도해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600쪽짜리 심리극이라고 해도 좋을 이 소설은 죽음과 늙음을 무기력하게 관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주인공은 은퇴한 70대 외과의사 프레드리크 벨린. 그는 한 여성환자의 엉뚱한 팔을 자르는 치명적인 의료사고를 저지르는 바람에 바닷가 고향 마을에 쫓기듯 돌아와, 할아버지가 남겨준 섬에서 혼자 산다. 용의자도, 동기도 오리무중인 의문의 연쇄 방화 사건을 배경으로 벨린이 시골 생활에서 겪는 크고 작은 감정의 소용돌이가 소설의 주를 이룬다.

벨린에게 죽음과 노화는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 죽음은 "언젠가 내게도 찾아오게 될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이해할 수 없이 찾아오는" 달갑지 않는 손님이다.(477쪽) 언제나 "우리 목덜미 뒤에서 늘 도사리고" 있는 존재다.(469쪽) 나라는 정체성, 그것의 바탕일 사람의 속마음 역시 바깥의 관찰자는 물론 당사자 본인도 그 진실에 다가갈 수 없다. 시종일관 서너 살 아래의 전직 우편배달부 얀손과 심리적 대치 상태에 있던 벨린은 얀손의 기이한 실체를 목격한 후 다음과 같이 방백한다. "얀손은 스스로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을까? 그런데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과연 있기는 한 걸까?"(603쪽) 차가운 스캐닝으로는 결코 읽어낼 수 없을 인간 심연, 사람 마음의 어두운 형이상학이다.

저자 헤닝 만켈(1948~2015)은 스웨덴의 국민작가다. 발란더 형사 시리즈가 세계적으로 수천만 부 팔렸다고 한다. 〈스웨덴 장화〉는 그의 마지막 소설이다. 애니메이션으로 치면 실사 애니메이션이라고 할까? 소설의 이야기가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처럼 실감 난다.

글 **신준봉** 중앙일보 기자 · 사진 제공 **문학동네, 뮤진트리**

1

영화 〈소공녀〉와 〈더 미드와이프〉

여자의 일생

임순례 연출, 김태리 주연의 〈리틀 포레스트〉가 얼마 전 1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여성감독이 연출하고 여배우가 출연한 영화는 극장 흥행이 저조하다는 선입견을 깨고 관객들의 호응을 얻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한다. 전고운 감독의 〈소공녀〉와 마르탱 프로보스트 감독의 〈더 미드와이프〉 역시 독특한 소재를 바탕으로 한국과 프랑스 두 나라에서 살아가는 여성들을 세심하게 관찰한 영화들이다.

N포 세대의 진짜 모습

전고운 감독의 〈소공녀〉

"쌀 좀 남는 거 있어? 집에 쌀이 떨어져서…." 일당 4만 5,000원, 가사도우미 미소(이솜)는 궁핍하다. 그래서 친구에게 '구걸'을 한다. 웹툰작가 지망생인 남자친구 한솔(안재홍)과 사귀고 있지만, 가난은 이들 사랑에 한없이 불편한 장애요소다. 한겨울, 남자친구와의 잠자리를 위해 잔뜩 껴입은 옷을 벗어던진 미소는, 냉골인 방에서 맞닿은 상대의 차가운 살에 놀라 말한다. "아이 차가워. 너무 춥다." 그렇게 이들의 사랑은 "봄에 하자"라는 말로 무기한 유예된다.

동화 〈소공녀〉의 세라는 가난했지만 한때는 잘살았다. 하지만 월세난, 취업난에 처한 N포 세대의 신음이 들리는 대한민국, 영화 〈소공녀〉의 미소에겐 부유했던 과거도 없을 뿐더러, 이대로라면 앞으로 살 길은 더 막막할 뿐이다. 월세가 5만 원 인상되고, 담뱃값은 두 배로 치솟은 상황에서 급기야 미소는 결단을 내린다. "집 뺄게요." 좋아하는 위스키와 담배를 위해 차라리 살 곳을 포기하는 젊음. 쌀을 구걸하던 미소는 이제, 대학 선배와 친구들 집을 전전하며 '하룻밤 잘 곳'을 구걸한다.

〈소공녀〉는 그렇게 집을 떠난, 아니 집을 잃은 미소가 만나는 '헬조선'의 사람들을 그린다. 좋은 직장을 구했지만 바쁜 스케줄로 고전하는 친구, 시부모와 남편의 눈치를 보며 기죽어 사는 친구, 생활은 풍족하지만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서 위안을 찾을 수 없는 친구…. 누구를 봐도 집 없이 떠도는 미소보다 더 낫다고 말하기 힘들다. 그럼에도 미소는 사회적 기준으로 볼 때 낙오자로 인식된다. 집도 없고, 결혼도 안 하고, 가진 것 없는 미소를 두고 미소의 친구는 "너는 아직 판타지 속에 살고 있구나", "나 같으면 (그런 상

황이면) 담배 먼저 끊었겠다"라는 지극히 전형적인 말들로 미소를 비난하지만, 미소는 그 걱정 어린 시선에 "집이 없어도 생각과 취향은 있어"라는 말을 되돌려주는 새로운 사고방식을 전개한다. 블랙코미디와 판타지에 가까운 전개 방식을 통해, 〈소공녀〉는 'N포 세대'라는 말로 청춘을 가두는 사회를 비판한다. 집을 구해야 한다는, 안정된 직장을 찾아야 한다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것들을 가장 먼저 챙기는 미소는 별종처럼 보이지만, 영화는 끝까지 미소를 '멋진 친구'로 남겨놓는다. 욜로(현재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고 소비하는 태도), 소확행(일상에서의 작지만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경향)처럼 삶의 가치에 대한 요구가 대두되는 지금, 남들과 똑같은 삶을 거부하고 자기만의 길을 떠나는 미소의 선택을 응원하게 된다.

엄마와 딸, 함께 나이 드는 여자들

마르탱 프로보스트 감독의 〈더 미드와이프〉

35년 전 집을 나갔던 새엄마의 연락. 중년 여성 클레어(카트린 프로)는 갑작스런 엄마의 귀환이 달갑지 않다. 인연을 끊고 살았던 그 사이 많은 일이 있었다. 아빠는 엄마가 떠난 직후 상실감에 자살을 택했고, '가슴에 총을 쏘고 자살한 아빠'를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도 바로 자신이었다. 이후 그녀가 어떤 상처를 극복하고 살아왔을지 익히 짐작되는 사건이다. 하지만 새엄마 베아트리체(카트린 드뇌브)는 자신을 외면하지 못할 말을 던진다. "나 뇌종양이래." 클레어에게는 그녀를 받아들이지도, 또 그렇다고 아픈 노인을 나 몰라라 할 수도 없는 복잡한 상황이 주어진다. 중년과 노년에 이른 두 여성의 해후를 그린 〈더 미드와이프〉는 관계가 뒤틀린 이들이 오랜 시간이 지난 후, 그래도 그 시간을 극복하고 살아가는 힘겨운 과정을 세심하게 지켜본다.

베아트리체는 "날 원망했겠다"고 하면서도 "그땐 그런 사정이 있었다"고 딸에게 이해를 구한다. 어린 딸에게 설명할 수 없었던 복잡한 문제들은 무엇이었을까. 흥미로운 건 그녀의 이런 사정을 받아들이는 클레어가 당시 엄마가 집을 떠날 때의 소녀가 아닌, 이제는 대학생 아들을 둔 중년의 여성이라는 점이다. 그녀는 이제 어른이라고 여겼던 그때의 엄마 나이가 되었다. 클레어는 한때 자신의 엄마였지만, 자신처럼 또 한 명의 여성이기도 한 베아트리체를 이해할 구실을 찾는다. 둘의 관계가 딸과 엄마가 아닌 두 명의 여성으로 보이는 이유도 여기 있다. 물론 산부인과 병원에서 조산사로 일하며 바른 생활을 하는 클레어와 술, 담배, 도박을 즐기며 자유롭게 살아가는 베아트리체는 성격부터 스타일까지 쉽게 친해질 수 없다. 그렇게 티격태격하는 사건들을 통해, 조금씩 둘은 친밀감을 형성한다. 이 세심한 관찰에 먹먹한 감정들이 밀려온다.

영화의 첫 장면부터 조산사인 클레어가 참여하는 분만 장면이 거의 다큐멘터리에 가까운 사실감을 전달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임신부들의 사전 동의를 받아 촬영한, 실제 상황이라고 한다. 클레어와 베아트리체가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나가는 사이, 영화에는 무수한 새 생명이 등장한다. 어떤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죽기도 하고, 어떤 아기는 의료진의 도움으로 새 생명을 얻기도 한다. 어린 시절 산파 덕에 목숨을 구했던 마르탱 프로보스트 감독의 경험을 토대로, 그 산파에게 헌정의 뜻을 담아 만들었다고 한다. 프랑스의 국민배우 카트린 드뇌브와 카트린 프로의 안정된 연기 역시 리얼함을 배가하는 요소다. 개봉 당시 프랑스에서 31주간 장기 상영되며 잔잔한 감동을 줬다.

글 **이화정** 씨네21 기자

1 영화 〈소공녀〉.
2 영화 〈더 미드와이프〉.

별자리 운세도 신통치 않을 때

예술적으로 상담해드립니다

"똑똑똑… 여기가 '예술적 상담소' 맞나요?"

여러분의 어떤 고민도 예술적으로 상담해드리는 '예술적 상담소'. 온라인으로 별도 공간을 마련해 고민 상담을 위한 만반의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올려주신 고민에 대한 예술적 대책을 찾아 답변을 달아드립니다. 서울문화재단 페이스북 탭에서 '예술적 상담소'를 찾아주세요! 다른 사람의 고민에 댓글을 달 수도 있답니다. 채택된 질문은 [문화+서울]에 게재되며, [문화+서울]을 1년 동안 보내드립니다.

제 이름으로 책을 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제 이름으로 책을 내는 게 꿈입니다. 하지만 출판 관련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전문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도 아니라서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평소 여행을 즐기고 책을 읽거나 메모하는 걸 좋아하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그때그때 적어놓은 생각들을 엮어 책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글쓰기를 배워야 할까요? 요즘은 1인출판 같은 형태로 나오는 책도 많던데, 회사를 다니면서 책을 만들 수 있을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지 궁금합니다.

책을 내기 위한 과정

오랫동안 독립출판을 보면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의 힘을 느꼈습니다. 누가 말릴 수도, 부추길 수도 없는 '자연스러운' 행동이지요. 책을 내는 꿈은 책을 잘 읽지 않는 시대에도 말릴 수 없는 자연스러운 열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책을 내려는 이유는 뭘까요? 나름대로 몇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자라는 타이틀에 매력을 느낀다거나, 저작권료라는 마르지 않는 샘의 신화를 상상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작업'을 한다는 것, 내가 쌓아온 작업물들을 의미 있게 마무리한다는 목적이 클 거라 생각합니다.

10년 넘게 찍어온 사진들은 추억에 젖게도 하지만 그것이 한 권의 사진집이 되기도 하지요. 오랜 시간 틈틈이 써놓은 시가 모여 한 권의 시집이 될 수도 있고요. 여행에서 느낀 감정을 담은 글귀와 그림이 서랍에 잔뜩 있는 사람은 여행 에세이를 읽을 때마다 나도 이렇게 묶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책으로 만들면 됩니다. / 글쓰기를 더 배우면 좋겠지요. / 1인출

판으로 낼 수 있습니다. / 회사를 다니면서 책을 만들면 더 좋습니다. 다만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지요. /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도 알면 도움이 됩니다.

책으로 만들면 됩니다. '책'의 범주는 넓어지고 있습니다. 종이책, 웹문서, PDF 파일 등 상황과 용도, 예산에 맞는 형태를 선택하면 됩니다. 종이책은 디자이너와 인쇄소가 있으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종이책으로 만들고 싶은 열망이 있다면 담을 내용과 디자이너, 인쇄소를 갖추면 됩니다. 물론 독립출판이란 본인이 비용을 부담한다는 뜻이지요.

글쓰기를 더 배우면 좋습니다. 글쓰기를 배우기 위해 꼭 학원에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이 쓴 글을 다듬고, 새로 쓸 때 글을 읽는 사람을 생각하며 쓴다면 글은 더 좋아질 것입니다. 물론 더 좋은 책으로 엮이겠지요. 그래서 계속 글쓰기를 연습해야 합니다.

1인출판으로 낼 수 있습니다. 1인출판은 결국 출판사를 만든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 '책을 쓴다'에 '사업을 한다'가 더해지는 것이지요. 그것이 자신이 원하는 방향과 맞는다면 그렇게 한 권 한 권 책을 만들어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저자가 되는 것 못지않게 사업 유지가 어렵다는 건 '회사원'이니 잘 알 것 같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책을 내면 더 좋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리겠지요. 책을 만든다고 생각했을 때, 가장 넘기 어려운 산은 내용에 있습니다. 책으로 만들어낼 만한 내용이 있는 사람은 흔하지 않으니까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다른 산은 바로 '시간'과 '비용'입니다. 회사를 다니면 물론 시간은 좀 모자라겠지만 비용을 마련하기는 낫지요. 만약 작업에 집중한다면 시간이 충분하니 내용은 충실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늘어나는 비용은 부담일 것입니다. 그래서 타협점이 필요합니다. 어렵지만 이제 승부를 봐야겠어, 라는 선택의 순간이 아니라면 조금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일상을 유지하면서 작업하기를 권장합니다. 적금이 두둑하다면야 몸을 던져볼 수도 있겠지요.

좋은 책은 작가 자신이 만들 수 있다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를 생각해본 후에 책을 만든다는 건 좋은 시작입니다. 물론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최신의 정보를 가지고 시작할 수 있다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물에 다가갈 가능성이 커질 테니까요. 책은 다행히 흔한 매체입니다. 집에 있는 책장에서, 혹은 작은 서점에서 내용과 모양새가 마음에 드는 책을 몇 권 골라볼 수 있을 겁니다. '아, 나는 이런 책의 저자가 되고 싶다'거나 '내 책은 이런 표지, 이런 지질, 이런 모양새면 좋겠어'라는 생각이 드는 책 말입니다. 그런 책을 참고해서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나 자신의 책을 구상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후의 작업들은 디자이너, 인쇄소, 유통사(100개를 넘어가고 있는 전국의 독립출판물 서점들)에서 적절한 비용을 받고 해주고 있습니다. 전국의 독립출판물 서점에서는 1일 강좌 혹은 4주의 단기 강좌를 통해 실제로 책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도움이 될 겁니다.

"아니요. 아니요. 저는 좋은 출판사에서 제대로 책을 내고 싶습니다."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독립출판의 붐이 온 이유는 제대로 된 책을 만드는 것이 꼭 좋은 출판사의 몫이 아니라 작가 자신의 역량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람들 덕분입니다. 그것이 현대 작업자의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꼭 내시길!

답변 **피터 김용진** 독립잡지 〈싱클레어〉 편집장, 뮤지션. 2000년 봄부터 독립잡지 〈싱클레어〉를 만들고 있으며, 앨범 〈기타의 봄이 온다〉, 〈너와 오끼나와〉, 〈여행에서 줍다〉를 냈다. 경주 불국사 아래에서 책 읽는 가게 '신촌서당'을 운영하고 있다.

남대문로와 노면전차

전차는 추억을 남기고

지금 전차라고 하면 유럽에서나 볼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생각되지만, 1960년대까지만 해도 서울의 한복판을 가로지르며 시민들을 실어 날랐습니다. 시속 7km의 느린 속도로 '땡땡' 소리를 내며 달리는 전차와 승용차, 버스,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얽혀 있는 모습은 1960년대 남대문로에서 흔히 보이는 우리의 일상 풍경이었습니다.

서울의 동서남북을 연결하다

서울시 종로구 보신각에서 서울역에 이르는 길이 2km, 너비 40~50m 도로를 남대문로라 칭합니다. 조선 초기 한양 천도 이후 500여 년간 광화문에서 종로 사거리, 종각으로 이어져 남대문을 향한 주요 간선도로로, 태평로보다 먼저 발달했다고 합니다. 이 지역은 종로, 을지로, 청계천로와 함께 서울의 대표적인 상업지구입니다. 전문 상품을 취급하는 소매점이 많습니다. 종로2가 사거리에서 광교를 거쳐 지하철 을지로입구역까지는 남대문로1가이며 명동 입구에서 소공로 교차지점까지가 2가, 한국은행 근처가 3가, 숭례문 근처가 4가, 서울역까지가 5가입니다. 국보 1호인 숭례문(남대문)이 길옆에 있어 이 같은 도로명이 붙었습니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 4월 1일 남대문통(南大門通)으로 지정된 뒤 1946년 10월 1일 남대문로로 이름이 바뀌었고, 숭례문에서 화신백화점(현 종로타워 자리)에 이르는 1.5km 구간이 1984년 11월 7일 서울역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사진〉은 1968년 3월 서울 중구 남대문로 풍경입니다. 노면에는 전차 선로가 설치돼 있고, 공중에는 전차선이 거미줄처럼 엮여 있습니다. 당시 노면전차(路面電車) 노선은 마포, 영등포, 왕십리 등 서울의 동서남북으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서울 노면전차는 1898년 서대문~청량리 구간에서 처음 개통됐습니다. 전차 선로는 고종황제가 깔았는데, 일본인들에게 시해된 명성황후가 묻힌 청량리 홍릉에 가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노면전차는 시속 7km 속도로 천천히 달렸지만 1960년대 중반 이후 자동차가 급격히 늘면서 자동차와의 충돌사고가 자주 발생했고, 결국 차량 통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1968년 11월 자취를 감췄습니다.

'땡땡' 소리를 내며 달리는 전차는 처음에는 9대가 운영됐습니다. 40인승 8대는 일반 시민용으로 사용됐고, 1대는 황실 귀빈용이었습니다. 워낙 느리게 달리다 보니 이동수단으로 타는 사람보다는 궁금해서 타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전성기에는 17개 노선에 200여 대까지 운영됐지만 시대의 조류에 밀려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사진〉은 전차가 사라지기 몇 달 전의 모습인데 여전히 도로는 한산하지만 전차와 승용차, 버스, 사람들이 얽혀 있는 모습이 복잡하게 보이네요.

〈사진〉 1968년 서울 중구 남대문로 풍경.

기억 속에 남은 서울의 옛 모습

1968년 당시 신문에 남대문로에 대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남대문로는 그 기능면에 있어서 서울의 도심을 남북주함으로써 크게 각광을 받아왔지만 앞으로는 서울역에서 광희동으로 빠지는 퇴계로, 제2한강교(현 양화대교), 제3한강교(현 한남대교) 건설과 옥천, 청계천 등의 복개로 새로운 간선들이 나타나게 되어 점차 중요성이 감소되는 실정이다. 그러나 남대문로 지역에는 은행, 시장 등이 산재하고 있어 지하주차장 시설이 계획되고 있다."

또 다른 신문에는 당시 남대문로 일대의 부동산 시세를 알 수 있는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서울역 부근 양동, 도동 지대는 주택지역이 평당 10만 원선을 유지하고 있을 뿐 이 지역의 땅값은 별다른 변동이 없는 실정이다. 특히 서울역에서 남대문으로 향하는 동자동, 남창동 지역의 상가는 남대문시장이 가까운 관계로 서울역 때문에 사람만 붐비는 형편이지 실제 고객이 별로 없어 이 지역은 도로 확장이 완성될지라도 땅값이 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60~80대 시민들은 이 거리의 옛 모습을 보면 젊은 시절의 추억이 떠오를 겁니다. 저 거리를 활보하며 꿈을 키우고, 펼쳐질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했을 겁니다. 거리의 모습이 바뀌듯 삶도 변하고 지난 시간은 기억 속에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옛 모습이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사진 **김천길** 전 AP통신 기자. 1950년부터 38년 동안 서울지국 사진기자로 일하며 격동기 한국 근현대사를 생생하게 기록했다.
글 **김구철** 문화일보 문화부 기자. 대중문화팀장으로 영화를 담당하고 있다.

여행작가 송은정의 염리동 소금길

낡아서 아름다운

여행작가 송은정은 4년 전, 염리동 소금길에 여행책방 '일단멈춤'을 열었다. 서울이지만 서울 같지 않은, 낯선 도시를 여행하는 듯한 낡은 골목의 매력에 빠졌다. 지금 책방은 사라지고 없지만,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만들어낸 일상의 풍경은 여전히 가슴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다.

익숙한 듯 낯선
일상의 풍경.

염리동은 켜켜이 쌓인
세월의 테를 간직한
따스하고 친근한 동네다.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 운영된 여행책방 '일단멈춤'.

미로처럼 얽힌 염리동 골목에는 오래된 것이 자주 눈에 띈다.

일단은 잠시 멈추시고…

그러고 보니 벌써 4년 전의 일이다. 막연한 긍정과 불안이 뒤섞인 얼굴로 회사를 박차고 나온 뒤 '책방'을 차리겠다며 서울 구석구석을 걷고 또 걸었던 것이. 여행을 주제로 한 단행본과 독립출판물을 취급하는 책방의 이름은 '일단멈춤'. 어느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소개한 사연을 듣다 우연히 낚아 올린 이름이다. "일단은 잠시 멈추시고…" 디제이의 나긋한 목소리를 듣자마자 하늘의 계시라도 받은 것처럼 문장을 고스란히 메모지에 옮겨 썼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은 예비 자영업자였지만 적어도 공간에 대해서만큼은 몇 가지 원칙이 있었다. 서울이지만 서울 같지 않을 것. 장소의 의외성이다. 책방으로 향하는 길이 낯선 도시를 방문하는 여정과 닮길 바랐다. 그렇다면 단순히 여행책을 구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보다 구체적인 감각으로 여행책방이라는 공간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일시적 여행자'들이 고심 끝에 고른 새 책을 손에 쥔 채 '일단멈춤' 주변을 느릿느릿 산책하는 장면을 상상하자 흐뭇한 미소가 절로 입가에 걸렸다.

서울에서 마음에 쏙 드는 공간을 발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와 같았다. 공간 임대료가 터무니없이 비싸거나, '서울스러운' 세련된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바람에 아쉽지만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출퇴근 교통비를 고려해 집에서 가까운 마포구 망원동을 시작으로 연남동, 연희동을 거쳐 용산구와 성북구를 전전하다 알게 된 곳이 바로 염리동 소금길이었다. 마땅한 공간을 발견하지 못한 채 이대로 창업의 꿈을 접어야 하나 고민하던 시기,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고 나서야 새로운 길이 나타난 것이다.

염리동은 알고 보니 사진을 취미로 하는 이들에겐 꽤 유명한 출사지였다. 서울시 범죄 예방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된 전형적인 벽화 마을. '소금길'이라는 명칭은 소금창고가 많았던 과거의 흔적에서 유래했다. 미로처럼 촘촘히 얽힌 골목에는 전봇대마다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었다. 이곳에 처음 온 방문객이 길을 잃지 않도록 배려한 조치였다. 한술 더 떠 도로에는 선명한 개나리색 라인이 그려져 있어 열차길을 걷듯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무사히 목표 지점에 도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청개구리 심보인 나는 개나리색 라인을 기꺼이 탈선하기로 했다. 때로 잘못된 기차가 우리를 바른 목적지로 데려다줄 것이라는 영화 〈런치박스〉 속 대사를 철석같이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기치 못한 선물 같은 동네

염리동은 낡은 동네였다. 애써 알록달록한 옷을 입혀 놓았지만 켜켜이 쌓인 세월의 테를 감추지는 못했다. 자연히 새것보다는 오래된 것이 자주 눈에 띄었다. 단골 손님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동네 목욕탕과 가게 입구에 닭장을 놓아둔 세탁소, 30년째 영업 중인 문구점, 나무 그늘 아래 나란히 앉아 담소를 나누는 할머니들. 익숙한 듯 낯선 일상의 풍경으로부터 나는 좀처럼 눈을 떼지 못했다. 쇼핑거리로만 짐작하고 있던 이대역 부근의 소란한 이미지와는 한참이나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닌가. 시큰둥했던 발걸음에 서서히 속도가 붙었다. 어서 움직이라며 호기심이 내 등을 떠밀었다. 핑크색으로 담벼락을 덮은 19번 골목길에는 주민들이 내놓은 각종 잡동사니와 그릇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다. 필요한 물건이 있다면 무료로 가져갈 수 있게끔 해둔 것이다. 따로 돌보는 사람이 없어 흙먼지를 잔뜩 뒤집어쓰긴 했지만 가만 살펴보니 그야말로 코리안 빈티지의 향연. 썬키스, 비락우유 등 까마득히 잊고 있던 옛 브랜드 로고가 박힌 유리컵이 여기저기 눈에 띄었다. 그중 하나를 골라 엄지손가락으로 유리컵 표면의 뽀얀 먼지를 쓱 문질러 닦았다. 흠 하나 없이 맑고 곱다. 상태를 확인한 뒤 그대로 가방 한구석에 챙겨 넣었다. 예기치 못한 선물을 받은 것마냥 이상스레 기분이 좋아졌다. 어쩌면 염리동이 내게 그런 장소가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었을까.

그 길로 곧장 부동산 서너 곳을 방문했다. 그리고 한 달 뒤 염리동 소금길 49번 골목에 여행책방 일단멈춤을 열었다. 노파심에 말하자면 일단멈춤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염리동에서 보낸 2년간의 추억은 〈오늘, 책방을 닫았습니다〉라는 책으로 엮어져 나왔다. 공간은 사라지고 없지만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수많은 이야기는 여전히 내 삶에 남아 있다. 일단멈춤의 마지막 결말이 쓸쓸하지 않은 이유다. 지금도 선명히 기억난다. 책방을 열 것이라는 나의 대답에 의뭉스러운 표정을 짓던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의 반응이. 그 흔한 카페 하나 없는, 하물며 상점이라고는 슈퍼마켓과 철물점, 국밥집이 전부인 동네에 책방이라니.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여기가 마음에 든다구요!"라고 차마 당당하게 말하지 못한 게 여전히 아쉽기만 하다.

글 · 사진 **송은정** 서울의 낡은 골목에서 여행책방 '일단멈춤'을 운영했다. 지금은 거실 옆 '집업실'에서 여행에 관한 글을 쓴다.

서울시장과 서울문화재단의 미래

문화도시 서울로 가는 길

서울문화재단은 서울시장의 문화 접근법에 맞춰 변화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만든 서울문화재단은 당시 '서울기획'이라고 불릴 정도로 축제기획 중심이었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에는 보여주기식 문화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현재는 시민의 문화향유권을 넓히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책에 따라 공연장 밖의 문화예술에 집중하고 있다. 6월 지방선거에서 선출될 새로운 서울시장과 함께, 서울문화재단은 또 하나의 언덕을 넘어야 한다.

©한겨레

©한겨레

©한겨레

역대 서울시장의 서로 다른 문화 접근법

장면 하나. 디자이너 앙드레 김이 곤룡포를 응용해 디자인한 황금색 의상을 입은 이명박 서울시장이 좌우에 한류 스타를 대동하고 무대로 걸어 나오고 있다. 이 시장은 마치 황제 같고, 도열한 한류 스타들은 그의 중신 같다. 2004년 '하이서울페스티벌'의 하이라이트 행사였던 '한류백야패션쇼'의 한 장면이다.

장면 둘. 2009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디자인재단 현판식에서 축사를 한다. "새로 출범하는 재단이 디자인 서울의 첨병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으며 2010년 세계디자인수도, 2011년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개관 등 서울의 디자인산업 진흥을 위한 주요 시책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더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전임 이 시장이 서울문화재단을 만들었다면 오 시장은 서울디자인재단을 만들었다.

장면 셋. 2017년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민들과 함께 새로 개장한 서울로7017을 걷고 있다. 만리동광장에서 열린 개장식에서 박 시장은 서울을 자동차 중심 도시에서 사람 중심 도시로 변화시키겠다고 선언했다. 이 선언 뒤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40여 명의 '서울로7017 시민합창단'의 축하 공연이 있었다.

장면 넷. 이 장면은 아직 펼쳐지지 않았다. 다음 서울시장은 문화시장으로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앞의 세 장면은 문화에 대한 세 시장의 서로 다른 접근법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단체장이 접근하는 방법의 차이에 따라 서울문화재단의 역할도 널뛰기를 거듭했다. 서울문화재단의 미래는 다음 서울시장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역대 서울시장의 문화리더십을 상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1 패션쇼 행사에 참여한 이명박 전 서울시장.
2 오세훈 전 서울시장.
3 지난해 5월 17일, 관광 안내원 복장을 하고 '서울로7017 해외 미디어 팸투어'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
4 2014년 개관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시민과 함께'의 한계를 넘어서려면

이명박 서울시장에게 문화는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화장술과 같은 것이었다. 그 화장이 잘 받도록 축제(하이서울페스티벌)를 열고 자신이 그 축제의 중심에 섰다. 초기 서울문화재단은 '서울기획'으로 불릴 만큼 축제기획의 비중이 커서 실무 부서 6곳 중 2곳이 축제기획팀이었다. 그들은 시장의 이런 철학에 맞춰 시장을 중심에 둔 '하이 이명박 페스티벌'을 연출했다.

처음 서울문화재단을 설립했을 때 이명박 서울시장은 "문예지원, 문화진흥, 문화교육 등 각종 문화사업을 벌일 주체를 세우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문화재단이 벌이는 사업은 연구기능이 강하고 기전문화재연구원, 기전문화대학을 설립하는 등 중후장대한 문화정책을 시행하는 경기문화재단에 비해 경박단소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문화정책은 전임 이명박 시장에 비해서는 세련미가 있었다. 서울문화재단이 서울시장의 들러리를 서는 것이 아닌 서울문화재단도 빛나고 서울시장도 빛나는 길을 택했다. 하지만 오 시장의 문화에 대한 인식은 '스타일'에 머물러 있었다. 그래서 서울디자인재단을 따로 설립하고 동대문디자인플라자라는 디자인의 성채를 기획하고 '세금둥둥섬'이라는 비아냥을 들었던 세빛둥둥섬 등을 만들었다. 큰 틀에서 보면 보여주기식 문화행정을 벗어나지 못한 셈이다.

'기승전-시민과 함께'라는 말로 요약되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문화정책은 한마디로 시민의 문화향유권을 넓히는 것이다. 박 시장은 폐취수장을 거리예술창작센터로 바꾸고 '하이서울페스티벌'을 '서울거리예술축제'로 바꾸는 등 공연장 밖의 문화예술에 주목했다. 프랑스에서 좌파 정권 집권기에 일반 시민들이 돈을 내지 않고 즐길 수 있는 거리예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는데 서울시도 이와 비슷한 길을 걷고 있다. 오세훈 시장 시절 맹아가 싹튼 서울 각 지역의 창작센터사업도 박 시장의 재임 시절에 만개했다.

'시민과 함께'는 지고지순한 가치지만 한계도 있다. 서울과 같은 메트로시티의 문화행정에 대해 시민들은 높은 예술적 완성도 또한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서 박 시장의 문화행정은 아쉬움이 있다. 대표적인 예가 서울로7017 개장 때 설치한 〈슈즈트리〉 논란이다. 잠실 제2롯데월드 개장 때 화제가 된 〈러버덕〉처럼 거대한 양괴감을 노린 작품이었지만 실패한 이벤트 정도로 치부되었다. 예술을 적절하고 적확하게 활용하는 것은 현대의 문화행정에서 중요한 과제다.

언덕을 넘어야 언덕이 보인다는 말이 있다. 평지에 있으면 작은 언덕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 언덕을 올라야 더 큰 언덕이 보이고 더 큰 언덕에 올라야 산맥의 윤곽을 어림할 수 있다. 서울문화재단은 '시민과 함께' 작은 언덕을 넘었다. 이제 예술적 성취라는 더 큰 언덕을 넘어야 한다. 그 큰 언덕을 넘어서면 문화도시 서울의 큰 산맥이 보일 것이다. 다음 서울시장과 함께 이 언덕을 잘 넘기 바란다.

글 **고재열** 시사IN 편집기획팀장

사라질 뻔한 바흐와 슈베르트의 명곡들

천재는 천재를 알아본다

오늘날 많은 사랑을 받는 클래식 명곡들 가운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뻔한 작품들이 꽤 많다. 바흐의 자필 악보가 상점의 포장지로 사용될 뻔했는가 하면, 슈베르트의 교향곡과 소나타는 창고 속에 틀어박힌 채 세상 빛도 못 보고 사라질 뻔했으니,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일이다. 그 작품에 담긴 비범한 천재성을 알아본 천재가 없었다면 바흐와 슈베르트 작품을 비롯한 명곡들은 오늘날까지 전해지지도 못했을 것이다. 바흐의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를 연구한 바이올리니스트 다비트, 슈베르트의 교향곡 악보를 발견해 널리 알리고 초연을 성사시킨 로베르트 슈만 등 천재를 알아본 천재 덕분에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사라질 뻔한 명곡의 감동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바흐의 음악을 발굴해낸 천재들

바흐가 활동하던 18세기 전반기에는 음악작품을 보존한다는 개념이 없었다. 따라서 그 시대에는 바흐의 악보가 상점의 포장지로 사용되는 것이 그리 이상하지 않았다. 바흐의 여러 종교 칸타타와 기악곡들은 특정 행사를 위해 소비된 후 그저 버려졌다.

바흐가 남긴 대부분의 작품들이 그러하듯, 바흐의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와 파르티타 역시 그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는 철저한 무관심 속에 잊혔다. 1814년에 발견된 바흐의 자필 악보는 한 버터 상점에서 포장지로 쓰는 낡은 종이뭉치 틈에 끼어 있었으니, 이 곡을 자주 연주한 바이올리니스트 다비트의 노력이 없었다면 이 곡은 역사 속에 파묻혔을 것이다.

독일의 유서 깊은 악단,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의 악장이었던 페르디난트 다비트는 바흐의 작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눈에 알아보았다. 그는 반주 없이 오로지 바이올린 독주만으로 연주하는 바흐의 바이올린 소나타와 파르티타 전 6곡의 독창성을 더욱 부각시키기 위해 바흐의 악보를 철저히 연구했다. 바흐가 쓴 악보에 손가락 번호를 적고, 활 표시도 했다. 그리고 마침내 1839년 바흐 악보의 편집을 마친 다비트는 이 악보를 출판한 후 가는 곳마다 연주하며 온 세상에 바흐의 음악을 알렸다.

때마침 다비트가 일하던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의 지휘자였던 작곡가 펠릭스 멘델스존이 이 작품에 관심을 보이고 바흐의 무반주 파르티타 중 '샤콘느'에 피아노 반주를 붙였다. 두 음악가는 피아노와 바이올린 2중주로 바흐의 '샤콘느'를 즐겨 연주했다.

멘델스존 역시 바흐의 주요 작품을 세상에 알리는 데 힘썼다. 1829년 3월 11일 베를린에서 20세의 청년 멘델스존이 바흐의 대작 〈마태 수난곡〉을 지휘한 사건은 큰 주목을 받았다. 바흐의 서거 이후 단 한 번도 연주되지 못한 채 도서관에서 잠자고 있던 악보가 다시금 빛을 발하자 바흐의 장대한 악상이 모든 이들의 심금을 울렸다. 오늘날 기독교의 수난 기간 중에 바흐의 〈마태 수난곡〉은 거의 예외 없이 연주된다. 멘델스존의 〈마태 수난곡〉 연주를 계기로 바흐의 음악이 새롭게 재조명되면서 19세기에 부쩍 자주 연주되기 시작했다. 1833년에는 바흐의 〈요한 수난곡〉이 재연되었고 1835년에는 미사 B단조가 연주되어 호평을 받았다. 바흐는 여러 음악가들의 노력 덕분에 19세기에 이르러 비로소 위대한 음악가로 거듭났다.

슈베르트의 진가를 발견한 슈만

멘델스존의 친구이자 작곡가 겸 음악평론가 슈만 역시 훌륭한 작품들을 알리는 데 힘썼다. 슈만이 슈베르트의 교향곡 C장조를 발견하고 널리 알리지 않았다면, 슈베르트는 그토록 위대한 교향곡 작곡가로 인정받지 못했을 것이다.

1839년 1월, 로베르트 슈만은 페르디난트 슈베르트가 건네준 악보뭉치를 보며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다. 세상에 발표된 적이 없는 프란츠 슈베르트의 유작 악보 하나하나는 모두가 보물이었지만, 그중에서도 슈베르트의 마지막 교향곡 C장조는 단연 뛰어났다. 슈만은 이 놀라운 교향곡을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하고는 그의 친구인 펠릭스 멘델스존에게 지휘를 부탁했다. 1839년 3월 21일,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연주회에서 슈베르트의 교향곡 C장조 〈그레이트〉가 초연되었을 때 슈만은 슈베르트의 마지막 교향곡에 대해 이렇게 썼다. "처음 이 곡을 들으면 우리가 전혀 모르는 새로운 세계의 모습이 너무도 화려하게 교차되어 신기한 것을 볼 때와 같은 혼란을 느낄지도 모른다. 그러나 동시에 마술사의 재미난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즐거움을 느낄 것이다. 나는 이 작품에 완전히 사로잡혔다."

이처럼 천재를 알아본 천재들 덕분에 우리는 역사에 길이 남을 명곡들을 더 많이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올봄에는 음악의 거장이 남긴 명곡에 귀를 기울이며 이 곡을 알아본 천재들에게 감사를 느끼는 시간을 가져보자.

글 **최은규** 서울대 음악대학 및 동 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부천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바이올린 부수석 및 기획홍보팀장을 역임했다. 월간 객석, 연합뉴스 등 여러 매체에서 음악평론가 및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으며, 예술의전당, 부천필 등에서 클래식 음악을 강의하고 있다.

그림 **정수지**

창경궁 대온실

봄날의 햇살을 머금은 곳

유독 추운 겨울을 보냈기 때문일까. 봄날의 햇살이, 바람이, 그 냄새가 유독 반갑다. 이 봄날을 좀 더 느긋하게 즐기고 싶어 발걸음을 옮겨본다. 봄날의 햇살을 가득 머금은 그곳, 창경궁 대온실로.

1

2

식민화와 근대화의 장소, 창경궁에서 창경원으로

창경궁은 창덕궁과 함께 동궐에 속하는 궁궐이다. 성종 13년경 수강궁을 확장하여 세 대비의 처소로 삼았다. 홍화문을 정문으로, 명정전을 정전으로 갖춘 독자적인 궁궐이었지만 창덕궁의 주거공간을 보완하기 위해 주로 사용됐다.[1]

고종황제는 경운궁을 대한제국의 황궁으로 삼았지만, 순종황제는 1907년 즉위 이후 거처를 창덕궁으로 옮겼다. 이어 순종을 위로하고 국왕의 은혜를 백성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명목으로 창경궁 안에 박물관, 식물원, 동물원을 설치했다.[2] 이는 곧 왕의 궁궐이 일반에게 개방되고 일제에 의해 궁궐과 국왕의 지위가 격하되는 것을 의미했다. 궁궐에 있는 동물원이나 식물원이 특별한 건 아니었다. 17세기 중후반, 루이 16세는 베르사유 궁전에 동물원과 식물원의 시초가 되는 시설들을 설치했다. 6대주에서 잡아온 동물들을 6개의 방에 가두고 이들을 탑 위에서 구경하는 메나쥬리(Menagerie, 1668~1670), 근대적인 온실의 형태는 아니었지만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등에서 가져온 오렌지 나무 3,000여 그루를 겨울 동안 보호하던 오렌저리(Orangery, 1684~1686)가 바로 그러한 시설들이다. 그러나 이는 모두 루이 16세와 왕족들을 위한 것이지, 대중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궁궐이 공원이 되는 과정은 절대 권력이 시민 권력으로 대체됨을 의미한다. 이는 근대화 과정에서 프랑스 시민혁명에 의해 베르사유 궁전의 공간들이 비워지고 전용되며 나타난 현상이었다. 창경궁은 결과적으로 권력의 공간이 시민의 공간이 되었지만, 그 과

1 철과 유리로 만들어진 창경궁 대온실. 앞에는 프랑스식 정원과 분수가 설치되어 있다.
2 창경궁 대온실은 수로가 둘러싸고 수목이 식재된 중앙부분, 작은 분재들이 창가 진열대에 놓인 복도 부분으로 나뉜다. 2017년 보수 공사 때 바닥 부분에 있던 영국제 타일을 복원했다.
3 동백꽃이 핀 3월의 대온실.

정에 식민화의 개입이 있었다는 특수성을 띤다. 창경궁을 시작으로 경운궁, 창덕궁, 경복궁 등 남아 있는 궁궐들은 모두 공원이 되었고 창경궁은 창경원으로 그 이름이 바뀌었다.

철과 유리로 세운 빛의 공간, 온실 혹은 선룸(Sunroom)

1909년에 만들어진 창경궁 대온실은 철제와 목제 프레임, 그리고 유리로 이루어진 투명한 건물이다. 이 건물을 설계한 사람은 일본인 원예학자인 후쿠바 하야토로, 프랑스와 독일에서 유학한 후 일본 신주쿠어원의 식물원 책임자로 일했다. 그는 1909년 이토 히로부미의 제안을 받아 이 온실을 설계했으며, 시공은 프랑스 회사가 담당했다. 건축가가 아닌 원예학자가 창경궁 대온실을 설계했다는 점이 다소 의아할 수도 있다. 하지만 1851년 대영박람회 당시 건축된 영국의 수정궁(Crystal Palace, 1851) 또한 조경가인 조셉 팩스톤(Joseph Paxton)이 설계했다.

철과 유리로 온통 투명하게 처리해 빛을 가득 머금은 이 공간은 19세기의 최첨단 재료와 기술이 집약되어 있다. 얇은 선재로 무거운 하중을 감당할 수 있는 철 덕분에 돌이나 벽돌로 막혀 있던 벽은 한없이 가벼워지기 시작했고, 비워진 벽은 투명한 유리가 그 자리를 대체했다. 또한 철제 기둥과 가벼운 유리 천장은 기둥 없는 내부의 큰 공간을 가능하게 해주었고, 곡물창고나 아케이드, 겨울정원 등에 적극 이용되었다. 그중 온실의 일종인 겨울정원은 바로크 시대부터 귀족들이 열대식물 등을 기르기 위해 만들었다. 19세기 들어서는 도시의 중산층을 위한 대중시설이 되었다.

사실 동물원이나 식물원, 박물관 등은 모두 제국주의의 산물들이다. 인도, 아시아, 아프리카로 진출한 서구 유럽의 제국 열강이 이국에서 발견한 동물들과 식물들, 그리고 진귀한 유물들은 배에 실려 유럽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이들을 분류하고 진열하는 박물관, 동물원, 식물원 등이 처음에는 왕이나 귀족들의 거처에, 이후에는 도시 도처에 등장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창경원의 식물원은 식민지 개척의 증거가 아닌 식민지화의 전초로서 등장했다. 식물원으로서의 온실이 우리나라에 등장한 것은 창경원이 최초였지만, 온실 혹은 선룸(Sunroom)은 비슷한 시기 지어진 서양인들이나 일본인들의 주택에서도 종종 발견된다. 110여 년 전 햇살을 머금어 늘 빛으로 풍부하고, 별도의 난방장치를 해 겨울에도 따뜻한 온실 혹은 선룸에서 사람들은 이국적인 식물들, 계절

3

을 벗어난 식물들을 바라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 새삼 궁금해진다.

도심 속 궁궐에서 즐기는 봄날의 산책

일제강점기 창경원은 동물원, 식물원, 박물관뿐 아니라 벚꽃놀이 장소로도 사랑을 받았다. 4월이면 사람들은 1,100여 그루의 벚꽃으로 가득한 창경원에서 꽃놀이를 즐겼다. 1924년부터는 야앵(夜櫻), 즉 밤벚꽃놀이가 시작되어 밤의 놀이 장소로도 유명했다. 이후 1983년, 창경궁 복원 계획에 따라 동물원은 서울대공원으로 옮겨졌고, 벚꽃나무도 100그루를 제외하고 여의도 일대를 비롯한 다른 곳으로 옮겨 심어졌다. 당연히 밤벚꽃놀이도 중단되었다. 그래도 여전히 4월이면 창경궁에는 매화와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다. 밤의 궁궐 산책도 할 수 있다. 봄의 문턱에 있는 3월에는 대온실에서 활짝 핀 흰 동백꽃과 붉은 동백꽃을 볼 수도 있다. 이 봄, 봄꽃이 흐드러지게 핀 창경궁으로 산책을 나가보면 어떨까. 그 길의 끝에는 110년의 시간을 오롯이 견뎌온, 따스한 햇살을 가득 품은 창경궁 대온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

글 · 사진 **이연경** 연세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건축역사이론 전공으로 석 · 박사를 취득했다. 한성부 내의 일본인 거류지에 대한 박사논문으로 제6회 심원건축학술상을 수상하였으며 한국도코모모, 도시사학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한성부의 '작은 일본' 진고개 혹은 本町〉이 있다.

1) 창경궁 대온실, pp. 32~33.
2) 창경궁 대온실, p. 33.

토마스 맥카시 감독의 〈스포트라이트〉

믿을 님 있는 세상을 위하여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구나, 하는 말을 한숨처럼 많이 하는 시간들이다. 가장 엄밀하고 공정해야 할 검찰 내부에서 터져 나온 성추행 고백은 연극, 영화, 체육, 문학, 학원, 연예계에 이어 정치권으로 이어졌다. 논의들이 폭발하는 사이, 더불어 여성 혐오와 젠더 문제, 허위 제보와 성정체성이 아우팅당하는 일과 음모론까지 더해지면서 부글부글 끓고 있다.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중심을 못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 영화의 결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성폭행, 성추행으로 논의가 집중되어 있지만 폭언과 폭행, 희롱과 추행을 모두 포함한 폭력의 문제는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문제이다. '그렇게 해서 이 바닥에서 살아남을 것 같아?'란, 대항하기 주춤거리게 만드는 겁박과 두려움을 바닥에 깔고 시작해야 하는 관계들, 좁은 바닥과 밀도 높은 권력, 그리고 그들만의 단단한 결속력 앞에서 소수의 목소리는 허공으로 날았다 사그라졌다. 그리고 어쩌면 이 모든 게 생존이었을 사람들이 용기를 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 Eric Charbonneau/Invision for Open Road Films/AP Images

실제 〈보스턴 글로브〉 기자들.

올곧은 언론의 태도, 그대로의 영화

미투 운동을 통해 드러나는 많은 폭력들이 권력형 성범죄라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더불어 동시대의 문제를 다루는 언론의 태도가 가진 문제점을 드러내는 시간이다. 클릭 수가 광고로 이어지는 온라인 매체들은 정확하고 엄밀한 취재에 앞서 특종, 속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폭로에 초점을 맞춘다. 이런 상황에서 토마스 맥카시 감독의 〈스포트라이트〉는 언론이 갖춰야 할, 세상을 바꾸는 언론의 진심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올곧게 보여주는 영화다. 맥카시 감독은 영웅담을 펼치거나, 영웅을 만들지 않는다. 영화 속 〈보스턴 글로브〉의 기자들은 특종과 폭로에 목매지 않고 진실을 찾아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노력한다. 올곧고 강직하다. 철저하게 조사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한다. 개인의 문제로 몰아가면 더 큰 조직의 문제가 묻힐 거라는 생각으로 온 세상이 9.11 테러에 집중하는 동안에도, 비리와 진실을 찾기 위해 진심을 바친다.

영화 속 이야기는 실제 벌어졌던 가톨릭 보스턴 교구 사제의 집단 성추행 사건을 다룬다. 어린 시절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그 상처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다. 영화는 개인이 아닌, 괴물이 된 거대 조직이 어떻게 문제를 방조하고 악화시키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영화의 중심축은 '스포트라이트 팀' 이라는 바른 언론 조직 시스템과 각각의 이익을 위해 사

건을 은폐하기 급급한 교구–법조계–방조하는 언론이라는 더 큰 사회 조직의 대결이다.

불 켜진 발밑, 이제부터 시작이다

사실 온전히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인 것 같지만, 시시각각 바뀌는 표정처럼 내 마음은 쉽게 주인을 바꾼다. 스스로 비겁하다고 느끼지만 용기를 내는 건 훨씬 더 어려운 일이다. 아주 많은 것을 잃어야 한다. 어쩌면 우리는 대항하기에 앞서 마음을 등지는 법을 먼저 배워왔는지 모른다. 그럼에도 정의라 불리는 마음의 표정은 꽤나 강직한데, 그 강직한 마음의 표정을 끝내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스포트라이트〉는 그 강직한 마음의 표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하는 영화다. 그리고 그 화법은 꽤 믿음직하고 설득력 있다.

극적 효과를 위해 아슬아슬하게 실화가 주었던 충격을 더욱 선정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었겠지만, 영화는 격앙되지도 과열되지도 않은 태도로 진실로 걸어가는 보폭을 맞춘다. 욕심내고 싶은 극적 효과, 성추행이라는 이슈는 가급적 뒤로 미루고, 이슈가 숨긴 비밀을 밝히려는 언론의 의지에 방점을 찍는 것이다. 거대 조직의 압력과 사회적 함의 때문에 고군분투하던 스포트라이트 팀의 보도가 나간 후 피해자들의 전화가 빗발치는 마지막 장면은 감동적이다. 그리고 보도 이후의 이야기는 더 큰 울림을 준다. 〈보스턴 글로브〉의 보도 이후, 최근의 미투 운동처럼 가톨릭 교구에서 벌어진 성추행에 대한 제보가 이어졌다. 이는 미국을 넘어 전 세계로 퍼진다. 최근의 미투 운동과 닮아 있다. 실제로 〈보스턴 글로브〉는 첫 번째 보도 이후 600개의 후속 기사를 연이어 내며, 피해자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영화에는 이런 대사가 있다. "우린 늘 어둠 속에서 넘어지며 살아가요. 갑자기 불을 켜면, 갑자기 탓할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이죠." 이 대사처럼 우리는 어둠 속에서 갑자기 넘어지거나 다치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 살아왔는지 모른다. 그리고 미투 운동을 통해서 금기시되어 있던, 혹은 억눌려 있던 피해자의 절규가 촛불처럼 세상을 밝히고 있다. 눈이 번쩍 떠지는 순간, 우리는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는 내 발밑의 장애물들을 하나하나 치워야 한다는 사실에 동의하기 시작했다. 변화를 위해 용기를 내고, 우리의 발밑에 촛불을 하나씩 켜준 사람들을 위해, 우리 모두 촛불 하나씩을 움켜쥘 시간이 되었다. 우리가, 그리고 언론이 취해야 할 태도는 영화 속 스포트라이트 팀처럼 신중하고 차근차근한 발걸음이다.

글 **최재훈** 영화감독이 만들어낸 영상 언어를 지면 위에 또박또박 풀어내는 일이 가장 행복한 영화평론가. 현재 서울문화재단에서 근무하며 각종 매체에 영화평론과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2018 4

남산예술센터 2018 시즌 프로그램 〈처의 감각〉

2017년 낭독공연을 통해 원작의 무대화 가능성을 확인하고, 2018년 시즌 프로그램으로 다시 관객과 만난다. 전작 〈손님들〉에서 한 차례 호흡을 맞춘 바 있는 극작가 고연옥과 연출가 김정이 〈처의 감각〉 원작을 무대화한다.

일시 4월 5일(목)~15일(일) 평일 오후 8시, 주말 오후 3시(월 공연 없음)
장소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관람료 전석 3만 원
문의 02-758-2150, www.nsac.or.kr

SFAC 문화예술공간

-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 금천예술공장
- 남산예술센터
- 남산창작센터
- 대학로연습실
- 문래예술공장
- 서교예술실험센터
- 서서울예술교육센터
-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 서울무용센터
- 서울연극센터
- 서울예술치유허브
- 시민청 · 시청
- 신당창작아케이드
- 연희문학창작촌
- 잠실창작스튜디오

- SFAC 문화철도
- SFAC 축제/예술교육/지원 및 협력
- 기타 문화행사

MON	TUE	WED
2	**3**	**4**
■ 제15회 금현앙상블 정기연주회 ■ 전시 〈100ALBUMS 100ARTISTS 2 – 대중가요편〉(~4.2)	■ 2018 클래식 샹들리에 ■ 중앙가야스트라의 토리이야기 〈가야금에 스민 옛노래〉(~4.4) ■ 서울시합창단 명작시리즈 I/II(~4.4) ■ 커뮤니티 댄스 〈당신은 지금 바비레따에 살고 있군요〉(~4.8) ■ 백순실개인전 〈삶과 교향곡〉(~4.12)	■ 코미디 공연 〈투맘쇼〉(~4.4) ■ 〈홍순관의 먹과 쇠 展〉(~4.10) ■ 제6회 서울현대미술페스타(~4.11)
9	**10**	**11**
	■ 전시 〈개:화만발(畵滿發)〉(~4.10) ■ 뮤지컬 〈찔려찔러〉(~4.10) ■ 연극 〈낫심〉(~4.29) ■ 연극 〈특별한 저녁식사〉(~5.13)	■ 〈그림의 미술사 : 에셔전〉(~4.11) ■ 〈세실 깡뗄 마르코 초대전〉(~4.11) ■ 무용 〈상상력〉(~4.12)
16	**17**	**18**
	■ 어린이 예술체험 프로젝트 〈예술로 놀이터〉 상반기 프로그램(~6.29) ■ 레 벙 프랑세 첫 내한공연	■ 장파 서울 개인전 〈Brutal Skins〉(~4.18) ■ 연극 〈바람 불어 별이 흔들릴 때〉(~5.6) ■ 2018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5.27)
23	**24**	**25**
	■ 〈2018 서울국제음악제 봄 음악회: 마르틴 슈타트펠트 피아노 리사이틀〉 ■ 황부용 힐링 그래피즘 〈춤추는 사람들〉(~5.4) ■ 연극 〈분홍나비 프로젝트〉(~5.6) ■ 연극 〈하이젠버그〉(~5.20) ■ 창작 뮤지컬 〈스모크〉(~7.15)	만남이 있는 날 ■ 전시 〈동화의 숲 속으로〉(~4.25) ■ 국립창극단 〈심청가〉(~5.6)
30		
■ 가족뮤지컬 〈어른동생〉(~4.30) ■ 하석 박원규 서예초대展 〈책+독서〉(~4.30)		

THU	FRI	SAT	SUN
			1 ■ 서교예술실험센터 〈쉐어 프로젝트:실험실〉 2차(~4.30) ■ 2018년 평창올림픽&패럴림픽 기념 한중일 서예 거장전 〈동아시아 필묵의 힘〉(~4.1) ■ NT Live 〈로젠크란츠와 길덴스턴은 죽었다〉(~4.1) ■ 전시 〈신여성 도착하다〉(~4.1) ■ 연극 〈전화벨이 울린다〉(~4.1)
5 ■ 남산예술센터 2018 시즌 프로그램 〈처의 감각〉(~4.15) ■ 서초교향악단 〈해설음악회〉 ■ 국립오페라단 〈마농〉(~4.8) ■ 전시 〈봄 그리고 봄(see and spring)〉(~4.11) ■ 석촌호수 벚꽃축제(~4.13) ■ 2018 정동극장 상설공연 〈궁 : 장녹수전〉(~12.29)	**6** ■ 서울시국악관현악단 제336회 정기연주회 〈신춘음악회–그리다, 봄〉 ■ 유니버설발레단 〈지젤〉(~4.15) ■ 연극 〈말뫼의 눈물〉(~4.22) ■ 클래식 가족음악극 〈우리엄마〉(~7.1)	**7** ■ 창작채움공방 1차 정규공방 〈알록달록 비닐봉지〉(~5.26) ■ Lifeplus 벚꽃 피크닉 페스티벌 2018 ■ 함보경 개인전 〈소소한 행복〉(~4.7) ■ 2018 아시아 기획전 〈당신은 몰랐던 이야기〉(~7.8)	**8** ■ 27회 신춘문예 단막극전(~4.8) ■ 전시 〈댄 플래빈, 위대한 빛〉(~4.8) ■ 2018 서울미술관 신소장품전 〈마침내 미술관, 그리고.〉(~4.8) ■ 연극 〈아홉소녀들〉(~4.8)
12 ■ 국립국악원 서초동 청사 30주년 기념 공연 〈이음을 위한 기원〉(~4.13) ■ 2018 서울시극단 정기공연 〈옥상 밭 고추는 왜〉(~4.22) ■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6.3)	**13** ■ 타악앙상블 바람의숲 10주년 기념공연 ■ 국립국악관현악단 〈모던 국악 기행_강원, 영남의 힘〉 ■ 2018 브리즈 아트페어(~4.15) ■ 전시 〈아드만 애니메이션 – 윌레스&그로밋과 친구들〉(~7.12)	**14** ■ 한마음 살림장 ■ 〈김형구 작품 & 아카이브 : 서정(抒靜)의 풍경〉전(~4.14) ■ 뮤지컬 〈모스키토 2018〉(~5.27)	**15** ■ SeMA 벙커 기획전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4.15) ■ 뮤지컬 〈명성황후〉(~4.15) ■ 연극 〈성〉(~4.15) ■ 〈알베르토 자코메티 한국특별전〉 (~4.15) ■ 뮤지컬 〈홀연했던 사나이〉(~4.15) ■ 전시 〈Hi, POP : 하이팝〉(~4.15)
19 ■ 국립발레단 〈말괄량이 길들이기〉 (~4.22) ■ 연극 〈어차피 겪어야 될 사랑이야기〉(~4.30)	**20** ■ 전시 〈In us without us〉(~4.20) ■ 국립현대무용단 〈스윙〉(~4.22) ■ 뮤지컬 〈엄마 까투리〉 서울앵콜(~5.20) ■ 연극 〈컨설턴트〉(~7.1)	**21** ■ 음악극 〈로미오 – The 씻김〉 ■ 〈2018 교향악축제〉(~4.21) ■ 뮤지컬 〈더 픽션〉(~4.21) ■ 2018 서울돈화문국악당 〈신통방통〉(~4.21)	**22** ■ 2018 1번출구연극제(~4.22) ■ 전시 〈구보타 히로지, 아시아를 사랑한 매그넘 작가〉(~4.22) ■ 조용원 개인전 〈나무에 새김, 色臨〉(~4.22)
26 ■ 남산예술센터 2018 시즌 프로그램 〈손 없는 색시〉(~5.7) ■ 서울시오페라단 〈투란도트〉(~4.29) ■ 한태숙 연출 〈엘렉트라〉(~5.5) ■ 전시 〈Weather : 오늘, 당신의 날씨는 어떤가요?〉(~10.28)	**27** ■ 전시 〈캔버스 위의 언어〉(~4.27) ■ 2018 제9회 대한민국오페라 페스티벌 라벨라 오페라단 〈가면무도회〉(~4.29) ■ 제26회 대한민국서예전람회(~5.3) ■ 전시 〈몽골 초원의 유목 제국〉 (~7.15)	**28** ■ 토요일은 청이좋아 ■ 한마음 살림장 ■ 바이올리니스트 신지아 〈반전反轉〉 ■ 연극 〈사랑해요 당신〉(~5.8) ■ 〈마르크 샤갈 특별전 – 영혼의 정원〉(~8.19)	**29** ■ 〈클래식 큐레이터: 라스트 모차르트〉 ■ 전시 〈서울대학교 미술관 소장품 100선〉(~4.29) ■ 연극 〈아마데우스〉(~4.29) ■ 전시 〈IMA Picks〉(~4.29)

01 SUN

NT Live
〈로젠크란츠와 길덴스턴은 죽었다〉

영화 〈셰익스피어 인 러브〉로 잘 알려진 영국 극작가 톰 스토파드의 초기작으로 그를 거장의 반열에 올린 작품이다. 1967년 올드 빅 시어터에서 공연되었으며, 초연 당시 이브닝 스탠더드상, 뉴욕 연극평론가상, 토니상 등을 수상했다. 이후 1990년 게리 올드만과 톰 로스 주연의 영화로 제작, 제47회 베니스 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일시 ~4월 1일(일) 오후 3시
장소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관람료 전석 2만 원
문의 02-2280-4114

03 TUE

중앙가야스트라의 토리이야기
〈가야금에 스민 옛노래〉

교과서에 수록된 지역별 민요를 활용하여 그 음악적 특징을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한 무대다. 이해하기 쉬운 해설과 함께 가야금 선율과 노래로 지역별 민요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

일시 4월 3일(화)~4일(수)
화 오전 11시, 수 오후 8시
장소 서울남산국악당 크라운해태홀
관람료 전석 2만 원
문의 02-2261-0500

커뮤니티 댄스
〈당신은 지금 바비레따에 살고 있군요〉

객석과 무대의 경계를 없앤 커뮤니티 댄스 무대로, 5인의 예술가와 함께하는 교감과 소통의 시간이다. 힘들고 지친 이들에게 서로를 위로하고 기운을 북돋을 수 있도록 한다.

일시 4월 3일(화)~8일(일)
화~금 오후 8시, 주말 오후 2시
장소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관람료 전석 2만 원
문의 02-2263-4680

05 THU

남산예술센터 2018 시즌 프로그램
〈처의 감각〉

2015년 벽산희곡상을 수상한 〈처의 감각〉은 2016년 시즌 프로그램 〈곰의 아내〉(각색 · 연출 고선웅) 각색본으로 공연되었고 원작은 같은 해에 희곡집으로 발간되었다. 2017년 낭독공연을 통해 원작의 무대화 가능성을 확인하고, 2018년 시즌 프로그램으로 다시 관객과 만난다.

일시 4월 5일(목)~15일(일)
평일 오후 8시, 주말 오후 3시
(월 공연 없음)
장소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관람료 전석 3만 원
문의 02-758-2150, www.nsac.or.kr

서초교향악단 〈해설음악회〉

곡의 해설을 곁들여 진행하는 공연으로 자연, 문학, 오페라, 인생 등 총 4가지 주제를 정해 그에 걸맞은 표제음악을 연주하고 설명한다. 작곡가와 작품의 시대적 배경, 작품의 구조 등에 대한 설명을 통해 관객들의 이해를 돕는다.

일시 4월 5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심산기념문화센터 반포심산아트홀
관람료 전석 1만 원
문의 02-3477-2805

국립오페라단 〈마농〉

오페라 〈마농〉은 귀족 출신의 학생 데 그리외와 평민 출신의 소녀 마농의 격정적인 사랑을 다룬다. 젊고 매혹적인 마농의 짧고 뜨거웠던 삶과 그녀의 심리적 갈등이 섬세하면서도 화려하고 관능적인 음악과 절묘하게 어우러진다.

일시 4월 5일(목)~8일(일)
목 · 금 오후 7시 30분, 주말 오후 3시
장소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관람료 R석 15만 원, S석 12만 원,
A석 8만 원, B석 5만 원,
C석 3만 원, D석 1만 원
문의 02-580-3500

2018 정동극장 상설공연 〈궁 : 장녹수전〉

〈궁 : 장녹수전〉은 조선 최고의 기녀이자 욕망의 화신으로 낙인찍힌 '장녹수'의 이야기를 토대로 그녀가 탐한 권력과 그녀만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기예를 상상해 재구성한 창작극이다. 천한 노비의 신분으로 시작해 후궁에 올라 궁에 입궐한 조선 유일의 기녀, 조선 최고의 예인이자 권력을 탐한 그녀의 욕망이 화려한 몸짓으로 살아난다.

일시 4월 5일(목)~12월 29일(토)
화~토 오후 4시
장소 정동극장 서울
관람료 VIP석 6만 원, R석 5만 원,
S석 4만 원
문의 02-751-1500

06 FRI

연극 〈말뫼의 눈물〉

높이 128m의 아찔한 크레인과 우리들의 위태로운 삶은 데칼코마니처럼 닮아 있다. 조선소에서 벌어지는 연이은 사고는 생계에 치여 일상이 되고, 진실을 알리기 위한 고공농성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며 안타까움을 더한다. 대본을 쓰고 연출을 맡은 김수희가 거제도에서 보낸 어린 시절을 토대로 생생한 작품을 빚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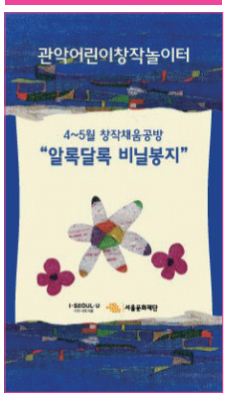
일시 4월 6일(금)~22일(일)
평일 오후 7시 30분, 주말 오후 3시
(화 공연 없음)
장소 백성희장민호극장
관람료 전석 3만 원
문의 1644-2003

클래식 가족음악극 〈우리엄마〉

앤서니 브라운의 그림책 〈우리엄마〉가 음악교육 전문기관 오디(Audie)와 만나 새로워졌다. 생동감 넘치는 라이브 연주, 몸과 소리로 표현하는 글자들이 아이들의 감수성과 상상력을 키워준다. 엄마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따뜻한 이야기가 무대 위에 펼쳐진다.

일시 4월 6일(금)~7월 1일(일)
화~금 오전 11시,
주말 오전 11시 · 오후 1시
(월 공연 없음)
장소 코엑스아트홀
관람료 3만 5천 원
문의 02-6413-3698

07 SAT



창작채움공방 1차 정규공방 〈알록달록 비닐봉지〉

예술가 작업 활동 기반의 어린이 맞춤 기획 공방 프로그램이다. 비닐이 실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체험해보고 직조기법을 활용해 나만의 작품을 만들 수 있다.

일시 4월 7일(토)~5월 26일(토)
매주 토 오전 11시 · 오후 1시
장소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2층
대상 6~13세 어린이
참가비 2천 원
문의 02-871-7400

08 SUN

27회 신춘문예 단막극전

2018년 등단작가의 당선작을 무대에서 만날 수 있다. 동아일보, 서울신문, 경상일보, 부산일보, 한국일보, 조선일보, 한국극작가협회의 2018년 신춘문예 당선작 7편이 한국연극연출가협회가 심사해 선정한 연출가들과 만나 작품화되었다.

일시 ~4월 8일(일)(월 공연 없음)
장소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관람료 8천 원,
패키지(7편 전체) 3만 5천 원
문의 0507-1308-7620

11 WED

〈그림의 마술사 : 에셔전〉

에셔는 20세기를 대표하는 네덜란드의 판화가로, 철저히 수학적으로 계산된 세밀한 선을 이용하여 현실과 가상을 넘나드는 세계를 창조한 초현실주의 작가다. 그의 독창적인 작품은 보는 이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안겨주고 자유로운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며 미술, 수학, 과학, 건축, 음악, 디자인, 영화 같은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일시 ~4월 11일(수) 오전 11시~오후 8시
장소 연세대학교 박물관
관람료 성인 9천 5백 원, 청소년 8천 원, 어린이 7천 원
문의 02-784-2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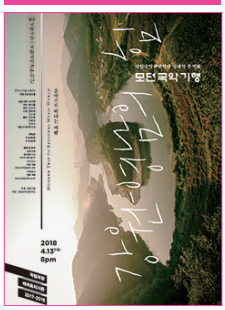
12 THU

국립국악원 서초동 청사 30주년 기념 공연 〈이음을 위한 기원〉

30년 동안 서초동 청사에서 한국음악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온 창작악단. 과거의 진솔한 예술혼을 오롯이 이어 앞날의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간다. 국립관현악 〈하나 되어〉, 거문고협주곡 〈침묵〉, 첼로와 국악관현악을 위한 〈미제레레〉 등을 연주한다.

일시 4월 12일(목)~13일(금) 오후 8시
장소 국립국악원 예악당
관람료 S석 3만 원, A석 2만 원, B석 1만 원
문의 02-580-3300

13 FRI



국립국악관현악단 〈모던 국악 기행_강원, 영남의 힘〉

〈모던 국악 기행〉은 우리나라 지역별 음악 여행이다. 3번에 걸쳐 선보이는 이번 공연은 남도, 강원 · 영남, 제주 · 서도 지역의 대표적인 전통음악과 지역별 음악적 특성을 토대로 새롭게 작곡된 현대음악을 함께 들려준다. 관객들은 명인들의 깊이 있는 연주와 실력파 작곡가들이 쓴 현대적 감각의 곡들을 한 무대에서 들을 수 있다.

일시 4월 13일(금) 오후 8시
장소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관람료 R석 3만 원, S석 2만 원
문의 02-2280-4114

2018 브리즈 아트페어

브리즈 아트페어는 신진 예술가와 신진 컬렉터를 발굴하고 연결하는 네트워킹 파티이자 예술과 예술가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안하는 아트마켓이다. 50명의 신진 작가, 250여 점의 작품을 만나보자.

일시 4월 13일(금)~15일(일)
오전 10시 30분~오후 8시
장소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1관
관람료 성인 1만 2천 원, 청소년 1만 원, 7세 이하 무료(부모 동반 시)
문의 070-8656-3303

15 SUN

연극 〈성〉

출입이 허락되지 않는 미지의 성, 기묘한 마을 사람들의 알 수 없는 통제, 일부러 구부러져 버리는 길. 무엇 하나 확실하지 않은 그곳에 이방인 K가 들어선다. 끝이 보이지 않는 무대 위 답이 없는 질문들이 객석을 집어삼키는 순간, 우리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살고 있는 오늘이 바로 카프카적 현실임을.

일시 ~4월 15일(일) 평일 7시 30분, 주말 · 공휴일 오후 3시 (화 공연 없음)
장소 명동예술극장
관람료 R석 5만 원, S석 3만 5천 원, A석 2만 원
문의 1644-2003

17 TUE

어린이 예술체험 프로젝트 〈예술로 놀이터〉 상반기 프로그램

예술가 창작활동 기반의 어린이 예술체험 프로젝트 〈예술로 놀이터〉가 상반기 4개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예술가와 함께 예술 창작 과정을 경험하면서 감수성과 창의성을 쑥쑥 키울 수 있다.

일시 4월 17일(화)~6월 29일(금)
장소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대상 6~13세 어린이
참가비 무료
문의 02-871-7414

18 WED

장파 서울 개인전 〈Brutal Skins〉

장파는 여성으로서의 개인에 대한 탐구와 이해를 넘어 남녀, 자아와 타자의 구분에 대한 질문과 태도를 회화, 영상 및 설치로 실험해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남성 중심적 시각과 서사에서 소외된 여성의 억압된 감각을 자극적인 색과 역동적인 붓터치로 분출하며 전형적인 여성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낸다.

일시 ~4월 18일(수)
오전 10시~오후 6시(일 · 월 휴관)
장소 두산갤러리
관람료 무료
문의 02-708-5050

연극 〈바람 불어 별이 흔들릴 때〉

이 연극은 우주론적 관점에서 바라본 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다. 그들의 이야기는 눈물과 웃음, 아픔을 지닌 채 지구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당신의 삶도 충분히 가치 있고 존중받아야 마땅하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일시 4월 18일(수)~5월 6일(일)
수 · 목 오후 8시, 금 · 주말 오후 3시
(월, 화 공연 없음)
장소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관람료 1층석 6만 원, 2층석 4만 원,
3층석 2만 원
문의 02-580-1300

20 FRI

국립현대무용단 〈스윙〉

안성수 안무가와 스웨덴 스윙재즈밴드 '젠틀맨 앤 갱스터즈'가 만난다. 무대 위의 라이브 연주와 더불어 안성수 안무가의 밀도 있는 구성, 17명의 국립현대무용단 무용수들의 춤이 어우러져 즐거움을 선사한다.

일시 4월 20일(금)~22일(일)
금 오후 8시, 주말 오후 3시
장소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
관람료 R석 5만 원, S석 4만 원,
A석 2만 원
문의 02-6196-1619

21 SAT

음악극 〈로미오 – The 씻김〉

공연은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후를 다루는 외전으로 한 맺힌 로미오의 영혼이 구천을 떠돌고 있다는 동양적 상상력에서 출발한다. 전통연희 씻김의 처연한 아름다움과 우리 국악기들의 매력이 어우러진다.

일시 4월 21일(토) 오후 4시 · 7시
장소 서울남산국악당 크라운해태홀
관람료 전석 3만 원
문의 02-2261-0500

24 TUE

〈2018 서울국제음악제 봄 음악회: 마르틴 슈타트펠트 피아노 리사이틀〉

독일을 대표하는 피아니스트 중 한 명인 마르틴 슈타트펠트, 그가 재편곡한 바흐의 '샤콘느'와 '바흐에 대한 오마주'라고 이름 지은 12개의 모음곡을 발표한다. 바흐의 평균율 곡집의 기본적인 조성 선택 구조와 같은 방식으로 12개의 모든 조성을 포함한다. 부조니를 능가하는 샤콘느라고 평가받는 슈타트펠트의 연주는 바흐의 팬이라면 한 번쯤 들어볼 만하다.

일시 4월 24일(화) 오후 8시
장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관람료 S석 4만 8천 원, A석 2만 4천 원
문의 1544-5142

25 WED

전시 〈동화의 숲 속으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과 라트비아대사관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전시다. 라트비아의 건국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라트비아 동화작가 마가리타 스타레스테의 그림책, 애니메이션, 인형 등을 전시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라트비아를 간접 경험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한다.

일시 ~4월 25일(수) 오전 9시~오후 6시
(둘째 · 넷째 월, 공휴일 휴관)
장소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관람료 무료
문의 02-3413-4800

국립창극단 〈심청가〉

이 시대 최고의 소리꾼들이 모인 국립창극단과 연출가 손진책이 만나 심청가에 도전, 판소리 창극의 묵직한 감동을 선사한다. 판소리 사설의 말맛을 최대한 살려 소리의 진면목을 보여줄 것이다.

일시 4월 25일(수)~5월 6일(일)
월 · 수 · 금 오후 8시,
목 · 주말 오후 3시(화 공연 없음)

장소 명동예술극장

관람료 R석 5만 원, S석 3만 5천 원,
A석 2만 원

문의 1644-2003

26 THU

남산예술센터 2018 시즌 프로그램 〈손 없는 색시〉

'예술무대산'과 공동 제작하는 〈손 없는 색시〉(작 경민선, 연출 조현산)는 남산예술센터에서 처음 시도하는 인형극이다. 거대 구조화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개인이 우연히 맞닥뜨리는 상처와 불행을 어떻게 견디고 소화하며 살아가는가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되었다. 회복은 본래 상태로의 복귀가 아니라 그 상처와 문제를 인정하고 곁에 두는 것임을 믿고 우리 모두의 회복을 꿈꿔본다.

일시 4월 26일(목)~5월 7일(월)
평일 오후 8시,
주말 · 공휴일 오후 3시
(4월 30일 공연 없음)

장소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관람료 전석 3만 원

문의 02-758-2150, www.nsac.or.kr

서울시오페라단 〈투란도트〉

1926년에 초연된 푸치니의 유작 〈투란도트〉가 무대에 오른다. 푸치니의 3대 명작 중 한 작품으로, 3개의 수수께끼를 풀어야 얼음처럼 냉혹하지만 아름다운 투란도트와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이다.

일시 4월 26일(목)~29일(일)
평일 오후 7시 30분, 주말 오후 5시

장소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관람료 VIP석 12만 원, R석 8만 원,
S석 5만 원, A석 3만 원, B석 2만 원

문의 02-399-1783~6

전시 〈Weather : 오늘, 당신의 날씨는 어떤가요?〉

햇빛, 눈, 바람, 뇌우 등 날씨에 담긴 다채로운 감성과 이야기를 20여 명의 세계적인 아티스트의 작품들로 선보인다.

일시 4월 26일(목)~10월 28일(일)

장소 디뮤지엄

관람료 성인 6천 원, 학생(초·중·고) 3천 원,
미취학 아동 2천 원

문의 070-5097-0020

27 FRI

2018 제9회 대한민국오페라 페스티벌 라벨라 오페라단 〈가면무도회〉

대한민국오페라 페스티벌 개막작으로, 화려한 무도회의 가면 속에 숨겨진 사랑과 운명의 대서사시를 그린 작품이다. 작곡가 쥬세페 베르디의 최고 역작을 만나보자.

일시 4월 27일(금)~29일(일)
금 오후 7시 30분,
토 오후 3시 · 7시 30분, 일 오후 4시

장소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관람료 R석 15만 원, S석 12만 원,
A석 8만 원, B석 5만 원,
C석 3만 원, D석 1만 원,
페스티벌석1 3만 원,
페스티벌석2 2만 5천 원

문의 02-572-6773

국립극장 | 국립창극단

창극

SHIMCHEONG-GA

심청가

"당신이 단 한번도 본 적 없는 심청"

월·수·금 20:00
목·토·일 15:00
(화 공연없음)

R석 50,000원
S석 35,000원
A석 20,000원

예매 및 문의
국립극장
02-2280-4114
국립극단
1644-2003
인터파크
1544-1555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2017-2018

2018.4.25–5.6 | 명동예술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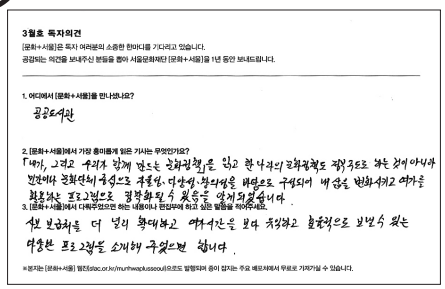
대본·연출 손진책 작창·도창 안숙선

함께 만들어갑니다 [문화+서울]

웹진 [문화+서울]
www.sfac.or.kr/munhwaplusseoul

좀 더 나은 [문화+서울]을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가장 좋았던 기사나 지적하고 싶은 점, 제안하고 싶은 것들, 어떤 의견이든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분들께 [문화+서울]을 1년 동안 보내드립니다.

독자 엽서


3월호 독자의견

[문화+서울]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감되는 의견을 보내주신 분들을 뽑아 서울문화재단 [문화+서울]을 1년 동안 보내드립니다.

1. 어디에서 [문화+서울]을 만나셨나요?
공공도서관

2. [문화+서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은 기사는 무엇인가요?
'내가,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드는 문화정책'을 읽고 한 나라의 문화정책도 정부 주도가 아니라 민간이나 문화단체 중심으로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내 삶을 변화시키고 여가를 활용하는 프로그램으로 정착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3. [문화+서울]에서 다뤄주었으면 하는 내용이나 편집부에 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주세요.
보급처를 널리 확대하고 여가 시간을 보다 유익하고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해주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본지는 [문화+서울] 웹진(sfac.or.kr/munhwaplusseoul)으로도 발행되며 종이 잡지는 주요 배포처에서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곽강표 님(부산광역시 북구)

1. 어디에서 [문화+서울]을 만나셨나요?

공공도서관.

2. [문화+서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은 기사는 무엇인가요?

'내가,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드는 문화정책'을 읽고 한 나라의 문화정책도 정부 주도가 아니라 민간이나 문화단체 중심으로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내 삶을 변화시키고 여가를 활용하는 프로그램으로 정착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3. [문화+서울]에서 다뤄주었으면 하는 내용이나 편집부에 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주세요.

보급처를 널리 확대하고 여가 시간을 보다 유익하고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해주었으면 합니다.

편집 후기

"양재동 사장님. 전화 못 드려서 미안합니다."
이규승 서울문화재단 미디어팀장

미세먼지는 마감이 없나 봅니다.
마스크를 꼭 하고 다닙시다.
전민정 객원 편집위원

봄바람이 분다.
윤선희

[문화+서울]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지는 무가지로 발간되므로 별도의 구독 요청이 불가합니다. 주요 배포처에 방문하셔서 비치된 잡지를 무료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4인용 식탁

더 즐겁고 더 행복한

군산 호원대 특강을 다녀왔습니다. 군대 동기 김미형 교수가 선물해준 '이성당' 빵을 우리 직원들과 나눠 먹었습니다.
(앞줄 왼쪽부터)이서영, 박홍규, 이영훈, 주철환 대표, 김아정 외 활동가들

주요 배포처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국립극장, 국립중앙박물관 극장용, 금천예술공장, 남산예술센터, 남산창작센터, 동숭아트센터, 대학로연습실, 두산아트센터, 문래예술공장, 백성희장민호극장, 백암아트홀, 상명아트센터, 서교예술실험센터,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서울도서관, 서울무용센터, 서울문화재단, 서울시 자치구 문화재단 및 문화원,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연극센터, 서울예술치유허브, 시민청, 신당창작아케이드, 아르코미술관, 연희문학창작촌, 예술가의 집, 잠실창작스튜디오, 정동극장, 중랑아트갤러리, 하자센터, 한국공연예술센터, 한전아트센터, KT&G 상상마당, LG아트센터 등